

#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연구

한국경제교육의 모델 모색을 중심으로

항상석 지음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에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한 장보고는 오늘날 글로벌리즘과 일맥 상통하는 개방화·세계화를 몸소 실천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모델을 제시한 인물이다.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연구

한국경제교육의 모델 모색을 중심으로



##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연구**

---

발행처 ·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발행인 · 김재철

지은이 · 황상석

발행일 · 2003년 12월 31일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한국무역센터 1803호

공급처 · 청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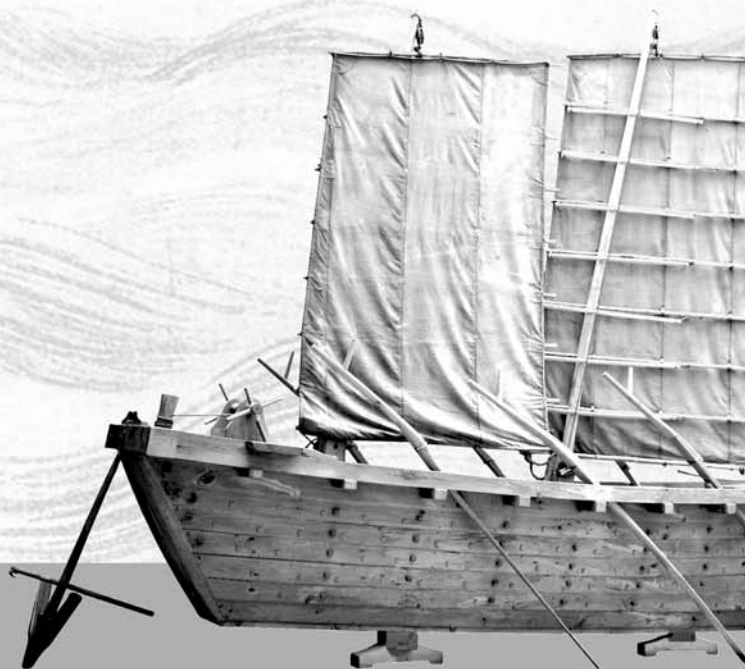
---

비매품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연구

한국경제교육의 모델 모색을 중심으로

황상석 지음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 사이버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1세기의 시대정신(時代精神)은 한마디로 말해 개방화, 글로벌화, 자유화이다. 이같은 시대정신은 개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로 하여금 국경을 초월, 무한경쟁을 벌여 생존해야하는 냉혹한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한-칠레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대국의 다국적 기업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살아남아야 하는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개방화 또는 글로벌화를 연상할 때 생각나는 역사적 인물(위인)로는 장보고 칭해진 대사가 떠오른다. 왜냐하면 장보고 대사는 절대봉건체제하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개방화, 국제화, 자유화를 주도, 몸소 실천했으며 오늘날 경제블록권의 원조(元祖)인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보고 대사의 상인정신을 알면 개방화체제의 무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장보고 대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지금까지 약 14년 동안 장보고 대사의 정신에 대해 연구(너무 거창한 표현이지만)를 해왔다. 특히 장보고 대사의 개방화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1998년 동아시아 미래연구회(회장: 김호성 서울교대 총장) 설립을 제안, 결성하기에 이르렀으며 지금도 이 연구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회에서는 장보고의 시대정신으로 IMF를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장보고 그랜드디자인- 21세기 한국의 국가발전전략》(공저. 집문당. 1999년)을 발간했었다. 이와 함께 故 신길웅 해양수산부 해안심판원장이 추진하던 장보고대사 재조명 및 재평가 사업에 동참, 줄거 《장보고를 알면 세계가 열린다》(도서출판 한눈. 1999년)를 발행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왜 이 시점에서 장보고 청해진 대사를 한민족의 사표(師表)로 삼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규명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에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한 장보고 대사는 오늘날 글로벌리즘과 일맥상통하는 개방화-세계화를 몸소 실천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모델'을 제시했던 것이다. 특히 이 책을 쓰면서 얻었던 교훈은 장보고 대사의 정신과 행상문화는 한민족의 상인정신과 상인문화를 대표하며 이들의 정신과 문화를 계승, 발전한 세력이 바로 조선시대의 상인조합이었던 보부상단이었던 것과 이들의 상인정신과 문화가 바로 '디지털 시대의 경제원리'와 너무 흡사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나오기까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현 중앙대 교수)의 도움이 컸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런 인연으로 김성훈 교수가 대표저자로 발행한 《21세기 장보고정신구현》(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3년)이라는 책에 '장보고의 정보네트워크와 21세기 동북아 전략'이라는 논문을 기고했던 것이다.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IMF사

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모색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그의 개방정신이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기에 부심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거의 위대한 선각자의 정신이라도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장보고 대사의 개방정신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를 찾아내고자 무던히 노력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게 됐다.

이 책은 한국경제에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조리 현상'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개방화시대의 한국경제 과제가 무엇인가를 도출했으며 그 해결방안으로서 무역을 통한 국부창출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무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상인정신의 원형으로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개방화 정신과 개척정신, 무역진흥정신, 공동체 정신 등을 다루었다. 이는 장보고 대사가 절대봉건체제하에서 어떻게 민간무역을 수행했으며, 어떻게 당나라와 일본, 신라를 잇는 중개무역을 전개, 성공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밖에 한국의 경제교육과 장보고 정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과 커리큘럼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책에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사이버무역'을 설정하고 사이버무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을 제안했다. 다만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건학이념으로는 바로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상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을 제안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해방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 원인이 바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 아프리카 등 오지까지 파고들면서 한국산 제품을 팔았던 무역상들의 공로가 있었던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 사이버무역을 주도하는 무역상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 국부(國富) 창출의 원동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책에서 제시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가 빠른 시일 내 설립되기를 기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장보고 대사의 개방정신을 계승하여 우리나라가 ‘사이버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험과 개척정신으로 무장된 한국의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무역상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거상(巨商)으로 성장하기를 고대한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관계자 여러분과 청아출판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3년 12월

황상석(세계닷컴 대표이사)

## Chapter 1 한국경제와 무역

1.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해결 방안 · 14
  - (1) 한국경제의 부조리 현상 · 14
  - (2) 개방화시대와 한국경제 과제 · 20
  - (3) 한국경제의 해법 · 25
    - ① 수출 증대를 통한 국부 창출 · 27
    - ②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 29
    - ③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 · 31
2. 한국 무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36
  - (1) 한국 무역의 과거 · 36
    - ① 조공무역 · 37
    - ② 민간무역 · 39
    - ③ 중계무역 · 40
    - ④ 밀무역 · 42
    - ⑤ 국경무역 · 43
    - ⑥ 일제 식민지시대 수탈무역 · 44
  - (2) 한국무역의 현주소 · 46

## Chapter 2 한국 상인정신의 원형, 장보고 칭해진 대사

1.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 56
2. 장보고의 상인정신 · 62
  - (1) 개방화정신 · 65
  - (2) 개척(도전)정신 · 74
  - (3) 무역진흥정신 · 77
  - (4) 공동체정신 · 82
    - ① 신라인 경제공동체 · 82
    - ② 신라인 신앙공동체 · 87

- (5) 탁월한 정보 마인드 · 89
  - (6) 박애정신 · 97
  - (7) 글로벌 리더십 · 99
3. CEO 장보고 대사로부터 배우는 교훈 · 101
- (1) 해상 지배력(Sea Power) 확보 · 101
  - (2) 정경유착의 해결책 제시 · 105
  - (3) 윈·윈(win·win)전략 · 109

## Chapter 3 장보고 대사와 한국의 경제교육

- 1. 경제교육의 개념 · 117
- 2. 외국의 경제교육 · 120
  - (1) 미국의 경제교육 · 121
  - (2) 일본의 경제교육 · 124
  - (3) 네덜란드의 경제교육 · 127
  - (4) 이스라엘의 경제교육 · 129
  - (5) 중국의 경제교육 · 132
  - (6) 기타 경제교육 · 134
- 3. 한국 경제교육의 실태 · 134
  - (1) 가정·학교 경제교육의 실태 · 138
  - (2) 정부의 경제정책 · 142
  - (3) 소비자의 경제교육 · 144
  - (4) 노사의 경제교육 · 146
- 4. 최근 경제교육의 동향 · 147
- 5. 바람직한 경제교육 · 150

## Chapter 4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1. 한국 경제교육의 원형과 사이버교육 현황 · 158
  - (1) 한국 경제교육의 원형 · 158
  - (2) 사이버 교육현황 · 162
2.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사이버무역 · 165
  - (1) 글로벌 시대 도래 · 166
  - (2)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 · 169
  - (3) 사이버무역의 실태 · 177
  - (4) 사이버무역 상인 양성 · 180
3.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 186
  - (1)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건학이념 · 189
  - (2)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 형태 · 191
    - ① 사이버(원격)대학으로 설립하는 방안 · 191
    - ② 재단(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 · 194
  - (3)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 195
  - (4)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목표 · 199

## Chapter 5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커리큘럼과 활용 방안

1.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커리큘럼 모색 · 204
  - (1) 기존 사이버무역학과의 커리큘럼 · 204
  - (2)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커리큘럼 시안 · 206
  - (3)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교육대상자 확보 방안 · 210
2.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활용 방안 · 212
3. 본 연구의 한계와 의미 · 214

◇ 참고문헌

# 한국경제와 무역

# 1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고도성장을 누려왔던 한국 경제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최대의 위기' 를 맞고 있다. 한때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로 인식됐던 우리 경제는 지난 1997년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관리체제를 맞으면서 성장과도에 서 이탈한 뒤 목표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GNP) 1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8년째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접어들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았던 한국경제는 최근 들어 또다시 IMF 사태에 버금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즉 무역외수지 적자 급증과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신용 붕괴 우려,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이 저금리 문제와 맞물리면서 수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한국경제는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위기 경보가 우리 사회를 엄습해 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2003년에 접어들면서 한국경제는 세계

적 불황에 따른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에 따른 경기불황, 노사갈등, 투자위축, 북한 핵문제, 중국의 도전 등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는데다가 진보와 보수 간의 첨예한 갈등, 노동자들의 극한적인 파업투쟁 등으로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정치와 사회,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쳐 보수와 진보세력이 대결하면서 이익집단 간의 갈등 양상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 양상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응원한 덕분에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입하는 것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측됐던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IMF 관리체제 당시 온 국민이 국난(國難)을 극복하지는 기치 아래 금모으기 운동을 펼쳤던 단합된 공동체의 저력(底力)은 어디로 사라지고 좀 먹고 살만하니까 너도나도 해외에 나가 외제(外製)를 싹쓸이하는 등 흥청망청 돈을 쓰는 바람에 또다시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 1. 한국경제의 원주소와 해결 방안

### (1) 한국경제의 부조리 현상<sup>1)</sup>

한국경제는 IMF<sup>2)</sup> 관리체제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면서도 외환 위기를 불러왔던 제반 문제점과 고질적인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IMF때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고질화되는 병리현상을 '부조리 현상'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위기는 재발될 수밖에 없다. 즉, 경제 주체들의 인식 전환과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 또는 개선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나락(奈落)할 것이라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부조리 현상(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경제의 부조리 현상은 어느 외국 잡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 국민은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소위 '과소비(過

---

1) 부조리 현상에 대해서 잘 표현한 작가는 프랑스 출신의 알베르 까뮈(A. Camus)이다. 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포스(Sisyphos)라는 인물을 주제로 《시지프의 신화(神話)》라는 소설을 썼다. 그는 이 소설에서 인간존재와 세계의 관계를 부조리(不條理)한 것으로 파악했다.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지프는 그 대가로 동그런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끊임없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다. 시지프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동그런 바위를 산 정상위로 올려놓지만, 그 바위는 자체의 무게 때문에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신(神)들이 시지프에게 이같은 형벌을 준 것은 무의하고 희망이 없는 노동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없고, 희망이 없는 형벌이 시지프에게는 오히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어 버린다. 시지프는 '희망이 없는 영겁(永劫)의 형벌'을 받지만 이같은 무의미한 노동도 그저 무익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달관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는 항상 인간의 편에서서 인간의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행복을 발견한 것이다. 만약 그가 인간에게 등을 돌리고 신에게 향했다면 언제든지 '부조리 현상'인 고통스러운 형벌을 면할 수 있지만 그는 끝내 신의 편에 서지 않았다.

2)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요약해 보면 첫째,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의 누증(累增)이 외채 증가로 이어져 이것이 위기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원화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대미(對美) 환율이 낮게 형성되어 수출을 어렵게 하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양상은 외환유동성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으며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정부의 장기적인 개방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외환시장 개입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넷째, OECD 가입과 맞물린 자본자유화 조치가 차관 도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외채 도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이었다는 것이다. 즉, 1996년의 외채(外債) 중 58%, 1997년은 42%가 단기자금이었다. 다섯째, 기업들이 투자확대를 위해 외채를 직접 차입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금융으로 조달하거나 저수익, 비효율이 예견된 부분에 대해 투자하여 부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일부 신용 대기업은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금융을 조달하여 무리한 시설 확장을 시도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급증이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慾)인 것이다. 과소비가 부조리 현상의 요인이라는 증거는 단기부채의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IMF 사태를 불러올 당시 가용 외환보유고는 39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해외여행 수지의 적자 폭과 호화사치소비재 수입은 급증하였다. 한마디로 과소비 등이 IMF 사태를 초래했던 주범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비용 저효율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부실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민의 정부도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흉내만 낸 개혁에만 매달리다 보니 근본적으로 부조리 현상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는 국민의 정부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IMF를 조기 졸업했음을 제일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면서 기업실적의 순익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과장됐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상반기 기업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 17조 원의 순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구조조정의 효과나 영업력의 강화 또는 경영혁신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환율(換率)과 저금리(低金利)의 덕을 본 것이다. 즉, 금리 하락과 환율 절상에 따른 착시효과로 인하여 사상 최대치의 순익을 본 것으로 과장된 분석이라는 것이다.<sup>3)</sup>

경부고속철도 건설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비용

---

3) 삼성경제연구소가 '사상 최고 기업실적, 그 허와 실'이란 자료(2002년 9월 23일) 보고서에서 2002년 상반기 기업실적을 외환위기 이전(1996년)의 환율, 금리 수준과 비교할 경우 사상 최대의 흑자가 아니라 오히려 18조 원의 적자가 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효율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는 충분한 기회를 하지 않고 무턱대고 일을 벌여놓고 사후에 수습하는 식의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투자를 한 것이다.

셋째,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정경유착(政經癒着)에 따른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홍업 씨와 홍걸 씨 등 형제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의 처벌을 받은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 씨가 국정을 농단하다가 IMF 사태 직전에 법의 단죄를 받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치인들이 이권에 개입하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의 사슬을 근절하지 못한 것도 부조리 현상이 재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경제 주체들의 '자기 몫 찾기 경쟁'이 부조리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서로 자신만의 이익을 얻으려다보니 다른 경제 주체와 갈등, 반목,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경제 주체들이 공존을 모색하기보다는 서로를 부정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극성스러운 과외산업'과 '향락산업의 번창' 등 제반 사회병리현상이 부조리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병리현상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만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병리현상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여섯째,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들이 서로 불신하는 부조리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즉 불신풜조를 없애고 신용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의 가장 기본이다. 특히 선진국들이 투명

한 경영을 생명시하는 것도 바로 불신풜조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일곱째, 사회구성원들이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극한적인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부조리 현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이분법적인 사고와 이념지향적인 행동 때문에 노사분규 등에서 극한적으로 대처하는 양상이 잇을 만하면 재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한적으로 대결하는 양태에서 부조리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덟째, 폐쇄지향적 사고방식이 한국경제의 부조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개인은 물론 기업체, 국가 경제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그러나 IMF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문제점이나 부조리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IMF의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외쳤지만 결국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왔던 원인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5년에 출범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하에서 세계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었는데도 우리 기업은 차입 자본, 외자(外債)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이 방만한 중복투자를 벌이는 바람에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즉,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호주 시드니로 날아가는 도중에 집권 후반기 과제로 세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입으로는 열심히 세계화<sup>4)</sup>를 부르짖으면서도 그에 대한 올바른고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여 개방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개방화를 추

진하는 바람에 환란(換亂)이 초래됐으며, 결국 국내 3위인 대우그룹  
마저 해체되는 등 30대 그룹의 절반 가량이 부도를 내거나 간판을 내  
렸다.

어떤 ‘문제점’이든지 반드시 해결책은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미물인 짐승도 밧에 걸려 죽을 뻔했다면 다시는 밧이 놓인  
곳을 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남의 허물도  
교훈으로 삼는, 소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병  
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못된 점을 되풀이하고 있  
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단합되었다’ 가도 ‘살  
만하면 국가경제 등은 나 몰라’ 라 외면해 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인해 ‘부조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  
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뭔가 심각한 중병  
(重病)에 걸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4) 서기원은 한국경제론(2001)에서 세계화의 조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불경기(1976~1989년)가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그들이 경제회생을 위해 전력투구한 결과에서 파생됐고 금융시장의 침체로 1982년에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Garm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 Act) 금융시장이 크게 변화되고 발전함으로써 ‘헤지 펀드(hedge fund)’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1983년도부터 전개된 국제무역협상이 뉴 라운드(new round)라는 이름으로, 다시 1986년부터는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유무역이 논의된 때부터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 UR협상은 1993년 말에 타결되었고 그 결과로 GATT체제가 WTO체제로 바뀌었다.

## (2) 개방화 시대와 한국경제 과제

한국경제는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기 이전에만 하더라도 고도성장을 통하여 세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정도로 압축성장을 구가했다. 특히 수출입 교역만 보더라도 세계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둔 정도로 우리나라는 ‘무역대국(貿易大國)’ 또는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개방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사상 초유의 IMF 환란을 초래했던 것이다.

한국경제가 외환 위기라는 ‘국난(國難)’에 처하게 됐던 결정적인 요인은 개방화였다. 문민정부가 대외개방을 단행하기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가 조성한 160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부실 또는 부도덕한 기업을 희생시키는 데 투입되었다. 이처럼 준비하지 않는 개방화의 대가는 천문학적인 수업료를 지불했던 것이다.

또한 막대한 국민의 혈세(血稅)가 부도난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던 부실은행을 회생시키는 데 투입되었다. 이와 함께 유동성 위기 때문에 부도는 났지만 수익성이 높았던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해외로 팔아넘겼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도 미국 등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살아남기 위해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 고질적인 외환부족으로 인한 경제과국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부조리 현상’을 타파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

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숫자놀음에 급급한 나머지 임시직(하급 직원)의 정원을 줄이는 등 형식적으로 끝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외채의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침공, 전 세계적으로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발생 등으로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져 있는데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미숙으로 여전히 부동산 투기 및 극한적인 노사분규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경제는 '국난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도 IMF를 초래한 원인을 분석, 치유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구태(舊態)를 답습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제반 영역에서 고질병을 완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경제체질을 개방적인 경제시스템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02년 7월 말 기준 단기외채 비율이 43.9%(550억 달러)였는데, 이 비율만 따져본다면 환란 당시(39.9%)의 상황을 능가하고 있다. IMF 사태를 불러왔던 단기외채의 급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년 미만의 짧은 단기외채를 잘못 관리할 경우 외환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이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동남아 국가 등에서 나타났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언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기 경험 국가의 위기재발 확률이 높은 만큼 언제든 한국도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5)</sup> 따라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단기외채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은 한국경제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시스템을 '개방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정신'이 개방화, 세계화, 국제화, 자유화 등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자유화와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의 세기'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정신적 지주인 글로벌리즘(globalism)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경제 질서 재편과 더불어 고도산업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단일경제권이 급속히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품은 물론 자본과 노동력이 국가 규제와 관세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소위 국경을 초월하는 '단일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방화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지역경제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경제통합체는 세계무역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우루과이 라운드(UR)를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구축되면서

---

5) 정운찬 서울대 총장(경제학)은 2002년 9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대와 스탠퍼드대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발표에서 "한국경제의 장래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으며 위기 경험 국가의 위기 재발 확률이 높은 만큼 언제든지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개선된 경제지표는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강해졌다고보다는 단기적인 재정확대와 근시안적인 경제정책에 따른 일시적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바른 경제정책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볼 때 향후 한국경제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가해지면 위기가 재발할 것임이 명백하다' 경고했다. 즉, 부동산 경기과열과 과소비 심리재발 등은 흥청거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것이다.



태동된 개념이다. 지역경제통합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가 쇠퇴하고 유럽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가 다극화 체제로 재편되는 틈바구니에서 출현했던 것이다. 즉,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 맞서 유럽은 '유럽은 하나'라는 지역주의를 내세워 지역경제통합체를 구축했던 것이다.

안 틴베르헨(J. Tinbergen)에 따르면 '경제통합이란 경제의 최적 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애를 제거하여 조정(coordination)과 통일(unification)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의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경제통합은 역내 가맹국 간에 구축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즉, 국제시장의 확대조치이다. 또 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규모의 경제)과 자유무역의 이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이상주의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지역공동협력체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이 관세 인하와 무역제한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재정·금융·통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을 도모하지만, 역외국가에는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경제통합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등 양면의 얼굴을 가지며 오히려 양쪽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지역경제통합이론은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이어주는 교량과 같은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도 앞으로 태동될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참여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은 오랫동안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또는 아시아 경제블록권을 대동시키는 데 필요한 충분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은 역사적(협력 교류)으로, 지리적(인접성)으로, 경제적(선진국과 중진국을 잇는 보완성)으로, 문화적(동질성)으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잇는 가교(架橋)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즉, 대륙문화와 해양문화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서해안 공단에 배치된 산업과 중국 동해 연안에 위치한 산업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한다면 '환(環)황해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본의 서해 연안과 한국의 동해안을 이어주는 신산업벨트를 구축한다면 '환(環)동해 경제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압록강과 두만강 등 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연해주를 연결하는 두만강 개발계획이 성사된다면 '환(環)발해 경제권'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이 국가 경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지적인 경제블록권(環황해·環동해·環발해 경제권 포함)을 하나로 묶는다면 자연스럽게 '동북아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동북아 경제권이 대동하면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개발도상국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자원·노동력이 풍부한 국가와 자본·기술이 발달한 국가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이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체들이 중국과 러시

아 등 동북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를 '한반도'에 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를 '동북아 진출 전진기지'로 만들 수 있도록 남북한을 연계하는 개방형 인프라 망(網)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가가 되려면 가장 먼저 이같은 폐쇄지향적인 의식을 타파해야 한다. 경제 주체의 의식을 개혁,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식을 개방화, 세계화, 자유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인프라를 '개방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식을 개방 마인드로 전환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식을 개방화하려면 무엇보다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도덕적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윤리경영(직업윤리)'의 정립이 중요하다. 또한 전국토를 개방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조(改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방 마인드'가 한국경제의 부조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한국경제의 해법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자본력이 빈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이룩했던 한국경제가 IMF 사태를 맞이했던 결정적인 원인은

개방화, 국제화, 세계화 등 글로벌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폐쇄지향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던 한국경제에 개방화·국제화로 상징되는 '개방경제 패러다임'의 거센 파고가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경상수지의 누적적자 때문에 심각한 경제침체에 직면했던 한국경제를 발전시키는 돌파구로 개방화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즉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개방화를 추진했으나 사회 전 구성원들이 개방화에 대비를 하지 못했다.

이제는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UR에 이어 GR(Green Round : 환경협상), BR(Blue Round : 노동과 무역협상), CR(Competition Round :경쟁정책협상), IR(Investment Round :투자협상), 인터넷라운드 등 다양한 국제간 협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ECD에 가입한 한국경제도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세계경제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지구촌 각국은 서로 상호의존성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범세계적으로 경제 교류가 자유로워지고 긴밀해지는, 소위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현상<sup>6)</sup>이 벌어지는 등 국제통상무역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현재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다.

---

6) 경제통합 또는 지역경제통합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단의 국가들이 그들간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의 시장 혹은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나 상태라고 정의될 수 있다.

첫째, 수출 증대를 통한 국가발전을 적극 모색하는 방법이다. 둘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무역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과 고용을 증대해 결국 경제회생과 실업해소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국민이 개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의식개혁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개방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① 수출 증대를 통한 국부창출

IMF 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부조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증대를 통한 국부(國富) 창출이 우선이다. 즉, 무역진흥을 통해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화'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개방화가 이 시대의 대세라고 한다면 발상을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개방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일수록 해외 개척을 통해 국가의 비전을 모색했던 사례에서 개방화 모델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세기 때 포르투갈이, 17세기 때 네덜란드가, 18~19세기 때 영국이 해외진출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 국운의 융성(隆盛)을 맞았던 것이다. 미국도 세계 초강대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군력 육성을 통한 해외 진출이 있었다. 예를 들면 남북전쟁이 끝난 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져 있었다. 1년 동안 은행 5백

여 개와 기업체 1만 5천여 개가 쓰러졌고 실업자만 4백만 명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미국 지성인들은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오늘날 미국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주역은 앨프리드 마한 해군소장이었다. 그는 미국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을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그의 주장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스트븐 G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다. 이 결과, 미국은 해외 진출 10여 년 만에 세계의 주요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미국이 1895년부터 1901년까지 6년간 올린 무역흑자는 무려 20억 달러. 이는 미국이 독립한 이래 1백 년 동안 기록한 흑자 총액보다 약 5배나 많은 수치였다.

수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왜냐하면 수출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관련 산업발전의 기회창출과 고용증대, 생산 및 소비의 균형화와 국제적 조정, 국제수지의 개선 등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높았다. 1991년 이후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의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5년도 총성장률 9.3%(추정치)의 47%에 해당하는 4.4%의 성장이 수출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과 국민경제(1996년 2월)

|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
| 경제성장률(a)      | 9.1%  | 5.1%  | 5.8%  | 8.4%  | 9.3%  |
| 수출에 의한 성장률(b) | 1.3%  | 0.7%  | 1.4%  | 2.5%  | 4.4%  |
| 기여율(b/a)      | 14.3% | 13.7% | 24.1% | 29.8% | 47.3% |

〈표 1-1〉 우리나라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 ②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1976년 외환위가 발생해 경제파탄에 빠졌던 영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자금을 용자받은 데 이어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경제를 회생시켰던 전례가 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후 한결같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가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2000년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비중은 선진국은 17.1%, 개도국은 30.9%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sup>7)</sup> 이처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고용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량 실업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외채(外債)와는 달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늘리는 한편 기술이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국제적인 신인도가 높아져 국가 경제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돈은 단기투기성의 핫머니 성격이 강해서 상황이 변하면 썰물처럼 빠질 수 있는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외환보유고를 채우는 효과뿐 아니라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증대시키고 선진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밖에 외국인이 투자한 공장은 GDP와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는 대략 시가총액의 36%를 차지한 것

---

7) 안충영, 세계일보 2003년 9월 14일 6면 칼럼 기고 참조

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관리체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시장 직접 투자도 부쩍 늘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면적은 1999년 661만 4천 평에서 2000년 840만 4천 평으로 늘었다가 2002년에는 806만 7천 평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IMF 관리체제 하에서 국내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놓은 오피스빌딩의 대부분이 외국계로 넘어갔다. 따라서 정부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든, 외국인 투자 기업이든 국제경쟁력 있는 공장을 세우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며 부가가치를 높여 우리 경제를 살찌우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 파급효과는 국내 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다. 즉,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을 막거나 실업률 하락 등을 가져온다.

그러나 행정규제(40%)와 노사관계 유연성 부족(23%),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 태도(22%) 때문에 외국인들이 직접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sup>8)</sup> 이는 국민의 정부 때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분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매물들에 대한 기업 인수·합병(M&A) 형태의 투자가 주류를 이룬 반면, 고용증대 및 국내 생산증대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는 FDI는 저조하였다. 최근에는 투자를 약속하는 신고액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실제 투자되는 도착액과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를 철회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

8)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인 500명을 상대로 외국인 투자 저해요인을 조사한 결과이다.



### ③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

개방화, 세계화, 국제화 등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개인은 물론 기업, 정부가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이나 '부조리 현상'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이 개방화, 세계화, 국제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의식과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 주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교육만이 개방화, 세계화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 기업, 정부가 합심해 경제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할 경우 도덕적 헤이(Moral Hazard)를 막을 수 있고 신용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교육은 개인은 물론 기업, 정부 등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3년에 들어서면서 신용불량자 수가 350만 명이 넘어서는 등 신용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있으며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도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린 경제시스템은 한낱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용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이다.

경제(상업)가 발달하려면 역사적으로 계승, 발전된 상도의(商道義)와 상인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 예를 들면 유대인과 중국 화상(華商), 일본인, 네덜란드인 등은 전통적인 상인정신과 상인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 실생활에서 철두철미하게 경제교육을 시킴으로써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의 독립 운동가이며 민족운동 지도자인 간디가 지은 《망국론》은 우리나라의 경제교육을 정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간디는 그의 저서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 7가지’를 제시했다. 즉 ‘원칙 없는 정치’와 ‘도덕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등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죄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죄악은 ‘도덕 없는 상업’이다. 왜냐하면 ‘도덕이 없는 상업’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간디는 역설적으로 상도의<sup>9)</sup>가 무너진 나라에서는 경제부흥도 공허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정부패가 판치는 사회에서는 경제부흥도 소용이 없다. 반대로 도덕과 윤리가 밑바탕이 된 상업이 있어야 나라가 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번창하려면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상업)교육이 있어야 한다.

21세기에도 경제와 도덕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윤리가 없는 경제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이윤과 효용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체제에 윤리의 개념마저 없다면 황금만능주의와 물신주의(物神主義)가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즉, 경제가 발전하려면 도덕이 뒷받침이 되어야

---

9) 상도의는 상인이 정직과 신용, 성실을 바탕으로 항상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하며 상업활동에 힘쓰는 것을 뜻한다. 이규태(李奎泰) 씨는 상도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선시대에 천대받았던 상인들이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동을 규제하는 규율을 정했다. 상인들이 그 도(道)에 어긋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고 곤장을 맞았다.”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덕 또는 윤리를 경시하고 ‘돈’에만 집착할 경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한다. 이처럼 도덕과 경제 또는 경제와 도덕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로 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경제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사회가 부패되어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윤리가 확립되어야만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도덕성이 뛰어난 문화적 토대를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부국강병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유럽이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관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트(Protestant) 정신에 바탕을 둔 서양인들의 정직·근면·검약된 생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것이다. 특히 막스 베버(1864~1920)는 근면·검약 정신이 부(富)를 저축케 하고, 축적된 재산과 부가 다시 기업 발전의 원동력인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파했다. 그는 서구인의 사상이 신의 영광을 빛내고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간은 자기 직업에 힘써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제(救濟)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10)</sup> 이처럼 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윤리가 결정적인 토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직업윤리를 정립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칼빈(1509~1564)은 낭비를 신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했다. 즉, ‘이득(利得)’을 보는 것을 천시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했던 것이다. 또 직업을 ‘천직(天職)’으로 여겼다. 이런 직업윤리 때문

---

10) 李氣乙(1988), 《민족문화와 한국적 경영학》, 법문사, pp.287~288.

에 직업은 전문화되고 전문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했던 것이다.

이 밖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탈무드’<sup>11)</sup>라는 유대인의 고유한 경제윤리(사상)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선종(禪宗)을 중심으로 한 불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상인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물질적인 자원보다 도덕성이 뛰어난 문화적 토대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로마가 멸망한 것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경제윤리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IMF 사태를 맞았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제 주체들의 ‘모럴 헤저드’ 때문이었다. 이처럼 도덕과 윤리가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은 돈을 벌 때나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부호라 하더라도 향락과 퇴폐, 타락에 빠진다면, 그의 재력은 허망하게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윤리가 없는 자본주의는 ‘천민(賤民) 자본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또 시장 경제체제에서 가치관이 없다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제 주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인 ‘도덕’과 ‘윤리’ 등 가치관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설파한

---

11) 탈무드(Talmud):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事象)에 대하여 구전·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

“윤리에 바탕을 둔 경제만이 청부(淸富)를 낳을 수 있다”는 명언을 음미해 봐야 할 대목이다.

개방화 시대인 21세기에 경제발전을 하려면 풍부한 지하자원과 창의력이 뛰어난 인적자원은 물론 자본력을 갖춰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의 윤리의식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와 종교, 교육 등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주체들이 철두철미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했을 때, 가정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가는 경영철학과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사업을 꾸려가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인으로 대접하지 말고 ‘사업의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근로자도 전문직업인으로서 확고한 직업윤리로 무장하여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자기 일처럼 중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소비의식도 물론 중요하다. 이처럼 경제 주체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생활중심의 ‘살아 있는 경제교육’이 아니라 책과 이론 중심의 ‘죽은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사례 중심적인 ‘체험’ 위주의 경제교육을 통해 전 국민적 합의(Consensus)와 경제 마인드를 공유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교육은 생활에서 얻어지는 체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 경제 주체인 청소년은 물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경제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은 청소년을 소비자만이 아닌 미래의 생산자로 키우는 일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가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과 부조리 현상을 근절하려면 무역을 통한 국부 창출과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 2. 한국무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1) 한국무역의 과거

한국무역의 시초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지 진한조(三國志 辰韓條)》에는 주호국(州胡國 : 현 제주도)과 왜(倭 : 일본) 등은 시장에서 물품교역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변한(弁韓)에서는 철이 대량으로 생산되어 멀리 예(濊), 왜국 등과 무역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대외무역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각축을 벌이던 삼국시대이다. 당시 대외무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었던 중국, 일본과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역사에서 기록된 한국무역 형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 ① 조공무역(공무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형태는 고조선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온 공무역(公貿易)이다. 이 공무역은 국가간에 토산물을 교환하는 조공무역 형태이다. 조공무역은 고대부터 전근대적인 국제관계가 소위 ‘조공·책봉관계(朝貢冊封關係)’라는 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적 국제질서란, 중화사상(中華思想)을 기축으로 한 질서를 의미한다. 주변 이민족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렸던 중국은 주변 국가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침 성격의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중국 왕조는 주변 이민족 국가들에 작위(爵位)를 주었다. 책봉을 받은 민족은 중국 왕조에 조공을 바쳤으며 중국 왕조는 종주국으로 이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주었다. 조공·책봉관계는 종주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공국은 실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외교수단이였다. 따라서 조공책봉관계는 종주국에 대한 절대적인 예속관계는 아니었다.

여기서 ‘책봉’의 실제적인 내용은 정치적 의미의 책봉이 아니라 ‘통상협정’을 뜻했다. 주변의 약소국가는 조공함으로써 주권을 인정받고 비단과 같은 중국의 고급 특산품과 서적·약재 등을 유리하게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공 체제가 성립되었다.<sup>12)</sup> 반면 일본 등과 대등한 관계에서 예물을 교환하고 국제친선을 도모하는 교린무역(交隣貿易) 형태의 공무역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공무역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한(漢)의 침략을 저지하

12) 황명수 외(1992), 《한국의 시장상업사: 소매상업의 발달의 통사적 연구》,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p.33.

기 위하여 한나라에 조공을 바쳤다. 고구려는 한에 말, 모피, 가죽, 금, 각공을 수출하고 의관, 비단, 칼, 수우를 답례품으로 받았다.<sup>13)</sup> 고구려는 5세기에는 연(燕)을 공격하여 그 세력을 꺾는 한편 위(魏)와 수교하여 공무역을 하게 되었다. 주요 수출품은 귀금속과 주옥, 인삼, 직물 등이며 수입품은 견직물, 의복, 무기, 서적 등이었다.

백제는 근초고왕 27년(372)에 진(晋)에 사신을 파견하여 공무역을 시작한 이후 송(宋), 양(梁), 당(唐) 등과 조공무역을 활발히 벌였으며 일본과도 수교·통상하였다. 백제는 중국에 옷감과 해산물을 수출하고 불경과 비단을 수입했으며, 일본과는 칼, 각공, 불상, 불경, 약재를 수출하고 말, 활, 견사, 포를 수입하였다.

신라도 법흥왕 8년(521)에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교한 이후 당나라와 직접교역을 하였다. 신라는 금, 은, 동, 인삼, 우황, 세포를 수출하고 의복, 금·은 세공품, 서적, 문방구를 수입했다.

고려는 중국의 송, 원과 조공무역을 했다. 고려는 송에 금, 은, 인삼, 잣, 우황, 나전칠기, 저포, 견직물, 자수, 향유, 말 등을 조공으로 바쳤고, 송은 고려에 답례품으로 비단, 자기, 보옥, 약재, 차, 서적, 금·은 세공품, 문방구 등을 보냈다. 또 동서양을 점령한 원은 고종 25년(1216) 고려를 침공하고 과중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하였는데, 금, 은, 포, 곡물, 인삼, 사냥용 매, 처녀를 조공으로 요구하였다.

사대교린(事大交鄰)의 외교정책을 시행했던 조선은 중국과의 조공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는 통상관계를 형성했다. 조선시대에도 조공무역 형식의 공무역과 사무역, 밀무역, 국경무역을 근간으로 대

---

13) 김남일, 홍의 공저(2002), 《국제무역사》, 수서원, p.281.



외무역이 이루어졌다. 특히 명나라와의 무역은 조공형식 공무역이 압도적이었다. 우선 사절 파견 횟수만 봐도 공무역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알 수 있다.

정조 2년(1400)에는 1년에 3회(정조사·동지사·성절사) 사신을 명나라에 파견하였으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파견하는 임시사절까지 합하면 연평균 파견횟수는 6회 이상이 되었다. 이때 조선은 직물, 화문석, 인삼, 모피, 종이, 금, 은, 말 등을 명에 바쳤으며, 명은 답례로 관복, 서적, 약재, 견직, 공예품, 자기, 금, 은, 말, 철 등을 주었다. 조선은 명에 이어 청나라와도 조공무역을 하였다.

## ② 민간무역(私貿易)

통일신라시대에는 공무역 외에 민간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라상인들은 당나라뿐만 아니라 남중국의 오(吳), 월(越), 민(閩)과도 무역하였다. 또 신라는 일본과도 사절의 왕래에 의한 공무역 외에 민간무역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의 사무역은 관허(官許) 개인무역이었다. 송나라와 무역할 때 진상과 회사 형식의 공무역이 끝나면 일반인을 상대로 사절(使節)의 소지품을 교환하도록 관에서 허가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었는데, 대송(對宋) 사무역의 경우는 통역관이 권세가의 부탁을 받거나 조정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기회로 이용되었다.<sup>14)</sup> 11월에 궁중에서 열렸던 팔관회(八關會) 때에는 송상(宋商)들이 참석하여 왕에게 예물을 바쳤고 남은 물품을 고려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사무역이 허용되었다. 이처럼 고려와 송나라의 사무역은 정식 사절이 객관(客館)에

서 국가의 감독하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송상이 왕에게 진헌하고 나머지를 국가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정부는 사절단에게 여비에 충당하도록 인삼 80근과 은 2천냥의 휴대를 허가하였는데, 이는 사무역을 묵인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무역은 공무역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청나라와의 사무역은 사절들의 숙소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외교사절의 숙소인 청나라의 회동관(會同館)과 한양의 태평관(太平館)에서 사무역이 허용됐다. 사무역은 권문세가의 청탁을 받은 통역관과 외교사절단에 끼어 있는 상인들이 주도했다.

조선시대에 일본과의 무역은 부산 왜관을 중심으로 사무역이 이루어졌다. 음력 매달 6회 열리는 왜관의 정기시(定期市)에는 조선상인과 일본상인들이 관원의 허가하에 상품을 거래하였다. 사무역의 주요 수출품은 인삼과 명주, 저포, 호랑이가죽, 백사 등이었고, 수입품은 구리, 은, 후추, 소목 등이었다.

### ③ 중계(중개)무역(中繼貿易)

민간무역의 중심에 장보고 청해진대사가 있었다. 장보고 대사는 828년 청해진을 개설,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해상질서를 평정하고 그 터전에서 신라, 당과 일본 등을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것이다. 즉, 해운산업을 육성하여 중계무역을 장악함으로써 무역을 통한 국부창출을 몸소 실천한 세계적인 거상(巨商)이며, '동아시아 해상무

---

14) 황명수 외(1992), 앞의 책 인용, p.50

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장본인'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무역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중개무역(仲介貿易)을 개척했던 것이다. 장보고 대사의 위대한 업적은 당과 신라 또는 신라와 일본 등을 잇는 쌍무적인 무역을 벌인 것이 아니라 당과 신라, 일본 등 3국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보고 대사를 '해상 무역왕'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그는 봉건 절대왕조체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개무역을 주도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국경을 넘어 무역을 하는 것은 국경을 침범하는 '염탐행위'로 취급됐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던 중개무역은 상인들이 청나라에 파견되는 외교사절단에 포함되어 중국에 가서 백사(白絲 : 비단실)를 수입한 다음 일본으로 재수출하는 형식이었다.

중개무역은 국제통상에서 고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이다. 세계적으로 오늘날의 중개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유대인과 네덜란드, 중국 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개무역을 하려면 우선 경제 주체들이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언어소통 문제와 각국의 통상정책, 무역관련 비즈니스 관행이 공유되는 등 경제 환경이 잘 갖추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보고 대사가 중개무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글로벌 시대의 '시대정신(時代精神)'과 일치하는 개방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에 이미 개방화, 국제화 등 대외 지향적 개방정신으로 무장, 민간무역(자유무역) 또는 중개무역을 수행했던 선각자(先覺者)였다. 우리는 그가 '중개무역'을 통해 국부를 창출했던 '국가발전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이 모델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꾀하려면 고부가가치산업인 중개무역을 통한 국가의 부를 창출해야 한다. 게다가 그가 건설한 해상무역 네트워크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앞으로 태동될 동북아경제권<sup>15)</sup>의 원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동북아 중심국가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장보고 대사가 벌였던 중개무역의 비결과 그의 상인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가 장보고 대사의 삶과 행적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한국경제가 현재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④ 밀무역(密貿易)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고 이루어진 무역 형태를 밀무역이라고 한다. 밀무역의 역사는 대외무역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태동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민간무역 형태를 띠고 있다. 통일신라 하대에 접어들면서 귀족층의 갈등과 지방 세력의 대두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적들에 의한 밀무역이 성행했다. 이에 장보고 대사가 신라로 귀국, 청해진을 설치했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적소탕을 통한 해상질서

---

15) 장보고 청해진 대사가 828년부터 841년(그의 사망시기는 사료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학계에서 정설로 통하는 시기를 잡음)까지 통일신라와 당, 일본을 바다로 잇는 3국간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오늘날 동북아 경제블록권의 원형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장보고 시대의 동북아 경제협력체제를 고대 동북아 경제블록권으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

의 확립이었다. 고려시대에도 대송무역(對宋貿易)의 경우 밀무역 형식으로도 이루어졌다. 당시 사무역은 관허(官許) 개인무역이고, 밀무역은 금수품(禁輸品)의 거래와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비관허 비밀무역이었다. 이처럼 밀무역은 허가가 금지된 물품이 거래되었다.

### ⑤ 국경무역

국경지역의 교통요충지에서 이루어지는 민간무역 형태를 국경무역이라고 한다. 조선 후기에는 정기적 국경무역 시장인 호시(互市)가 몇 개 형성되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은 중강개시와 중강후시가 있다. 압록강 연안에 위치한 중강(中江)은 임진왜란 중 군량과 말을 조달할 목적으로 명나라에 요청하여 호시가 개설되었는데, 8년 뒤에 폐지되었다. 그 후 인조 24년(1646)에는 청나라의 요청으로 매년 2월 15일과 8월 15일에 2회 열렸는데, 조선과 청나라 관원들의 감시 하에 무역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거래된 공무역품의 정액(定額)은 소 200마리, 보습 194개, 해삼 2,200근, 면포 373필, 마포 175필, 백지 8,400권, 장지 600권, 소금 300석, 해대(海帶) 1만 5,795근, 사기 그릇 330죽 등이었다. 이들 무역품은 차사원(差使員), 역관(譯官), 훈도(訓導) 등이 개시일(開市日) 전에 중강으로 호송하여 청나라의 관원과 가격을 협정한 다음 무역을 허락하였다.<sup>16)</sup> 따라서 중강개시에는 상인의 개인적 거래를 엄금했다. 그러나 점차 사무역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중강후시라 하였다. 이처럼 번영을 누리던 중강후시는 숙종 26년(1700)에 폐지되었지만 그 후 청나

16) 《通文官志》 卷3, 開市條 참조.

라 요동의 봉황성(鳳凰城) 부근에 있는 책문에서 매년 4~5회 정도 책문후시(冊門後市)가 열렸다.

이 밖에 조선 전기에는 두만강 유역 북관(北關)에서도 국경무역이 이루어졌고, 조선 후기에는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회령과 경원에 호시가 설치되었다. 북관개시는 당초에 공무역만 허가하였으나 점차 사무역이 공무역을 능가하게 되었고 참석 인원수도 증가하였다.

### ⑥ 일제 식민지시대 수탈무역

조선은 건국 이래 쇄국정책을 유지하였으나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는 것을 계기로 선진 각국과 통상조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무역이 개방되었다. 개항은 봉건적·제한적 공·사무역에서 형식상 자유무역체제로 전환되었다. 이같은 무역체제의 전환은 봉건주의적인 경제체제에서 자유주의적·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바뀐 것을 의미했고, 이는 무역의 질적·양적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개항기의 무역액은 1880년대 초 약 350만 엔 규모였으며, 그 중 수입이 약 50%, 수출이 약 50%를 차지하였다. 10년 뒤인 1897년도에는 무역액이 810만 엔 규모로 확대되어 10년 간에 약 2.2배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즉, 갑오개혁 이후인 1897년의 1년간 무역액은 약 1,100만 엔으로 급격히 증대되었고, 그 중 수입이 80%, 수출이 약 20%를 차지하게 되었다.<sup>17)</sup> 이처럼 자유무역체제는 국내 상업의 발달과 화폐유통의 촉진, 직업전환의 선택 등을 확대시켰고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17) 최태호(1991), 《近代韓國經濟史 研究序說 - 開港期の 韓國關稅制度와 民族經濟》, 〈국민대학교 출판부〉, p.233.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본에 합병되면서 식민지 국가로 전락, 정  
치적으로는 한국의 주권상실을 의미하며,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상품  
시장이고,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로서 무한한 수탈을 당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의 도발로 한반도는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  
본은 전시무역체제로 개편하였다. 즉, 전쟁수행을 위해 막대한 군수  
품의 수입과 수출 증진을 위하여 강력한 국가관리 무역체제를 구축  
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한국무역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공무역이나 민  
간무역, 밀무역, 식민지 무역 등은 무역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분  
류한 것이며 국경무역은 국경이 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역,  
밀무역, 민간무역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유념해야 할  
무역 형태는 바로 장보고 청해진대사가 수행했던 중개무역이다.

그는 청해진을 중심으로 당과 일본을 잇는 해상중개무역을 장악했  
던 것이다. 이처럼 중개무역은 최소한 3개국 이상이 거래되는 수출  
입 형태를 뜻한다. 이는 오늘날 다자간 무역 또는 자유무역의 효시이  
다. 다자간 무역이나 자유무역은 국제 통상질서와 산업 발전의 여부,  
노동 및 자본의 이동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이 성숙됐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장보고 대사의 중개무역은 오늘날의 다자간 무역에 비해 전  
혀 손색이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장보고의 무역은 한국무역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2) 한국무역의 현주소

8·15 광복 이후의 한국무역은 대(對)물자 교류와 통화 유통, 해외 여행 등을 금지하는 미군정령의 포고 이후 군정무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민간무역은 미군정의 대외무역시책과 경제적 혼란으로 보잘 것이 없었고 속칭 무허가 사무역이 성행하였다. 무허가 사무역의 대상국은 일본이었다. 대일무역은 주로 연안 어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교역은 그 후 미군정 당국의 관영무역으로 이루어졌다. 맥아더 사령부는 한일 양국의 물자부족을 상호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은 미곡과 식염을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는 석유, 철도용품, 지류 등을 수입했다. 미 점령군에 의한 관영무역은 점차 확대되어 1947년에는 연간 수출입액이 2억 달러에 이르렀고 교역품목도 다양해졌다. 밀무역의 대상국은 일본 외에도 중국대륙, 마카오, 홍콩 등으로 관영무역과 물가통제가 강화될수록 밀무역은 성행하였다. 특히 일본, 중국 등지에서 귀국하는 동포들이 가지고 온 이사 물자 중에서 유출된 외래품과 정크선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물품과 미국물자들이 시중에 유출되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무역질서나 통관업무가 매우 무질서하여 밀무역이 성행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이처럼 건국 초기에는 마카오, 홍콩, 일본 등지를 상대로 한 정크선 또는 국내외의 어선에 의한 밀수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그때까지 성행하던 밀수는 일시 자취를 감추었으나 남해안 지방에서는 여전히 소규모로 외항선 승무원에 의한 사치품 밀수가 계속되고 있었다. 게다가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대



내외적으로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등 정치·사회적 대변혁의 와중에서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인플레이션 등 경제적인 난국에 처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 원조정책의 축소 운영에 따라 외환사정이 악화되는 등 불리한 여건 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 군사 정부는 지금까지의 전쟁 복구와 안정 정책 위주에서 전환하여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기조로 하는 독자적인 종합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1950년대의 외국원조 의존형 경제체제로부터 탈피하여 근대화 와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sup>18)</sup> 특히 1962년부터 1966년까지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큰 성과를 보였다. 이같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수출은 연평균 40% 이상의 급신장을 보인 반면 수입은 예상보다는 높으나 17% 내외의 증가에 그쳐 무역외 수지의 호조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2,230만 달러,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개시연도에 5,48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말 현재 1,624억 7,100만 달러에 달했다. 즉, 1948~2002년까지 53년간에 무려 7,286배의 증가를 가져왔다. 수입은 1948년 2억 800만 달러에서 2002년 말 현재 1,521억 2,600만 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동안 731배로 늘어났다. 이처럼 한국무역은 정부의 외향적 발전전략(外向的) 발전전략(發展戰略)을 추구하면서 세계 12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무역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1960년대

18) 황명수 외(1992), 앞의 책 참조, p 301.

에는 연평균 8.5%의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1970년대에는 그 증가율이 9.5%로 확대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은 경제개발을 위해 이를 해외에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대외지불수단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수출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무엇보다도 무역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했던 수출지향적 발전전략 또는 외향적 발전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국민총생산의 증가율을 상회하였다는 것은 수출이 경제의 선도부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출이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수출증대는 상품의 생산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연관산업의 생산 활동을 직·간접으로 증대시킴으로써 고용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제반 산업의 생산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이들 연관산업의 생산 활동이 가계(家計)로부터 더 많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구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축적자본이 부족한데다 기술수준까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증대는 수입 효과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연평균 33%의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하여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고용과 소득이 증대되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수출이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수입을 통해 원자재,

기자재, 반제품 등의 공급을 확대해 국내 물량부족 현상을 보충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동시에 선진국 제품의 수입은 기술습득과 경영수단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이점을 가져왔다. 하지만 수출증가는 수입의 증대를 불러 일으켜 마침내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반하여 수입의 국민 경제적 역할은 국내수요의 소비충족과 물가안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 선진기술의 습득과 활용, 소비생활의 개선과 복지의 증진, 국내기업의 품질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한국무역이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수준이며 둘째,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이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대적 안정과 넷째, 산업구조적 요인, 다섯째, 해외수요의 증대와 안정, 그리고 여섯째로는 정책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관세정책과 수량규제정책, 수입자유화 및 수출지원정책을 과감하고도 시의적절하게 구사하였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앞에서 밝혔듯이 한국경제가 현재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역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과 기업, 정부가 개방화, 세계화 등으로 상징되고 있는 무한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도 외국으로부터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경제는 서비스, 자본, 상품의 국가

---

19) 서기원 외(2001), 앞의 책 참조, p.286.

간 이동이 갈수록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경 개념이 없어지는 등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글로벌리즘’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개방 마인드를 교육시켜야 한다. 즉, 세계경제 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대외지향적 사고방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개방할 게 아니라 이왕 개방하려면 철저히 준비한 뒤 확실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국무역을 대표하는 장보고 청해진대사로부터 무역진흥 정신과 성공 비결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장보고 대사만큼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의 글로벌 마인드를 터득한 선각자도 없기 때문이다. 장보고 대사는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에, 그것도 절대봉건체제하에서 민간교역 등은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화 마인드를 터득했으며, 이를 원용해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장보고 대사는 중개무역의 개척자이며 개방화·국제화의 비조(鼻祖)였다.

본 연구는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에 대한 모색이다. 즉, 사이버무역을 교육시키는 전당으로서 아카데미의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만 이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건학이념을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개방정신과 무역진흥을 통한 국가 발전전략 모색 등으로 삼자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관점에서 장보고 대사가 짧은 기간 동안 고대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성공 비결과 상인정신을 재평가·재조명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개방 마인드를 실천한 장보고 대사의 생애를 반추

(反芻)하고 오늘날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자유무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소위 '사이버 교육의 전당'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목표는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상인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향후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사이버무역상'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험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자는 데 있다. 특히 경제교육의 커리큘럼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맞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디지털 경제 및 e비즈니스 등의 이론은 물론 장보고의 상인정신과 한국 상인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행상과 보부상단의 상술 등을 포함하는 경제교육의 교재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을 통하여 디지털시대에 가장 알맞은 코드(code)인 사이버무역상 양성과 무역진흥정신을 고양하는 한편 경제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하여 국가발전모델을 모색하는 대안을 제시하자는 데 있다.



한국 상인정신의 원형,  
장보고 청해진 대사



2





중국 산둥성 적산에는 장보고 대사가 820년대 초반에 세운 법화원이 있다. 이 절에는 한국의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가 중심이 되어 세운 '장보고 대사 적산 법화원 기념비'와 일본이 세운 비석, 중국 정부의 비석 등이 세워져 있다.

이처럼 법화원에는 한·중·일 3국이 장보고 대사를 놓고 서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장보고 대사를 활용해서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속셈이고, 일본은 엔닌 스님이 당 나라를 기행하면서 잠시 머물렀던 법화원을 고대 일본의 대외활동을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민간차원에서 장보고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스며들어 있다. 이처럼 3국이 고대 동아시아의 영웅 장보고 대사를 이용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1.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그렇지만 우리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 같은 위인 중의 한 분이 바로 장보고(張保皋 ?~841) 청해진 대사이다.<sup>20)</sup> 왜냐하면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를 '반란자' 또는 '반란 기도자'로 폄하(貶下)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최근 국내외 학계의 평가)에서는 장보고를 '해상왕국의 건설자' 또는 '상업제국의 무역왕', '해왕(海王)', '해신(海神)'으로 추앙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우리 역사상 존경과 질시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각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천양지차(天壤之差)를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장보고에 대해 기술해 놓은, 소위 어떤 사료를 참조하였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앞서 장보고 대사를 평가할 만한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생년월일, 가문과 사망연대 등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기록이 없다. 다만 당시 천민으로 취급을 받는 해도인(海島人) 출신이라는 사실이 삼국사기 등에 기록됐을 뿐이다. 이와 함께 그의 가문과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역시 알 수가 없다. 이 밖에 그의 사망연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게다가 현존하는 역사서(歷史書)마다 그의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해 그에 대한 업적을 평가할 만한 관련 사료나 기록물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

20) 졸저, 《장보고를 알면 세계가 열린다》, 도서출판 한눈, 2000, p33.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장보고 대사에 대한 기록이 국내와 외국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장보고 대사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신라조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로 묘사하는 반면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그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적고 있다.

장보고 대사에 대한 국내 공식 기록물로는 고려시대 김부식(1075~1151)이 쓴 《삼국사기》(1145)가 처음이다. 이 역사서는 장보고가 죽은 뒤 약 300여 년이 지난 뒤 씌어졌다. 특히 이 역사서에 기록된 장보고의 해외활동에 대한 부분은 당나라 저명한 시인 두목(杜牧 : 803~852년)의 《번천문집(樊川文集)》(권6)을 참조하거나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연(1206~1289년)의 《삼국유사》도 있다. 이 밖에 장보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사료로는 동국통감, 동사강목 등이 있으나 이들 사료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원용했을 뿐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장보고 관련 대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보고와 정년은 청년시절 당나라로 건너가 당 조정에 반기를 든 이정기(李正己) 일족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다. 장보고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무령군 군중소장으로 진급했다. 그는 신라인들이 노예로 팔려 가는데 분노를 느껴 신라로 귀국해 828년 군사 1만 명을 기반으로 청해진을 설치했다. 장보고는 왕위계승 쟁탈전에 개입했으며 결국 군사를 동원, 신라하대 민애왕을 살해하고 김유정을 제 45대 신무왕으로 옹립했다. 장보고는 신무왕에게서 자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그러나 신무왕은 즉위 6개월 만에 죽고 그의 아들 김경웅이 제 46대 문성왕으로 왕위를 계승한 뒤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간택하려고 했으나 조정대신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이에 격분한 장보고가 모반을 기도했다가 부하인 염장에게 살해당했다. 신라조정은 장보고의 휘하에 있던 군민들을 벽골제(현 김제)로 강제 이주시키고 851년 청해진을 폐쇄했다.

삼국사기 등 국내 사료들은 장보고 대사가 자신의 딸을 왕비에 옹립하려는 저의 때문에 쿠데타를 기도하는 등 반역자로 묘사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일본 사료를 보면 장보고 대사는 통일신라시대인 828년 청해진을 설치하여 당과 신라, 일본 등 3국을 잇는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sup>21)</sup> 특히 장보고 대사의 상인정신과 철학은 그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일본 승려인 엔닌(圓仁)이 9년 동안 당나라를 방문하면서 기록한 기행문인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九法巡禮行己)》권4<sup>22)</sup>에 잘 나타나 있다. 엔닌의 일기에 의하면 장보고 대사가 당과 일본 조정은 물론 지방의 관리, 무역상들에게 더 알려져 있는 등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한마디로 장보고 대사는 통일신라시대의 인물로서 중국과 일본의 정사(正史)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위대(偉大)한 선각자였

21) 해상왕장보고연구회(2001), 《7~10세기 韓中日 交易研究文獻目錄·資料集》《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자료총서 1》, 서경문화사, p. 23.

22) 엔닌(794~864)은 일본 불교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천태종의 대성자(大成者)이다. 그는 시모쓰케국(下野國) 쓰가군(都賀郡)에서 태어나 9세때 불교에 입문했고 15세에 일본 천태종 개조 사이초(最澄)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42세인 835년에 견당 청익승(遣唐 請益僧)으로 선발되었으나 두 번의 실패 끝에 838년 6월 당나라에 들어가 오대산을 비롯한 불교의 성지를 순례하고 장안에서 일본에 없는 불교의 경전을 필사하며 지념(持念)의 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그는 당나라로 떠나는 838년 6월 13일부터 847년 12월 14일 일본에 귀국할 때까지 9년 6개월간의 행적을 기록한 순례행기(전권 4권)를 남겼던 것이다. 이 책은 후세에 이르러 약간 윤색된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고대 한일관계의 올바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일기 때문에 '장보고 청해진 대사가 신라·당·일본 3국간의 교역뿐 아니라 동서 세계간에 이루어진 해상무역을 장악, 해상무역 왕국을 건설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다.

다는 것이다. 이는 장보고 대사가 활동하던 당시 당과 일본에서 그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평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왜 그에 대한 기술이 왜곡되었을까?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69명의 고대 한국의 역사적 인물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장보고를 무장(武將)으로 선정했으면서도 신라왕실에 반기를 든 ‘반란자’로 평가했던 것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김부식도 장보고가 죽은 지 3백여 년이 지난 뒤에 기록하다 보니 승자의 입장만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는 1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 여기에서 실학자 안정복(安鼎福 1712~1791) 선생이 장보고 대사를 평가한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는 《동사강목》(권11)에서 “도적이 진해장군(鎭海將軍) 장보고를 죽였다”며 “장보고의 충의, 용력(勇力), 훈업(勳業)을 들어 주석지신(柱石之臣 : 주춧돌 같은 신하)이라고 평가하고 그를 살해할 때 김양(金陽)이 그를 구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고 밝혔다. 또 “그의 죽음은 반역했다는 이름만 있고 실제 죄상이 없는 모호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안정복 선생은 장보고의 암살에는 김양이 개입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장보고의 암살에 김양이 개입됐다는 추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sup>23)</sup>

---

23) 장보고와 김양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은 중앙정계의 정쟁에 휘말려들면서부터다. 흥덕왕 사후에 세 차례에 걸쳐 근친 왕족들 사이에 왕위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삼국사기》(권 10, 희강왕조)에는 정쟁이 벌어지게 된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즉 흥덕왕의 종제인 김균정(金均貞, 상대등)과 또 다른 종제(김헌정)의 아들인 김제룡(金梯隆)이 왕위계승을 놓고 파워게임을 벌였다. 김균정과 그의 아들 우징, 김양 일파와 왕의 조카 제룡을 지지하는 김명, 이흥, 배훤백 등이 맞서 정쟁이 격화됐다. 결국 김명 일파는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쳐 들어가 김균정을 살해하고 그의 아들 우징, 김양의 세력을 무찌른 뒤 김제룡을 희강왕에 앉혔

이처럼 우리 역사상 존경과 질시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선각자였던 장보고 대사는 골품제라는 신분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보고는 반란을 일으키다 죽은 게 아니라 김양의 술책에 의해 억울하게 암살당했음<sup>24)</sup>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반을 일으켰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채 1200여 년 동안 역사 속에 반역자로 낙인찍혀 매장돼 왔다는 사실이다. 만약 장보고 대사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암살을 당했다면 당연히 죽을 죄를 저질렀으니까 일말의 동정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정황과 역사적 배경을 분석해보건대 장보고 대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의혹이 짙다.

이런 맥락에서 장보고의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하게 된 성공 비결

---

다. 이때의 싸움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김우징은 장차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처자와 함께 황산 진구(물금 인근)에서 배를 타고 청해진으로 피해 장보고 대사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김양은 김우징이 청해진으로 피신한 이후 남원에서 군사를 일으켰으나 오합지졸인데다 무기와 군량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단 청해진으로 철수하여 전열을 정비했다는 사실이 <김양전>에 기록되어 있다. 김우징의 총복인 김양도 청해진 설치 이전의 완도를 관할하고 있던 무주도독(武州都督)을 역임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장보고와 인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흥덕왕 사후 두 번째 정쟁은 상대등 김명이 이홍과 공모하여 838년 군사를 일으키면서 발생했다. 회강왕은 이들이 자신의 측근을 차례로 살해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쿠데타로 김명은 44대 민애왕에 올랐다. 청해진에서 복수와 재기의 기회를 엿보던 김우징 일파는 김명의 쿠데타 소식을 전해 듣고 장보고에게 군사를 일으킬 것을 간청한 것으로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다. 장보고는 김우징의 간청에 따라 신라사상 여섯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처럼 장보고 대사와 김양은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옹립시키는데 일등공신이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신무왕이 이들에게 하사한 관계에서 알 수 있다. 신무왕은 김메이커인 장보고에게 감의군사(感義軍使)라는 칭호와 식읍(영지) 2천 호를 내려주었다. 식읍 2천 호는 별도의 영지를 준 것이 아니라 청해진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장보고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해준 것으로 믿어진다. 반면 김양은 신무왕 옹립 후 오늘날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서열 4위인 '소판검창부령'에 임명됐다. 김양에게 하사된 관등은 신라관제였으나 장보고에게 내려진 감의군사는 골품제(骨品制)상에 없는 관제였다. 천민 출신인 장보고 대사는 목숨을 바쳐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골품제라는 신분제에 편입되지 못했던 것이다.

신무왕의 옹립에 일등공신이었던 장보고와 김양은 출신 성분과 성장 배경이 완전히 대조되

등에 대해 재평가·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보고 대사가 당나라와 일본은 물론 오늘날의 중동지역까지 세력을 펼칠 수 있었던 해외 개척정신 등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 인물 가운데 중국 동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광개토대왕에 비견되는 장보고 대사의 상인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의 상인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즉, 장보고 대사를, 고대 동북아의 해상무역을 독점했던 ‘과거의 인물’로 치부하기보다는 개방화와 국제화를 주도하는 등 역사상 큰 공로를 남겼다는 의미에서 ‘새 천년을 맞는 우리 민족의 사표(師表)’로 삼아야 한다. 즉 ‘과거에 활동했던 불세출의 영웅’ 또는 ‘박제(剝製)

---

는 인물이었다. 김양은 왕족 혈통의 전통 관료였고, 장보고는 호걸형의 뱃사람이었다. 신분상으로 김양은 진골 출신인 반면 장보고는 섬 출신의 천민이었다. 그러나 신무왕의 서거 이후 일등공신이었던 두 사람은 문성왕의 차비(次妃) 자리를 놓고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보고의 권력 확대를 두려워했던 김양은 장보고가 반역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며 은밀히 염장을 시켜 장보고를 암살했다는 게 최근 사학계의 연구 결과이다. 그렇다면 김양이 장보고 대사를 암살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결정적 증거는 김양이 장보고의 암살로 덕을 본 것이다. 《삼국사기》(권11)에는 “문성왕 3년(841)에 박씨를 비(妃)로 삼고 동왕 4년 3월에는 이찬 김양의 딸을 또 비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김양의 딸이 장보고의 딸 대신 문성왕의 차비(次妃)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장보고의 암살에 김양이 연루됐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문성왕 8년(846) 봄에 암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서인 《속일본후기》(권 11 니메이 천황 9년)에서는 “보고(實高·實阜)는 지난해(841년) 11월중에 사거(死去)”라고 전하고 있다. 《속일본후기》(승하 9년·842) 정월의 기록에 따르면 염장의 부하 이소정 등 3명이 규슈 지쿠젠(築前)의 오쓰(大津)에 왔다. 다자이후(大宰府)가 사람을 보내어 내항한 이유를 알아보니 우두머리 이소정은 장보고가 죽고 부장 이창진의 반란도 염장에 의해 진압되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와 일본사료를 단순히 비교하면 5년의 시차가 생긴다. 그런데 장보고 대사가 죽자 김양의 딸이 문성왕의 차비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24) 앞서 밝혔지만 안정복 선생은 장보고 대사의 충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 뒤 도적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 김양(장보고와 함께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옹립하는데 일등공신)은 가만히 있었느냐고 탄식하고 있다.

된 선각자인 장보고'가 아니라 현재 살아 숨쉬고 미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민족의 운명을 향도하는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 2. 장보고의 상인정신

장보고 청해진 대사가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상인정신의 소유자인가. 왜냐하면 장보고 하면 먼저 군인의 이미지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그의 영정(影幀)도 갑옷을 입은 장군상이다. 따라서 무장의 이미지가 강한 장보고로부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상인정신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誤算)이다. 왜냐하면 장보고의 생애를 보면 군인보다 국제무역상, 국제 전략가로서의 삶이 훨씬 길었기 때문이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당나라에 건너간 805년(추정)부터 잡더라도 반당(反唐)세력의 대표였던 평로치청(平虜淄靑)의 이정기 절도사 일족을 토벌했던 819년까지 대략 15년간이었다. 반면 국제무역상으로서의 생애는 당나라의 신라소-신라방 등을 관할하는 신라조계(新羅租界) 제 1대사<sup>25)</sup> 등을 맡았던 820년부터 암살당했던 841년<sup>26)</sup>까지 약 22년간이었다. 따라서 군인으로서의 삶보다 국제적인 거상으로서의 생애가 약 7년 정도 길다.

그렇다면 신라조계 제1대사로 재직했을 때도 장보고 대사가 무역

25) 《구당서》(권 147 두목전)에 따르면 장보고는 재당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江淮 지역의淮南節度推官과 監察어사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6)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장보고가 문성왕 8년(846) 봄에 암살당했다고 기록된 반면 일본사료인 《속일본후기》(권 11)에서는 “寶高·寶阜는 지난해(841) 11월 중에 사거(死去)”라고 전하고 있다.



에 종사했다고 봐야 하는가. 물론이다. 왜냐하면 그가 맡았던 자치기구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무역을 관할하는 조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대사 밑에 신라어를 통역해 주는 역어(譯語 : 통역사)와 전사(專使: 일명 特使), 집꾼인 단두(團頭) 및 연락책이 있었으며 사무실과 전용선박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의 기능으로 신라역어(新羅譯語)를 두었다는 것은 국제무역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고, 집꾼과 전용선박을 보유한 것을 보면 육·해 운송수단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치행정조직에 통역사와 운송수단을 두고 있었던 것은 당시 당나라의 연안 무역 및 유통업에 종사했던 재당 신라인들의 활동에 편의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보고는 귀국하기 전에 국제무역에 정통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특히 국제정세를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신라 조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청해진을 설치했던 시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청해진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신라와 당나라, 일본은 소위 ‘조공·책공 관계’<sup>27)</sup>라는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으나 755년 ‘안사(安史)의 난’이 일어나면서 당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권이 약화되었다. 신라와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방호족의 반란과 가뭄 등 자연재해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었다. 이처럼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이 약화되면서 당나라와 신라, 일본 등 3국간 공무역이 급격히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7) 전춘원(1998), 《한민족이 동북아역사에 끼친 영향》, 〈집문당〉

전춘원은 그의 저서에서 조공·책공관계는 중주국이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공국은 실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외교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762년부터 819년까지 42년간 당과 신라간 조공형식의 공무역은 7회에 불과했다. 하지만 진평왕 43년(621)부터 경순왕 9년(935)까지 315년간 당에 대한 조공의 횟수는 150여 회나 있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와 일본도 779년에 국교를 단절했다가 804년 재개했으나 다시 809년에 외교관계를 끊었다. 이처럼 자국내 정치적 혼란 등으로 당나라와 신라, 일본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거의 단절되면서 공무역이 급격히 쇠퇴했다.

이런 혼란의 틈바구니를 이용한 세력이 한반도 서·남해안에서 활거했던 해적들이었다. 한마디로 당나라와 신라 조정이 지방호족의 반란을 진압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해적들은 바다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에 당나라는 문종 원년(827)에 해적과 번진의 발호로 문란해진 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각국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하는 역사상 최초의 '항해조례'를 채택했다.<sup>28)</sup> 이때가 청해진을 설치하기 바로 1년 전이다.

장보고는 신라조정의 강력한 후원으로 828년 4월에 청해진을 설치하는 한편 강력한 군사력을 토대로 해적들을 소탕한 뒤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중개무역을 독점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과 일본에 건너가 경제력을 장악한 한반도 도래인(渡來人 : 재일 신라인)을 연계, 거대한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장보고는 세계적인 거상이며 중개무역의 선구자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의 개척자였으며

---

28) 김성호에 따르면 산둥반도 청주(靑州)에 소재한 대당치청절도사에 새로 부임한 양번사 강지목이 '교통지사'를 신라, 발해, 일본 등에 통보했다. 이 칙령에는 항해 도중 태풍 등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 관련국들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다.

당나라와 일본, 신라를 잇는 해상무역을 제패한 해상왕이었다.

그렇다면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장보고 청해진 대사로부 터 우리 후손들이 전수를 받아야 할 상인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해상 무역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개방화정신’ 과 ‘개척정신’, ‘무역진흥정신’, ‘공동체정신’, ‘탁월한 정보마인드’, ‘박애정신’, ‘글로벌 리더십’ 등이다.

## (1) 개방화정신

장보고가 해상 무역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개방화(정신)였다. 이 개념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쉽게 활용하는 등 일반화되어 있지만 절대왕정 체제 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컨셉트(concept)였다. 절대왕정 체제에서의 국제무역은 황제 혹은 국왕을 정점으로 짜여진 율령체제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던 국가무역 통제정책이었다. 즉 국가간의 사적인 무역거래가 금지되고 국가가 교역을 통제하는 폐쇄적 교역시스템이었다. 예컨대 당 전기에 편찬된 법률서 《唐律疏議, 卷8 衛禁篇》의 규정에 의하면 “월경자(越境者)는 물론 화외인(化外人 : 귀화인)끼리의 교역도 금하고 위반자는 곤경을 치고 귀양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한마디로 국경연변(國境沿邊)에서 외국인과의 교역을 금지했으며, 외국인이 국경을 넘어와 교역하면 내국인이 국경을 넘어 교역한 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외국과의 교역은 한마디로 국경을 침탈하는 적대

행위로 여겼던 것이다.

장보고 대사는 이러한 악조건에서 중개무역을 단행했던 것이다. 즉 자신이 주도하는 민간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화를 희구했던 것이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자유무역을 구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 대사가 자유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장보고 대사가 개방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8세기 중엽부터 고대 동북아시아(당나라와 신라, 일본, 발해 포함)의 국제관계가 '새로운 틀'로 정립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새로운 틀이란 신라와 가까이 지냈던 당이 그동안 적대시해 온 발해와 유화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관계가 화해와 협력하는 분위기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즉 720~750년 동북아의 국제정세는 당과 신라가 발해를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반해 발해는 일본과 유대를 강화하는 등 2+2가 대립하는 구도였다. 그러나 762년 당과 발해가 유화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갈등관계가 해소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에는 점차 새로운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당과 신라는 물론 일본, 발해간 해상교역이 점차 활발했다.

둘째, 장보고 대사가 자유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지방 토호들이 독자적 세력을 형성, 지방분권체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당과 신라, 일본 등이 내전(內戰)에 휘말리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되었던 것은 8세기에 일어났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당은 '안사(安史)의 난(755~763)'이 일어나면서 율령에 의한 기존의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는 반당세력들이 정국을 주도했다. 신라도 8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반란이 빈번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780년에 이찬·김

지정의 난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혜공왕이 시해되는 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특히 치열한 왕위쟁탈전과 농민 착취, 잇따른 흉년으로 인한 민심 이반현상 등이 겹치면서 지방분권적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도 8세기 후반부터 비슷한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먼저 황실 외척세력인 후지와라(藤原)의 득세로 천황 친정체제가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에서도 장원이 출현하여 반전제(班田制)가 붕괴되어 갔고 장원제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 호족세력이 대두하면서 귀족들의 '섭정(攝政)정치'가 이어졌다. 이처럼 당과 신라, 일본 등 3국에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제력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결국 이들 국가간 공무역은 쇠퇴하는 한편, 사적 무역이 성행했다. 이러한 틈바구니를 적절하게 활용했던 인물이 바로 장보고 청해진 대사이다.

셋째, 장보고가 개방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고대 동북아시아의 종주국인 당나라가 중국의 역대 왕조 가운데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은 개방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의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예를 들면 당 조정은 자기 나라에 체류하는 이민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율령으로 제정하여 그들을 우대하였고, 주변국으로부터 사찰단과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했던 것이다. 이러한 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곳곳에는 '번방(蕃坊 : 외국인 거주지역)이 형성되었다.<sup>29)</sup> 특히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양세력인 남방지역<sup>30)</sup>을 점령한 당은 714년에 광주(廣州)에 항해 및 무역관리기구인 시박사(市舶司)<sup>31)</sup>를 설치했다. 이를 계기로 당은 개방화·국제화를 적극 추진했으며 외국인의 무역활동을 묵인했던 것이다.<sup>32)</sup> 다시 말하면 행정청

의 간섭이나 규제 없이 국적과 신분을 불문하고 수입액의 일정액을 관세로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당나라가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한 것은 황실의 수용품을 수입하는 원가를 값싸게 조달하는 한편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전혀 예상하지 않은 자유무역이 벌어졌던 것이다. 남방지역인 광주에는 매년 곤륜(베트남 남단)의 선박이 진물을 싣고 와서 중국과 교역을 벌였던 장면이 자주 목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외개방은 당나라의 연안해운을 장악하고 있던 재당 신라인들로 하여금 일본과의 국제교역에 뛰어들게 했던 동기를 제공했다.

넷째, 장보고 대사가 당·신라·일본 3국을 잇는 해상왕국을 건설

- 
- 29) 최광식 외(2002),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p.98.
- 30) 이처럼 중국 남북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수양제가 杭州灣과 양쯔강을 연결하는 장난운하와 양쯔강과 淮河를 연결하는 江淮운하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이 운하는 군사적으로나 연안·국제무역에 이용되었다. 40보(64m) 너비로 확장된 운하는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갑문과 언(堰: 둑)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선박 통행이 가능했다. 이에 강남지역에 거주하던 해민들은 이 운하를 통해 북방지역으로 왕래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의 해상무역은 남방지역인 廣州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땅도 광활할 뿐만 아니라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중국에 없는 각종 향료, 진주, 물소 뿔, 대모(玳瑁), 상아, 보석 등이 많이 생산되었으며, 외국계의 주요 물품들이 이곳을 통해 수입되었다.
- 31) 市舶司의 직무는 중국으로 조공하러 오는 外國航海使團을 접대하고 外國僑民의 관리를 책임지며 외국상선의 화물 검사와 등록을 주관했다. 또 廣州外港 부서(扶胥)진에 모시고 있는 南海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祭海 활동을 주관하며 외국상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책임을 지며 부분적인 외국 수입품을 조정에 바쳤다. 결론적으로 唐代 嶺南節度使가 겸임한 市舶使는 영남지구의 涉外정치와 경제무역 등 여러 일에 관한 일체의 권리권을 갖고 있었다.
- 32) 市舶司가 설치하기 이전의 국제교역체제는 '冊封'을 통해서 '朝貢'과 '廻賜'라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朝貢國(종주국)과 冊封國(속국)으로 나뉘지는 '朝貢冊封關係'라는 질서였다. 이 교역체제는 중국 왕조가 주변 이민족 국가들에 작위(爵位)를 주면 책봉 받은 국가들은 朝貢을 바치는 시스템이다. 朝貢國은 朝貢을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고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반면 宗主國은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朝貢國은 실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외교수단이었다. 이 체제하에서는 일반인의 私貿易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公貿易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공무역은 경제적 이권의 독점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외래 문물을 소비할 수요자와 생산자가 동북아 역내(域內) 국가 내에 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청해진이 설치되기 전에 이미 신라를 비롯해 당과 일본에는 고급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급 소비에 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역(민간차원의 국제 무역) 욕구가 움트고 있었던 데 반해 공무역은 고급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외래문물을 소비했던 당과 신라, 일본 등 3국내 지도층의 재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당의 경우 시박사 제도를 도입한 뒤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수도인 낙양성(洛陽城)에는 부상과 대상들이 수만 호(戶)였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서도 왕권과 연결된 진골귀족들은 각자 방대한 가산(家産 : 가내 수공업)과 가정(家政)기관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 특히 서·남해 연안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거나 섬을 갖고 있는 귀족들도 흔했을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이다.<sup>33)</sup> 일본도 개척·간척 등의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재벌 귀족이 출현했다. 이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당과 신라, 일본 3국내 귀족층들은 값이 비싸며 고급스런 외래문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해 대외개방을 벌였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즉 민간차원에서의 국제무역을 개척했었다는 사례는 무엇인가.

첫째, 신라와 일본 조정은 청해진이 개설된 뒤 얼마 가지 않아 동

---

33) 폐망한 백제의 영토를 전리품으로 나눠 가지는 신라의 귀족들이 많았다는 사례는 삼국사기에 나타나고 있다.

시에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사치품을 규제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흥덕왕은 청해진이 설치된 지 7년 만인 834년에 동남아 지역의 특산물인 ‘남해박래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교서를 내렸다. 《삼국사기》(권 33) 등에는 흥덕왕이 신라인들의 외래품 선호풍조를 질타하는 교서를 내린 내용 가운데 신분에 따른 의복과 수레, 그리고 그릇 사용의 규제조항이 나열되어 있다. 그 조항에는 호화 외래 사치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신라조정은 외래문물이 흥수처럼 유입되자 자국내 취약한 산업의 잠식과 과소비로 인한 사회체제 붕괴 등을 우려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일본 조정도 외래문물의 자국내 유입은 엄격히 통제했지만, 신라처럼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

이처럼 해외문물의 수입을 금지시켰던 직접적 원인은 민간무역의 성행에 따른 외래품의 대량 수입이었다. 신라와 일본에서 외래품을 선호하는 풍조가 절정에 달했던 830년대 초에는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기점으로 중국 황해연안과 신라, 그리고 일본의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마디로 신라와 일본에 유입된 호화 외래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장보고 선단에 의하여 유입되었을 것이며, 사치와 외래품 선호 풍조를 조장했던 장본인으로서 가장 유력시되는 인물은 장보고였다.<sup>34)</sup> 따라서 청해진의 설치 목적은 대외개방을 통한 무역 진흥이었으나 무분별한 외래품 유입으로 호화사치품 선호사상만 생겨나는 등 부작용 때문에 외래품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청해진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서·남해안에 할거하고

34) 권덕영(2002), 《신라시대 서·남해 海賊과 장보고의 해상활동-대외문물교류 연구》, 해양왕 장보고기념사업회, p17.



있던 해적과 군소 해상무역업자들을 자신의 휘하로 통합한 장보고는 황해와 남해를 무대로 활발한 해상국제무역을 전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가 청해진을 설치한 뒤 독자적으로 '대당매물사'의 이름으로 무역선단인 '교관선'을 당에 파견했으며, 일본에 회역사(廻易使)를 보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이끄는 신라 무역상단은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라비아 등 이슬람 상인과 연계하는 중개무역을 독점했던 것이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무역 전진기지로 삼고, 당나라 연수현과 일본의 하카다 등 해외 무역거지에 선박과 인원을 상주시키며 당과 신라,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제무역을 주도해 나갔다.<sup>35)</sup>

셋째, 장보고가 청해진을 근거로 해서 신라·당·일본 3국간의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다는 근거는 일본측의 사료에서 찾을 수 있다. 이성시(1999) 교수에 따르면 장보고가 청해진을 개설한 뒤 일본과의 민간무역이 성행했다는 기록이 일본 사료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833년에 승려 혜운(惠雲)이 남긴 《안상사가람연기자재장(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에는 신라 상인이 일본을 빈번하게 내왕하는 모습을 적고 있다. 또 《유취삼대격(類聚三代格)》권18에 보면 신라 상고(商賈)의 무리가 돛을 날리며 가져온 물건을 임의로 민간에서 교역하게 하고 끝나면 곧바로 물리치라는 기록도 있다.

그렇다면 장보고 대사는 어떻게 국제간 자유무역을 벌였을까? 이 점은 일본과 민간차원 국제무역을 개설한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장보고는 840년(承和 7년) 12월에 일본의 대외교역창구였던 다

---

35) 권덕영(2002), <장보고의 상업제국과 국제무역>, 《STRATEGY21 vol 4-2(통권 8호)》,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pp.41~45.

자이후(大宰府)에 사자(使者) 이충(李忠)을 보내 공물을 헌상(獻上)하면서 교역할 것을 요청했다. 다자이후는 이러한 요청을 받고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처리방안을 중앙의 태정관(太政官 : 율령관제에 의한 행정의 최고기관으로 8성 이하를 통할하여 정무를 처리했음)에게 물었다. 이에 관하여 태정관으로부터 다자이후에 내려진 지시에 의하면 '다른 나라의 신하인 인신(人臣)과 교역할 수 없다. 헌진물(獻進物)은 전례(前例)에 맞지 않으므로 이것을 돌려보내고, 이충 등을 그들 일행이 머물고 있는 진서(鎭西)로부터 추방할 것'을 명령했다.<sup>36)</sup> 이런 지시를 하고 두 달 후에 일본 조정은 다시 태정관을 통해 다자이후에 관부(官符)를 내려 신라 상인에 대한 무역 규정을 하달했다. 그 지시에 따르면 신라 상인이 도착하면 먼저 정부 수요에 맞는 것을 선별하여 중앙에 보내고 필요 없는 것은 다자이후가 점검해서 일반 평민들에게 교역을 허락하되, 공정가격에 거래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일본 조정이 809년에 신라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했으면서도 831년에 신라 상인에 대한 무역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장보고 무역상단이 일본과 민간교역을 벌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공식적으로 무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민간과의 교역은 다자이후의 감독 하에서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 조정이 장보고 대사와 민간교역을 허용한 것은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백성들의 생필품을 외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통치의 어려움이 따르자, 소위 제한된 범위에서의 민간무역을 허락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

36) 《續日本後紀》卷9, 承和 7年 12月條

있다.

넷째, 장보고 무역상단이 청해진을 근거지로 당과 일본간의 중개 무역을 했다는 사실은 일본 지방정부인 지쿠젠(筑前)의 훈야노 와타마로(文室綿麻呂) 태수와 장보고의 사자인 이충이 840년 12월에 직접 상거래를 했다는 사례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이때 훈야노미야 태수는 당나라의 화물을 구입하기 위해 이충과 접촉하여 명주를 선금으로 건넸다. 그런데 이충이 일본에서의 무역을 마치고 신라에 귀국해 보니, 장보고 대사가 반란을 일으켜 841년 11월에 암살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을 피해 일본으로 도주했던 것이다.

장보고의 반란을 평정한 염장(閻長)의 부하 이소정(李少貞) 등 40명은 이충을 추격, 842년 정월에 지쿠시(筑紫)·오쓰(大津)에 내항했다는 것이다. 이소정 일행은 일본 정부에 장보고 잔당을 체포하는데 협력할 것과 이충이 가져온 화물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문에 훈야노 와타마로가 당의 화물을 구입하려고 이충 일당에게 명주를 선불로 넘겨준 것과 도망쳐 온 이충의 화물을 압류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일본 조정은 계약 불이행의 대가로 이충의 화물을 압류한 훈야노 와타마로의 편을 들지 않고 폭력적 탈취행위로 단정하여 탈취물의 반송을 명했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훈야노 와타마로가 장보고에게 당나라의 화물을 사기 위하여 상품대금을 먼저 지급(先拂)했다는 사실이다. 청해진에 있는 장보고에게 당나라의 화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다는 것은 장보고가 당과 일본간의 중개무역을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장보고가 신라에 있으면서 직접 신라·당·일본 3국간 무역을 수행했음을 밝혀주고 있다. 왜냐하면 당나라와 일

본에 청해진과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가진 상인들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sup>37)</sup> 특히 일본의 무역거점인 다자이후를 관할하는 지방관이 선뜻 거금의 선금(先金)을 내고 당나라의 화물을 사줄 것을 의뢰했다는 점은 당·신라·일본 3국간의 유기적인 무역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장보고 대사는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에 이미 '개방화 모델'을 제시, 실천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상인정신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개방화, 자유화, 세계화, 국제화 등 자유무역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보고 대사는 민간무역의 창시자이며 중개무역의 선구자이고 자유무역을 실천한 선각자였다.<sup>38)</sup> 따라서 그의 상인정신을 재조명·재평가한다면 한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개척(도전)정신

장보고 대사의 또 다른 상인정신은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가는 소위 '개척정신'이다.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시대적 환경은 그야말로 대혼란기에 처해 있었다. 그가 태어났던 8세기 말은 왕위를 둘러싼 진골귀족들의 항쟁이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김헌창(金憲昌)과 범문

---

37) 민성규·최재수(2001), <해상왕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무역의 의의>,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학술총서》, P31.

38) 장보고의 시대정신과 업적 평가는 필자가 쓴 저서 《장보고를 알면 세계가 열린다》의 제 3장인 '장보고, 한민족의 사표로 삼아야 하는 이유 12가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梵文)의 반란은 지방 세력의 대두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더욱이 신라왕조의 사회구조를 지탱했던 율령제와 골품제가 이완되면서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유이민(流移民) 현상이 만연되었던 것이다. 특히 가뭄과 홍수, 병충해 등 자연재해와 왕위를 둘러싼 정쟁으로 인한 반란, 전염병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하층 농민들의 몰락현상이 빚어졌던 것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8~9세기 신라에는 조해(旱害) 23회, 지진 28회, 대풍(大風) 7회, 대설(大雪) 10회 등 온갖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굶주림을 참다못해 자식을 팔든지 버리거나 혹은 살길을 찾아 개별적으로 혹은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떠돌아다녔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신변보호는 물론 타인의 물품을 탈취하기 위하여 무장(武裝)하고 전국 곳곳에서 횡행하였으며, 점차 산적과 해적으로 커졌다. 특히 지방민들 중 일부는 상인이나 뱃사공으로 신분을 바꾸어 해외로 진출하는 자도 많았다.

장보고 대사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청년시절에 자발적으로 당나라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대 모험이었다. 특히 이국(異國)에서 외국인 용병 출신인 장보고는 하급 군인에서 고급 장교로 승진하는 등 입신양명(立身揚名)했다는 사실은 그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보고의 도전정신이 뛰어났음을 입증하는 사례는 무령군을 떠나 신라 자치조직의 지도자로 변신했을 때이다.

장보고는 고급 무관직에서 타의(他意)<sup>39</sup>로 퇴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변

실했던 것이다. 그는 군대조직과는 전혀 다른 분야인 국제무역에 뛰어들어 잘 적응했던 것이다. 반면 장보고 대사와 의형제를 맺어 함께 당에 건너가 무령군에 들어갔던 정년(鄭年)은 군(軍)에서 나온 이후 기아에 허덕이는 등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장보고 대사와 정년이 '아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장보고의 모험(개척)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군에서 제대하여 재당 신라인의 자치기구인 신라방과 신라소를 관할하는 행정조직의 책임자로 변신했다. 그리고 군인의 삶과는 180도로 완전히 다른 해상무역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가 824년 해외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에 갔다 왔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그가 해상무역을 장악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그는 재당신라인 자치조직의 지도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신라로 귀국하는 결단을 단행했던 것이다. 즉 이국에서의 성공적인 삶(기득권)을 포기하고 누구 하나 그를 환영하지 않는 신라 본국으로 돌아온 것도 그의 모험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장보고의 귀국 후의 행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개척정신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흥덕왕을 설득하여 청해진을 설치하는데 앞장섰다. 또 서·남해안에서 활약하던 해적을 소탕하고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중개무역을 독점하는 과정은 그의 개척정신이 얼마나 투철했는지도 보여준다.

---

39) 장보고가 '장래'가 보장된 군인의 길을 떠난 것은 당나라의 減軍정책에 따라 軍門에 머물고 싶어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 <舊唐書>(권 16) 穆宗 長慶 원년 2월 을유조에 의하면 당 조정에서는 모든 번진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군사들의 수효를 8%씩 줄여나가기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김우징을 도와 신무왕으로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보고 대사가 왕의 외척(外戚)으로 거론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는 도전(개척)정신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장보고 대사가 천민에서 킹메이커(kingmaker)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개척정신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3) 무역진흥정신

장보고가 국제적인 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진흥정신’ 때문이었다. 그는 무역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꾀했던 것이다. 그가 신라로 귀국하여 청해진<sup>40)</sup>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도, 중앙조정 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도 무역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는 데에 흥덕왕을 비롯한 중앙정부 고위관리의 뒷바라지를 끌어낼

---

40) 장보고 대사가 신라로 귀국해 설치한 ‘청해진’의 지명이 ‘淸海’ 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해의 명칭이 고유지명이 아니라 중국식 명명법으로 ‘바다를 맑게 한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청해는 ‘바다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는 바다를 혼탁하게 만든 해적을 일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淸海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다. 당의 대표적인 시인 두목(杜牧)의 변천문집에 보면 “청해는 신라 해로의 요충(淸海 新羅海路之要)”이라고 평했다. 이처럼 청해는 海路의 요충지라는 것이다. 청해로 불렸던 완도는 서쪽이 황해이고 동남쪽이 남해로 적산항로의 중간 지점이다. 특히 땅끝 마을인 土末 앞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해로가 바로 유명한 횡간수로(橫干水路)이다. 즉 오늘날의 완도는 당과 일본을 잇는 중간 경유지에 해당된다. 특히 청해진은 남중국항로(동중국 사단항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다 안전항해를 할 수 있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해진은 당시 범선 항로의 요충지였으며, 중국 산둥반도와 신라의 王都인 경주의 해상관문인 울산 포항만으로 이어지는 남방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길목에 자리잡는 등 지리적 요충지에 접해 있었기 때문이다.

수 있었던 것은 서·남해안에 활거하고 있던 해적을 소탕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홍덕왕의 입장에서 보면 해적을 소탕하고 지방호족들을 견제하는 것이 당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던 신라 조정으로서 해적을 소탕하는 것이 황실의 권위와 중앙정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증대 및 정치적 혼란을 일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홍덕왕이 청해진에 1만 명의 군인이 주둔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한 것은 단순히 해적소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장보고 대사가 무엇보다도 국제무역을 통한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제무역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장보고 대사가 새 교역 루트인 남중국 항로를 개척한 것이다. 이는 그가 무역진흥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과 비전을 갖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장보고가 당나라와 일본, 신라 등 3국간 해상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가장 돋보이는 업적이었다. 15세기 포르투갈은 동방 물자를 수입하고 서양 물자를 수출하는 등 동서를 잇는 국제무역을 독점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새로운 교역 루트를 개척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동을 장악하고 있던 사라센 제국의 방해받지 않고 동서양을 잇는 무역을 하기 위해 포르투갈 왕의 후원을 얻은 바스코 다 가마는 1498년 가브리엘호 등 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의 희망봉 루트를 걸쳐 인도양을 건너는 등 새로운 교역 루트를 개척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보고 대사는 기존의 교역 루트<sup>41)</sup>인 황해 횡단해로 대신 당나라의 남방지역과 신라의 남해안을 경유, 일본으로 직접 이어지는 남중국 항로를 새로 개척함으로써 해상 질서를 장악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당과 일본, 신라를 잇는 3국간 해상무역을 독점했던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의 남중국 항로 개척은 바스코 다 가마의 새로운 해상 루트를 발견한 역사적 업적에 비견될 만하다.

그러면 장보고가 기존의 황해 횡단로 대신 왜 남중국 항로를 개척했을까? 문제의 해답은 기존의 교역 루트가 쇠퇴한 이유를 알면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황해 횡단로가 급격히 쇠퇴한 이유는 첫째, 당조정에 반기를 들었던 반당세력의 거두인 이정기(李正己, 732~781) 평로치청(平虜淄靑) 절도사 일파<sup>42)</sup>가 764년부터 55년간 당과 신라의 교역로인 경주~조령~남양만~황해~산동반도로~당의 수도인 장안(長安)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장악하면서 기존 교역로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던 것이다.

---

41) 고대 동아시아의 무역은 당과 신라, 신라와 일본, 발해와 일본, 당과 일본 등 쌍무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따라서 교역 루트도 당~신라, 신라~일본, 당~일본, 발해~일본 등 兩國을 잇는 항로뿐이었다. 예를 들면 당과 신라를 잇는 교역 루트는 경주에서 협준한 추풍령을 넘어 남양만까지 육로로 이동한 뒤 황해를 가로질러 산동반도에 이르는 '황해 횡단로'였다. 이 루트는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발달했으나 8세기 말부터 9세기 중엽까지 급격히 쇠퇴했다.

42) 이정기 절도사와 그의 아들 남, 손자 사고 및 그의 이복 아우인 사도가 절도사직을 상속받아 평로치청을 통치했던 것이다. 이들 일족은 신라에서 당으로 가는 해로의 최대 관문인 췌주를 포함, 지금의 산동반도 일원 15개 주를 장악하고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반독립된 소왕국을 건설했다. 羅唐연합군에 의해 멸망된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었던 이정기 일족은 8세기 중엽부터 약 반세기 동안 당과 신라의 외교 및 교역을 방해했다. 즉 이정기 절도사 일족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북조 발해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당과 신라 조정에 큰 위협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반대로 발해는 평로치청이 당과 싸울때 필요한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등 든든한 후원세력이었던 것이다.

둘째, 당과 신라가 연합하여 733년 발해와 전쟁을 벌이면서 대동강 이남인 패강(溟江)지역이 군사적 갈등지역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존 통상로의 활용가치가 급속히 떨어졌다.

셋째, 대량화물의 출현이다. 즉 도자기 등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교역품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려면 우선 기존 항로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다. 예를 들면 경주에서 당은 포 또는 예성강까지 7백 리의 험한 육로를 도보로 걸어야 하는데다 바닷길을 건너야 한다는 불편한 점 때문에 대량화물을 운반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교역로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신라와 일본을 잇는 기존의 교역 루트는 경주 근처인 울산만과 포항만에서 일본 북규슈<sup>43)</sup>를 잇는 항로였지만 9세기 초 양국간의 외교가 단절되면서 폐쇄됐던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에 군진을 설립할 당시에는 신라와 당, 신라와 일본간의 교역이 단절되어 있었다.

장보고 대사는 기존 무역로의 쇠퇴와 국제통상관계를 고려, 청해진을 개설하고 남중국 항로를 개척하여 소위 중개무역을 수행하는 절묘한 포석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청해진 개설과 남중국 항로 개척은 신라와 당, 일본 등 3국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핵심(core)이었다. 특히 남중국 항로는 당시 동·서양을 잇는 주항로인 '남해항로(南海路)'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해로'의 종착지는 당나라 동해안이었는데, 장보고 대사가 남중국 항로를 개척함으로써 이 항로가 신라를 거쳐 일본까지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

---

43) 하카다港이 가장 가까운 북규슈는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열도라는 이유로 오래 전부터 백제인과 신라인은 물론 심지어 고구려인 등 渡來人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이었다.

이다. 즉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상인들이 당시 세계적인 항로였던 남해로를 통해서 서역 등에서 수집된 각종 진기한 물건을 당나라까지 운반했고, 그러면 당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던 재당 신라인들과 장보고 대사가 이끄는 신라무역상단들이 이들 진기한 물건을 남중국 항로를 통해 신라와 일본까지 자연스럽게 유통시켰던 것이다. 이는 신라 및 일본에서 출토된 유적유물에서 서역의 진기한 물건이 발견된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청해진이 군사 및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무역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 청해진은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남중국 항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라와 당, 일본 3국을 잇는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보고 대사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상권을 장악하고 남중국 항로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전략적 요충지에 청해진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를 활용하여 당과 신라, 일본 등 3국을 잇는 새로운 교역 루트를 개척, 해상중개무역의 기틀을 닦았던 것이다. 이처럼 장보고 대사는 청해진을 당·신라·일본을 잇는 무역전진기지로 활용함으로써 해상중개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군진(軍津)인 청해진을 군사적 목적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무역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꾀했던 것이다.

#### (4) 공동체정신

장보고 대사가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성공비결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재외 신라인과 신라 본국인들을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묶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재외 신라인들'을 하나로 묶어, '신라인 경제공동체', '신라인 신앙공동체' 등을 구축할 정도로 '공동체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구축한 민족·신앙·경제 공동체는 신라 본국인과 당, 일본 등 주변국에 흩어져 있던 재외 신라인을 하나로 묶었던 것으로 오늘날 '한민족경제공동체'의 원형이다. 이는 가장 충성도가 높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는 경제·신앙 공동체 등을 어떻게 구축했을까?

##### ① 신라인 경제공동체

9세기에 당나라와 신라, 신라와 일본 등 쌍무적인 공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밀무역과 사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장본인이 바로 신라 본국상인과 재외 신라인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사회와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온 주역들이었다. 그러면 장보고 대사가 이끌던 신라인 무역상단의 기반이 되었던 상인세력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던 것인가?

첫째, 한반도 서남지역의 거점인 청해진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 본국 상인(무역상)들이다. 둘째, 당나라 산둥반도 및 경항(京杭) 대운하 일대에 일찍부터 진출해 있던 고구려·백제 유망민과 신라 등에서 당나라로 건너왔던 유학생 중에서 고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당에

정착한 재당 신라상인들이었다. 셋째, 일본에 유입된 한반도 도래인들이 주축이 된 재일 신라상인들이었다.

장보고 대사가 당과 신라, 일본 등 고대 동북아 3국을 잇는 해상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비결도 신라 본국 무역상과 재당 신라상인, 재일 신라상인들을 하나로 묶는 막강한 네트워크를 활용, 경제공동체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장보고 대사가 신라 본국에 살고 있는 신라상인과 당,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던 재외 신라인들을 ‘무역’ 또는 ‘경제’ 라는 매개로 묶는 ‘신라인 경제공동체’ 를 구축하지 못했다면 해상중개무역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보고 대사가 무역에 종사한 기간은 청해진을 설치한 828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841) 14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신수단도 발달하지 않는 당시 상황에서 그 짧은 기간에 3국을 잇는 중개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재외 신라인 무역상들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다.

장보고 대사가 신라인 경제공동체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후세에 알린 역사적 인물은 일본의 승려 엔닌(圓仁)이었다. 그가 남긴 여행기인 《입당구법순례행기》권4에는 장보고 대사가 신라인 경제공동체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엔닌 스님은 이 글에서 당나라에서 맹활약하고 있던 재당 신라인과 장보고가 이끄는 신라 무역상단의 활약상을 자세히 증언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엔닌 스님은 재당 신라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당나라에서 구법(求法)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의 구법여행은 당 조정으로부터 거부되었으나, 장보고의 영향권에 있던 재당 신라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를 도와준 신라인 통역관들은 김정남, 박정장 외에 초주 유신언(劉信言), 도현(道玄), 법화원의 장영 등이었다. 김정

남은 엔닌 등 일본 조공사 일행이 귀국할 때 9척의 신라선과 바닷길에 익숙한 신라 선원 60명의 고용을 주선했다. 유신언은 엔닌 일행의 불법체류를 도와줬으며, 도현은 엔닌이 귀국할 때 함께 승선했던 것이다. 이 밖에 엔닌은 당나라를 여행하던 중 신라인을 집단적으로 목격한 장면을 기록한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엔닌은 양주에서 신라인 암해자(暗海者 : 1등 항해사) 60명을 고용했다. 또 839년 4월 5일 해주 동해현(東海縣) 연안에서 엔닌 일행은 밀주에서 생산된 술을 초주와 양주로 반출하는 재탄선(載炭船)에 승선했던 신라 선원 10명을 만났다. 이 밖에 839년 4월 20일에는 유산포를 지나면서 많은 신라인들의 거룻배를 목도하고 이들로부터 그들 일행의 소식과 신라에서 일어났던 정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이와 함께 엔닌 일행은 적산 법화원에 머물면서 839년 11월 16일부터 840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 법회에 매일 40여 명 안팎의 신라인 신도들이 참석했음을 목격했다. 특히 법회의 마지막 2일간은 250명과 200명이 각각 참석했다는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엔닌이 당나라를 여행하면서 만난 무역상 가운데 신라인 무역상은 모두 14명.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주에서 장지신, 신어정, 신일랑(神一郎), 춘대랑(春大郎), 이린덕 사랑(李隣德四郎), 도중이랑(陶中二郎) 6명을, 소주에서 김진(金珍), 김자백(金子白), 흠량휘(欽良暉) 3명을, 양주에서 왕청, 왕정(王靖) 2명과 유산포에서 최운십랑 등을 만난 것으로 기록했다. 엔닌은 당나라에서 맹활약하던, 장보고가 이끄는 신라 무역상단의 활약상과 청해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던 현장을 생생히 목격했던 것이다

엔닌이 재당 신라인들을 주로 만났던 곳은 양주, 초주, 연수향, 적산포, 유산포, 숙성촌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한결같이 교통과 교역

의 요충지인데다 신라인 집단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소 등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재당 신라인들의 활동 근거지였다. 엔닌의 기행문에 등장한 재당 신라인의 직업은 각양각색인 것으로 묘사됐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궁중 및 지방관리에서 군인, 승려, 농민, 선주, 선원, 해상무역업자, 유학생, 상인, 조선 및 선박수리업자, 통역 및 외교관, 신라조계(新羅租界)의 임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당 신라인들이 해운업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엔닌이 귀국길에 오를 때 김진의 선박 등 신라선 9척을 일시에 용선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재당 신라인들은 당나라 사람들이 미천한 직업이라고 하여 기피하던 뱃사람 등 선박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무역과 운수업, 상업 등에 종사한 재당 신라인들은 장보고 시대(828~841)에 때맞춰 신라·당·일본 3국간 해상무역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재당 신라인들은 당나라의 생필품이었던 소금과 목재를 생산, 운반하는 등 오늘날의 물류망에 해당되는 보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연안해운을 장악했던 것이다.

장보고 대사는 신라에 귀국할 때까지 약 8년간 당나라 산둥반도 연안과 회수(淮水), 대운하변 그리고 양쯔강 하류, 남중국해 연안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재당 신라인들을 규합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신라방이나 신라소 등에 근무하는 관리들은 물론 재당 신라인 무역상들도 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도 당나라처럼 신라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하모야국(下毛野國), 무장국(武藏國), 미농국(美濃國), 근강국(近江國), 준하국(駿河國) 등에 신라인들이 끊임없이 이주하여 신라인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신라인 사회

의 명칭은 신라군(新羅郡) 또는 도전군(度田郡) 등으로 불렸다. 이러한 신라인 사회를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세력은 신라인 승려나 관리들이었다. 특히 일본열도로 건너간 한반도 도래인들은 야마토 조정이 추진하는 대규모 간개 수리공사와 수전(水田)개척사업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사료인 《고사기》에는 한반도로부터 건너온 농업이민들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고 연못을 파 ‘구다라치(百濟池)’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농민뿐 아니라 수많은 수공업 기술을 소유한 장인들이 고대 일본 조정의 요청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이들은 점차 일본 경제권을 장악했다. 따라서 장보고 대사가 짧은 기간에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재외 신라인들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그는 신라 본국 무역상단을 주축으로 당나라의 연안 해운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생필품 수송 등을 주도했던 재당 신라인과 고대 일본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재일 신라인들을 하나로 묶어 ‘신라인 경제공동체’를 구축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신라 본국인과 재외 신라인들을 연결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장보고 대사가 ‘신라인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신라인의 ‘민족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당과 일본의 비즈니스 풍습은 물론 현지어(現地語)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등 국제적 마인드와 식견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 ② 신라인 신앙공동체

장보고 대사가 재외 신라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불교(특히 禪宗)를 중심으로 신앙공동체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국땅에 살고 있던 재외 신라인을 신앙·정신적으로 통일시켰던 것이다. 장보고가 신라인 신앙공동체를 구축했다는 근거는 중국 산둥반도 적산(赤山)에 재당 신라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법화원(法花院)을 세웠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법화원의 창건 목적은 재당 신라인의 교화처(教化處)와 신라인 무역선단의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기도처(祈禱處)이며 교민사회 결속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었다.<sup>44)</sup> 그렇다면 장보고는 왜 적산에 법화원을 설립하였을까?

적산 법화원이 있는 산둥반도는 한반도와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구려 및 백제유민 또는 신라에서 건너온 유학생 등 재당 신라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재당 신라인들은 등주(登州)를 중심으로, 초주(楚州), 양주(楊州) 등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상호간에 네트워크를 이루어 활동했으며, 적산 법화원을 창건하여 종교적 귀의처로 삼았다. 또한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 그 부근인 장좌리에 법화사를 세웠다.<sup>45)</sup>

장보고가 당나라 산둥반도와 신라 청해진에 불교 사찰을 각각 창건하였다는 것은 그가 불교를 중심으로 신앙공동체를 구축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불교의 분파인 선종의 최대 후원자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재외 한인들이 교회나 사찰 등지에서

44) 권덕영(2001), 《在唐 新羅人 社會와 赤山 法花院》,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p.62.

45) 김문경(2000), 《張保臯와 法華三寺》, 제2회 법화사지 학술대회 발표 요지문, pp.21~22.

모여 친교를 나누듯이 재당 신라인들도 법화원을 중심으로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는 집단적 신앙생활을 통하여 신라인의 동질성을 유지했다. 엔닌의 일기에 따르면 법화원의 강경(講經) 및 승경의식은 신라 풍속과 신라어로 거행됐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절간은 수제비와 떡 등을 마련하고 8월 15일의 가절(佳節)<sup>46)</sup>을 경축했다. 이 가절은 다른 나라에는 아직 없다. 신라국에만 유독 이 명절이 있다. 노승들이 이야기하기를 신라가 옛날 발해와 싸웠을 때 이날 싸움에 이겼으므로 이에 명절로 삼아 음악과 즐거운 춤을 추었으며, 이 행사는 오래도록 이어져 그치지 않았다. 많은 음식을 마련하고 가무와 음악을 연주하며 밤낮으로 이어져 사흘 만에야 끝이 났다. 지금 이 산원에서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오늘 가절의 축하 행사를 마련하였다. 그 발해는 신라에 토벌되어 겨우 1천 명이 북쪽으로 도망쳐갔다. 그 뒤 돌아와서 옛날대로 나라를 세웠다. 지금 발해국이라 부르는 나라가 바로 그것이다. —엔닌 일기(840년 8월 15일)

이처럼 엔닌이 목격한 장면은 재당 신라인들이 수제비와 떡을 마련하는 등 신라의 풍습인 한가위를 기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외 신라인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고유 언어인 신라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의 조선족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후예들이 한글과 한민족 고유의 풍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엔닌은 법화원에 머물면서 많은 신라인들을 만났다. 그가

---

46) 8월 15일의 가절(八月十五日之節): 신라에서 중추의 명절을 즐기는 행사는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三國史記 권 1), 특히 이 중추절을 중히 여겨왔다는 것이다.

만난 법화원의 신라인 승려는 30여 명이었고, 11월 6일부터 정월 15일까지 2개월간이나 계속되는 겨울철 법회에 합숙한 재당 신라인 신도는 남녀 합쳐 무려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신앙공동체'는 그가 막강한 해상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제공했던 것이다. 장보고 대사가 재당 및 재일 신라인을 정신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선종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공동체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양인들이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를 활용,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장보고 대사도 선종의 경제윤리를 토대로 해상무역왕국을 성공적으로 건설했던 것이다.

그는 신앙을 토대로 신라 본국은 물론 당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재당 및 재일 신라인의 상인들을 확고하게 묶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장보고의 상인정신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신앙심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재당 신라인들이 수백 년 동안 이국에 살면서 한족(漢族)에 동화되지 않고 신라 고유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신라인 신앙공동체가 구축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보고는 재외 신라인을 신라 본국인과 연계, 신라인 신앙공동체를 구축, 민족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선각자였던 것이다.

## (5) 탁월한 정보 마인드

장보고 대사는 당과 일본 등 당시 국제사회의 정치 및 경제 관련 고급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마

다. 이처럼 탁월한 정보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국가를 초월하여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장보고 대사는 교통 및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다른 나라의 고급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을까. 당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군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단적으로 말한다면 장보고 대사가 짧은 기간 동안 당과 일본, 신라 등 3국을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즉 정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sup>47)</sup>는 정보의 비경합성, 상호작용성, 상호연결성으로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앤닌 스님의 기행문에는 당시 정보 네트워크의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소상하게 적혀 있다. 예를 들면 앤닌은 839년 4월 20일 당나라에서 우연히 신라정변 소식을 듣게 된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7) 장용호(2001), '인터넷신문의 공급체계', 《한국언론학술논총》, 커뮤니케이션북스. 장용호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특징은 상호작용(interaction)과 상호연결(interconnection)을 기반으로 정적 피드백(Positive feedback) 장치가 가동되는 역동적인 진화체계를 가지고, 수확체증의 원리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공급되는 상품은 한마디로 지식과 정보로 요약될 수 있는데, 정보(지식) 상품의 생산은 비선형적으로 투입과 산출이 이루어진다. 투입과 산출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높은 생산성이 발생하고 이것은 수확체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수확체증이 발생하는 원천은 디지털기술과 정보의 비경합성(다른 사람의 소비로 인해 나의 소비가 지장을 받거나 소비에서 얻는 효용이 감소되지 않는 성질)과 상호작용성(一對一 뿐만 아니라 一對多 혹은 多對多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정적인 피드백 효과와 규모의 효과가 발생), 상호연결성(네트워크 상호연결성의 장점은 공급자와 소비자 양자가 동시에 발생)에 있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에 신라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왔다. 곧 듣건대 “장보고는 신라 왕자와 마음을 같이하여 신라국을 벌하고 곧 그 왕자를 신라국 왕자로 삼았다”고 하였다. 남풍이 점점 세차게 불어 조수의 역류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배는 동서로 왔다갔다하여 흔들림이 아주 심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엔닌의 일기에는 ‘이날 아침에 작은 배를 타고 온 신라인으로부터 장보고의 도움으로 김우징(신무왕)이 등극하였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엔닌이 들었던 이 고급 정보는 약 2개월 전에 이역만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 정보가 당나라를 여행하던 이국인 나그네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장보고 대사는 김우징의 간청에 따라 838년 12월에 군사를 일으켰다. 그의 군사들은 거사 2개월 만인 839년 1월 19일 대구에서 민애왕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무찌르는 등 대승을 거두었으며, 결국 민애왕을 살해하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옹립했다. 따라서 신무왕의 등극 시점은 839년 1월 19일 이후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삼국사기 등 그 어느 사료에도 신무왕이 등극한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추론해 보건대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등극한 날은 빨라야 3월 초 이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대승을 거뒀다 하더라도 잔당세력을 소탕하고 왕도 경주에 진입, 민애왕의 추종세력을 평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렸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왕위 쿠데타 성공 소식이 이웃나라 당에 전달된 시일은 대략 1개월 보름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의 교통 및 통신 상황을 감안한다면 상상할

수 없이 빠른 편이다.

엔닌은 또 그의 일기(839년 4월 24일)에서 당의 천자가 신라왕자에게 왕위책봉을 위해 신라로 보낼 사신을 정하고 배를 마련하였으며 경비도 하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책봉사를 신라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sup>48)</sup>

그런 소식을 들은 지 2개월(839년 6월 28일) 뒤에 적산 법화원에서 책봉사로 파견될 치청(淄靑)절도사 관아의 오(吳) 병마사를 만났다는 사실도 그의 일기에 남겼다. 엔닌은 그것도 이국에서 상대국 조정에서 논의된 책봉사 파견 계획은 물론 제3국인 신라에서 일어난 정권교체 등 국제정세와 관련된 최고급 정보를 접했던 것이다. 이처럼 엔닌이 당에 머문 약 9년 6개월 동안 들었던 정보는 이외에도 수 없이 많다. 예를 들면 838년 6월 23일 오후 6시에 엔닌 일행이 승선한 견당선 4척이 우쿠시마(有救嶋)를 출발, 당나라 항해길에 올랐으나 항해 중에 뿔뿔히 흩어졌다. 엔닌 일행이 탑승한 선박 제1호는 838년 7월 2일 오후 2시쯤 양주 해릉현(海陵縣) 백조진(白潮鎭) 상전항(桑田港) 동량풍촌에 도착했다. 하루 뒤 그는 제4호가 북해(北海)<sup>49)</sup>에 표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10일 제2호도 해주에 도착했다고 들었다. 이처럼 엔닌은 견당선으로 함께 출발했던 배들이 각각 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비록 시차(時差)는 두었지만 정확하게 듣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정보가 체계적으

---

48) 羅·당 양국의 사료에는 839년 6월 28일 전후로 당나라 책봉사가 신라에 파견됐다는 것과 관련된 기록은 없다. 하지만 당조정이 새로이 즉위한 신무왕의 등극을 축하하기 위해 5개월 사이에 책봉사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신속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49) 북해(北海) : 당내에는 행정구역상 청주(靑州) 북해현을 가리켰다. 그러나 여기서는 산둥반도 북쪽의 바다를 가리킨다.

로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오늘날처럼 현대적인 통신시설이나 우편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당시 상황에서 이처럼 체계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할 뿐이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등 막강한 정보망을 구축했는가. 오늘날처럼 신문이나 방송, 통신 등의 매체가 없는 당시 상황에서 당나라와 일본, 신라인 등 이국인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을까. 결론적으로 당나라는 물론 신라와 일본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통일되어 있었다. 엔닌의 일기에 등장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는 필담(筆談)과 통역(通譯), 공문서(公文書), 서신(書信)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필담이다. 이같은 필담 커뮤니케이션은 엔닌의 일기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838년 7월 24일, 30일, 8월 9일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오전 8시경 양주 해릉현에서 마중 나올 배가 오지 않았으므로 대사 1명, 판관 2명, 녹사 1명, 지승선사 1명, 사생 1명 그리고 시수와 수수 등 총 30여 명이 물길을 따라 현가로 향해 떠났다. 그때 개원사(開元寺)의 스님 원욱(元昱)이 와서 필담으로 정을 나누었다. 그는 문장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나라 풍습을 물어보았으며 아울러 토산품을 선물하였더니 그 스님도 복숭아 등을 선물했다.

—엔닌 일기 838년 7월 14일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통역이었다. ‘견당사’<sup>50)</sup>를 파견할

때 역어(譯語: 통역관)들을 동행시켰던 점은 그만큼 통역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조정은 견당사를 승선시킨 선박에는 대체로 신라인출신 통역관을 동승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엔닌과 함께 '견당선(遣唐船)'에 동승한 통역관으로는 제1호에 김정남(金正南), 제2호에 박정장(朴正長), 제4호에 도현(道玄) 등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신라인 출신 통역관이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엔닌이 당에 머물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김정남과 도현 등 신라인 출신 통역관의 덕분이었다. 이들 통역관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구매와 수리, 관공서와의 교섭, 재당 신라인들과의 연계, 학문승들의 수학·순례·귀국 등 오늘날 여행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공문서였다. 당과 신라, 일본 등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다보니 관공서와 의사소통을 할 때는 공문서를 주고 받았다.

청익승이 태주에 갈 수 있도록 '견당사 본부'에 요청한 문서는 견당사의 이름으로 공문서를 만들어 양주부에 보냈다. 묘견보살(妙見菩薩)과 사천왕상(四天王像)을 그리기 위하여 화사(畫師)를 개원사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규칙을 들어 외국인이 함부로 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삼강 등도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하도록 했다.

50) 연희식(延喜式) 권 30에 따르면 견당사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사(大使), 부사(副使), 판관(判官), 준판관(准判官), 녹사(錄事·비서관), 준녹사(准錄事), 지승선사(知乘船事·선박 관리인), 사생(史生·기록관), 역어(譯語·통역관), 수수(水手·선원), 의사(醫師), 음양사(陰陽師·길흉을 점치는 사람), 화사(畫師), 음성장(音聲長·樂人的長), 겸종(謙從·종자), 청익생(請益生), 유학생(留學生), 청익승(請益僧), 유학승(留學僧) 등이다.



그래서 견당대사의 공문서를 상공에게 보냈으나 아직 화답이 없다.

—엔닌 일기 838년 8월 3일

이른 아침에 상공에게서 화답이 왔다. ~(중략)~ 점심을 마친 뒤에 양주부로부터 복문서(覆文書)를 가지고 왔다. 그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환학승(還學僧) 엔닌과 사미(沙彌) 이쇼(惟正)·이교(惟曉)<sup>51</sup>, 선원 데이유만(丁雄滿)은 태주 국청사에 가서 스승을 찾아보기를 청하고 있는데 그것은 태주에 머물고자 함인가, 아니면 다시 태주에서 돌아와 장안(長安)으로 가려는 것인가?

—엔닌 일기 838년 8월 4일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은 서신이다. 즉 인편을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서신이다. 엔닌은 수만리 떨어진 일본으로부터 체재비 등을 전달받았는데, 이 또한 서신을 활용했던 것이다. 특히 엔닌이 840년 2월 17일에 최압아(崔暈)와 장보고 대사에게 보낸 서신은 당시 신라와 일본, 당나라 등 3국간 교류가 얼마나 활발했으며, 장보고 대사의 명성이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압아에게 보내기 위하여 편지 한 통을 남겨놓고 적산원의 사람에게 전달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편지 한 통을 써서 같이 장보고 대사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1) 이쇼(惟正)·이교(惟曉): 엔닌과 함께 입당 구법순례를 한 충직한 제자.

해가 바뀌어 마음으로 경하드립니다. 소식을 자주 듣지 못하였습  
 니다. 하오니 부지런히 쌓이는 정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봄기운은  
 이미 따사롭습니다. 앞드려 생각하옵건대 압아의 존재 강유하시리  
 라 믿습니다. 엔닌은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뵈  
 업지는 못합니다만 우리러 사모하는 마음 날로 깊어 삼가 칭송함을  
 무엇에 비유하겠습니까. 엔닌은 적산법화원에 머물면서 다행히 해  
 를 지냈습니다. 많은 스님들의 인덕에 두텁게 입고 특히 여정을 위  
 로받았습니다. 이 또한 압아의 자비로움의 덕분입니다. 보호해줌이  
 넓고 크오니 어찌 이 미천한 몸으로 능히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깊  
 이 심골에 새겨두웁니다. 다만 송구스러운 마음 더할 뿐입니다. 지  
 난번 압아의 호의를 입어 신춘에는 연수(漣水)에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엔닌 귀국의) 배를 내어 회수 남쪽(淮南)까지 보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 (중략) ~ 구법을 마친 뒤 적산으로 돌아와서 청해  
 진(淸海鎭)으로부터 방향으로 바꾸어 본국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장대사를 뵈고 상세하게 사정을 아뢰어주시옵  
 시오. 엔닌이 돌아오는 것은 대략 내년 가을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청  
 해진으로 사람과 배가 왕래함이 있으면 청하옵건대 고명을 내려 특  
 별히 찾아보도록 해주십시오. 소송들의 귀향은 오로지 압아의 크나  
 큰 도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러보는 마음 한이 없습니다. 삼가 글  
 율을 올려 말씀에 대신합니다. 갖추지 못하옵고 삼가 올립니다. 개  
 성 5년2월 17일 일본국 구법승 전등법사위 엔닌 올림. 최압아 전자  
 (傳者)

이 밖에도 엔닌의 일기에는 지쿠젠 태수가 장보고 대사에게 보내

는 서신 한 통을 기탁 받았으나 배가 좌초되면서 그 서찰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이는 지쿠젠 태수 오노 스에쓰구(小野末嗣)가 장보고 대사에 서찰을 보낼 정도로 두 사람은 구면(舊面)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엔닌은 최압아 등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띄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장보고 대사는 필담과 통역, 공문서, 서신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적·물적교류(화물수송)를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막강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이다. 정보 네트워크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고 있던 재외 신라인을 하나로 묶어서 해상무역을 독점하는 등 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엔닌의 일기를 보면 장보고 대사가 당과 신라, 일본 등 3국의 해상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정세에 대한 뛰어난 분석력과 예측력, 정보 수집력을 기반으로 막강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 (6) 박애정신

장보고 대사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정의의 신봉자였다. 그는 산동반도 등 당나라 동부 연안을 순회할 때 신라인 동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일처럼 공분(公憤)할 정도로 박애주의자였다. 그 자신이 어려운 삶을 살아왔기에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가 신라로 귀국, 청해진에 군진을 설치한 배경에는 노략질을 통해 신라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조공선 등을 공

격해 진상품을 약탈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해적을 소탕, 신라 하층민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해적을 근절해야만 더 이상 신라인 동족이 노예로 팔려 가는 악연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장보고 대사의 박애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은 자신과 함께 당나라에 건너갔으나 군문(軍門)에 나와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헤어졌던 친구 정년(鄭年)이 청해진까지 찾아와 몸을 의탁했을 때 모르는 척하지 않고 오히려 환대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쿠데타를 일으킬 때 정년에게 군사 5천여 명을 주며 선봉장으로 삼았다. 특히 장보고의 박애정신이 돋보이는 장면은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거짓 투항하는 염장을 환대하는 모습이다.

《신라본기》에 따르면 “염장이 나라를 배반한 양으로 청해진에 투항하니 장보고는 장사를 사랑하는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그를 맞아 상객으로 삼고 함께 술을 마시며 환락을 다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객은 사위”를 의미한다. 장보고는 자신을 암살하려는 흉악한 마음을 먹고 온 염장을 사위 맞듯이 마음을 놓고 회포를 풀었던 것이다.

이 밖에 흥덕왕 사후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한 김우징이 청해진에 몸을 의탁해왔을 때 박절하게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환대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보고 대사는 어려움에 처한 동족과 자신을 암살하려는 저의를 품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박애정신의 소유자였다.

## (7) 글로벌 리더십

장보고 대사는 장래가 촉망되는 고급장교의 길을 버리고<sup>52)</sup> 신라로 귀국해 청해진을 설치하는 한편 당과 일본을 잇는 해상중개무역을 독점하는 국제무역상으로 변신해 성공했다. 그러면 그가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지향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가 글로벌 리더십이 출중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장보고가 당나라에 건너가 고급장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소위 용병(傭兵)들로 편성된 군대에서 부하를 다스리는 뛰어난 리더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무술이 뛰어난 장보고가 서주 무령군 절도사 이원(811~818년)의 재임 기간 중 아졸(衙卒 : 하급군인)로 들어간 뒤 평로치청을 토벌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세운 공로 때문에 군졸 1천여 명을 거느리는 군중소장으로 고속 승진했던 것이다. 용맹과 무술이 뛰어난데다 결단력과 전략적 판단력은 물론 리더십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국땅에서 고급장교로 승진할 수 있었다.

둘째, 그는 신라어는 물론 당나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등 당시 주변 국가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했던 것이다. 글로벌 리

---

52) 장보고가 무령군에서 떠난 것은 그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減軍정책 때문이었다. 王杰(1997년)는 한국항해학회 세미나 발표 자료에서 장보고가 무령군에서 밀려난 것은 822년 王智興이 무령군 절도사로 집권하고 나서 그의 좁은 도량과 유능한 사람을 질투하는 성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더십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모국어 외에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장보고 대사가 재당 신라인 자치기구의 수장(首長)으로 취임한 것은 그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구당서》권147 〈두목전〉에 따르면 장보고는 재당 신라인들이 집중되었던 강회(江淮)지역의 회남절도추관(淮南節度推官)과 감찰어사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자치기구인 신라소·신라방을 관할하는 행정조직의 책임자로 일했던 것이다. 그는 단순히 오늘날 교민단체의 수장뿐 아니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책임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자치기구의 행정조직을 보면 대사 밑에 신라 역어 외에 전사(專使)와 짐꾼인 단두(團頭) 및 연락책은 물론 사무실과 전용선박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민단체의 기능 가운데 신라역어를 두었다는 것은 국제무역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짐꾼과 전용선박을 보유한 것을 보면 육·해 운송수단을 확보, 독자적인 물류망을 구축했던 것이다.

이 밖에 장보고 대사가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엔닌의 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일기에 따르면 장보고 대사가 824년에 일본에 갔었으며 환속승(還俗僧)인 이신혜(李信惠)와 함께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가 중국 본토에만 머물지 않고 배를 타고 일본을 한 차례 다녀왔다는 것은 해상무역이나 그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라소 또는 신라방 등 신라인 자치기구의 수장을 역임한 장보고 대사는 최소한 국제무역에 대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장보고 대사가 글로벌 리더십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 3. CEO 장보고 대사로부터 배우는 교훈

앞에서 밝혔듯이 장보고 대사는 한마디로 말해 불세출의 영웅이었으며 세계적인 거상이었다. 그는 자유무역의 선구자이며 세계 최초 민간무역의 창시자였다는 것이다. 그는 또 천민에서 진해장군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선각자였으며, 당나라에 노예로 팔려 가는 동족(同族)의 아픔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박애주의자였다. 이와 함께 국위를 선양한 탁월한 민간 외교관이었으며, 투철한 상인정신과 철학을 함양한 세계경영의 선구자였다. 이 밖에 신라와 당,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의 선구자였으며, 새로운 항로를 열어 해상 질서를 장악한 모험가였다.

그는 한마디로 해상권을 장악한 해상 무역왕이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진취적 사고의 소유자였으며, 여러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렇다면 21세기 경제우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CEO 장보고 대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 (1) 해상 지배력(Sea Power) 확보

장보고 대사는 해상 지배력(해상권)<sup>53)</sup>을 확보함으로써 당나라와 일본, 신라를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해상 지배력은 한마디로 해양 공간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의미한다.

해상을 지배했다는 것은 곧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해상의 질서를 확보할 때 국제무역 제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 역사상 해상권을 장악함으로써 강대국으로 발돋움했던 사례는 흔히 있었다.

예를 들면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미국 등 해상권을 장악한 국가들이 한결같이 당시의 세계경제를 주도했다. 지중해를 최초로 장악한 페니키아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인 카르타고와 인도, 브라질, 미국 등지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마제국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적들을 소탕, 지중해 경제권을 장악하면서 이집트에서부터 독일,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리스도 해상 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알렉산드리아 등 광대한 식민지를 만들었으며, 네덜란드는 국내 자원의 개발과 식민지 경영에 다같이 관심을 가졌고 본국의 항구들과 능동적인 국제무역을 수행했다.

16세기에는 포르투갈, 17세기에는 네덜란드, 18~19세기에는 영국이 해외진출을 통해 국운의 융성을 맞았던 점에서 해상지배력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초강대국인 미국도 해군력 육성을 통한 해외진출로 발전할 수 있었다. 남북전쟁이 끝날 때만 해도 미국은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져 있었다. 1년 동안 은행 500여 개와 기업체 1만 5천여 개가 쓰러

---

53) 해상지배력(Sea Power)이란 용어는 19세기 말 미국 海軍史家였던 알프레드 마한(Mahan)이 처음 사용했다. 마한은 그의 저서에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세계의 公道인 해양의 지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온 역사적인 사실에 주목하여 거기서 도출된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海洋支配力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졌고 실업자만 400만 명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의 지도자였던 알프레드 마한 해군 소장은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하려면 해군력 증강을 통해 해외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890년 출판된 《유럽의 해전사 연구》(1688~1783년)에서 미국이 고립주의를 탈피하려면 제1급의 상선대와 함대,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식민지와 기지, 석탄 보급항이 필요하다고 하며 해외 진출을 적극 강조했다.

그의 주장을 실천한 인물이 스티븐 G.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다. 미국이 해외진출 기간(1895~1901) 동안 올린 무역흑자는 무려 20억 달러. 이는 미국이 독립한 이래 1백 년 동안 기록한 흑자 총액보다 약 5배나 많았다. 즉 해외진출 10여 년 만에 미국은 단숨에 세계의 주요 수출국으로 도약했던 것이다. 이처럼 해상권 장악이 부국의 지름길이었다.

해상 질서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력의 흥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의 윌터 롤리 경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상업을 지배하고, 상업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였다. 독일의 경제학자 F 리스트는 “바다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자원 그리고 새로운 부(富)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다.

해양진출을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한 장보고 대사의 모델은 오늘날 한국 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국가들의 대부분이 해외진출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했기 때문이다. 그가 당과 신라, 일본 3국의 해상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도 해상권을 장악, 교역 루트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장보고 대사는 해적을

소탕하면서 군소 해상세력을 자신의 통제아래 두는 등 해상질서를 장악했던 것이다.

그가 해상질서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청해진이 설치되기 직전인 문종 원년(827)에 각국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하는 역사상 최초의 ‘항해조례’가 채택되었던 것도 한몫을 했다. 당나라는 번진(藩鎭)의 발호로 문란해진 무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항해 도중 태풍 등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경우 관련국들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칙령(외교문서)을 채택했다. 즉 산둥반도 청주(靑州)에 소재한 대당치청절도사에 새로 부임한 양번사 강지목이 이 ‘칙령’을 각국에 통보했던 것이다. 이 칙령은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독점하는 데 한몫 했던 것이다.

이는 당나라, 신라, 일본 3국이 무질서한 동북아 해상질서 확보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 칙령은 3국간의 민간교역을 활성화하는 데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가 국가발전 비전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를 내세웠지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해양권을 장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해양 개척이야말로 일류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장보고 시대와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보고 시대에도 한반도가 통일신라와 발해로 나뉘 대립했으며, 20세기의 한국도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경우 해양진출을 외면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가 개설된다

고 하더라도 해상권 확보를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점이 장보고 대사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교훈이다.

## (2) 정경유착의 해결책 제시

장보고 대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정경유착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장보고 대사만큼 신라 조정, 특히 중앙정치권으로부터 철저하게 이용당했던 인물도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그를 정치권에서 '권력에 눈이 먼 화신'으로 악용했던 것이다.

당시 공식 기록을 보면 장보고는 교관선 2척과 회역선 1척을 소유했던 '보기 드문 경제인(기업가)'이었다. 그는 또 군진(軍鎭)<sup>54</sup>인 청해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해상 활동의 중심지인데다 조세를 수취하며 독자적으로 행정구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었다. 군진을 지배하는 것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소유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보고의 휘하에 있던 청해진 병력은 중앙정부도 감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할 만한 세력이었다.

이처럼 청해진은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나

---

54) 신라 하대의 군진은 군사적 요충지인 동시에 해상 교역을 위한 중요 交通路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교통 및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특별한 행정·군사 단위였다. 이처럼 군진은 지리적 여건이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 및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으로 독립국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장보고는 신라 본국에서는 물론 당·신라·일본 등 해외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존재였던 것이다. 장보고는 대외무역을 통한 막대한 부를 축적, '소왕국'에 버금가는 힘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장보고 대사는 당시 신라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부와 명예는 물론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 국제적인 '거상'의 길을 걷고 있었던 장보고 대사가 왕위쟁탈전의 정쟁에 휘말리면서 정경유착에 앞장섰던 것이다.

즉 한 우물을 파던 장보고 대사가 권력에 빌붙어 특혜를 받으려는 정경유착의 원조가 됐던 것은 김우징이었다. 김우징은 흥덕왕 사후(835) 김명(나중에 민애왕)과 왕권쟁탈전을 벌이다가 실패해 청해진으로 피난해 왔다. 장보고는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민애왕을 시해하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옹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그가 중앙정치에 간여하면서 얻은 이득은 신무왕으로부터 받은 감의군사(感義軍使)라는 칭호와 식읍(영지) 2천 호였다. 식읍이란 고위자 또는 국가 유공자에게 내려주는 일정한 지역으로서, 식읍을 받은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 수취와 함께 거주민들의 노동력까지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보고에게 내려진 감의군사는 골품제상에 없는 관등이나 관직이었다.

반면 장보고 대사와 함께 신무왕을 옹립하는데 기여한 김양은 오늘날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서열 4위인 '소관검창부령'에 임명됐다. 하지만 신무왕은 장보고 대사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이 대위(大位)를 얻는 날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약

속했다. 이는 천민 출신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무왕이 즉위 6개월 만에 죽었고 태자 경웅이 문성왕으로 즉위했다. 문성왕은 부왕인 신무왕의 뜻을 받들어 장보고의 딸을 차비로 맞이하려고 했으나 귀족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혼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귀족들이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장보고가 왕의 외척으로 격상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이다. 심지어 장보고가 모반을 꾀하였다는 미명아래 염장을 시켜 장보고를 암살했던 것은 당시의 귀족들이 장보고 대사를 왕권쟁탈전에 이용하고 토사구팽(兔死狗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정경유착의 선례를 남겼던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을 쥔 자들이 특정인(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소위 권력형 부정부패가 많이 생겨났던 것이다.

대표적인 정경유착의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의 독직(瀆職)사건이다. 이들 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재벌들로부터 1조원에 가까운 가공할 규모의 비자금을 거둬들였으며 그 대가로 온갖 특혜를 줬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권력과 재벌의 유착으로 인한 불공정거래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 경쟁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처럼 정경유착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며 무원칙을 초래, 시장경제 시스템의 작동을 막는 등 한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올 수 있는 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장보고 대사를 재조명·재평가하는 것은 바로 '실패'도 훔

를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신라의 귀족들이 장보고 대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한마디로 균형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제원리의 속성인 '능률'과 정치논리의 속성인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정치는 국가 체제와 근간의 상부구조를 이룬다고 할 때, 경제는 그 하부구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가 형평의 원리를 중시한다면 경제는 능률의 원리에 중점을 둔다. 정치논리는 다수결 원칙에 입각한 타협의 논리라고 할 때 경제논리는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경쟁의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 정치논리가 힘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 악용될 때가 있다. 정치논리는 힘이 강할 때는 밀어붙이고 힘에 부치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나눠 먹기식' 행태를 취한다. 이에 반해 경제논리는 능률과 합리성에 입각한 행동양식이다. 이처럼 경제와 정치논리는 서로 다르게 작동하지만 우리처럼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늘 정치가 경제논리보다 우선했던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에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가 밀착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정경유착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경분리가 잘 되어 있다면 정치와 경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더 이상 권력과 재력, 명예 등을 취하려고 과욕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하고 기업인들은 국부를 창출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경제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반면 자신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를 보호막으로 삼으려는 경제인도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의 힘이 작용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해결책이다.

### (3) 윈-윈(win-win) 전략

윈-윈 전략은 주체와 대상이 서로 협력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방적으로 한쪽은 이익을 얻고 한쪽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바로 장보고 대사가 해상무역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당과 신라, 일본 등 3국에 살고 있던 경제 주체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윈-윈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장보고 상단이 어떻게 윈-윈 전략을 펼쳤던가.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뒤 14년 만에 3국간 해상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도 철저한 국제 분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장보고 대사가 이끄는 신라무역상단과 당나라에 거주하면서 연안무역을 장악한 재당 신라인,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경제권을 장악한 한반도 도래인(渡來人)들이 철저히 상호협력을 통하여 중개해상무역을 독점한 것이다. 이는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 경쟁력 있는 경제 주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이 점이 장보고 대사가 짧은 기간에 고대 동북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된 성공의 요체(要諦)이다.

한마디로 장보고가 이끄는 신라인 무역상단은 해상무역의 전반을 전부 장악하는 게 아니라 물품을 수집하고 보관-운반-유통 등 제반 영역을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나눠(공유)줌으로써 윈-윈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당나라에 거주하고 있던 재당 신라인들은 연안 및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생산-수집-보관-운반하는 분야에 각각 종사하고 있었다. 재당 신라인의 일부는 숯이나 소금 등을 직접 생산하거나 당나라 사람들로부터 사들였다. 또 이들로부터 각종 생필품을 매입, 운하 주변의 창고에 보관하는 재당 신라인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다시 연안해운업자에게 물건을 팔았고 연안해운업자들은 다시 장보고 무역상단에게 물품을 인계했다.

장보고 대사가 이끄는 신라인 무역상단과 재당 신라인들 가운데 국제무역상들은 당나라에서 가져온 진귀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거친 남중국 항로를 지나 청해진에 잠시 들렀다가 일본 규슈로 운반했던 업무를 도맡았다. 즉 당과 일본을 연계하는 중개무역을 한 것이다.

장보고 무역상단은 신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당나라와 일본으로



수출 대행을 도맡은 것이다. 그 단적인 예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 자기 휘하의 병마사를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라는 이름으로 당나라에, 일본에는 회역사(廻易使)라는 무역 사절단을 각각 파견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당과 신라, 일본 등지에 흩어져 살면서 각종 진귀품(생필품 포함)을 수집-보관-운송 및 유통하는 분야에 종사한 재외 신라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조직·관리하는 한편 상호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인물이 바로 해상왕 장보고이다. 또 이들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에서 홍해,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이르는 바닷길(남해로)을 통해 아라비아-페르시아, 인도 상인들이 운반해온 수출품을 당나라에서 신라, 일본으로 운반했던 것이다.

반면 한반도에서 건너간 백제 및 고구려, 신라인 후예들로 형성된 재일 신라인들은 신라인 무역상단이 가져온 수입품(일본에서는 舶來品이라고 부름)을 일본 내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 무역상단과 재당 신라인,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한반도 도래인들이 국제 분업을 통해 중개무역을 주도한 것이다.

엔닌의 일기에 따르면 신라촌에 거주하는 재당 신라인의 직업이 각양각색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궁중관리(李元佐)·지방관리·군인·승려·농민·선주·선원·해상무역자·상인·조선 및 선박수리업자·통역관·외교관·신라 조계의 임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당 신라인의 상당수는 당나라 사람들이 미천한 직업이라고 하여 기피하던 뱃사람(오늘날 해운업) 등 선박 관련 분야와 해상무역업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처럼 재당 신라인들이 연안무역에 종사했음을 잘 나타내는 증거는 그들이 거주하

고 있던 곳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재당 신라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거대한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던 곳은 양주와 초주, 연수향, 적산포, 숙성촌 등으로 교통 및 교역의 요충지였다. 양주는 대운하와 양쯔강 하류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떨쳤다. 또 초주와 연수향은 중국 대륙의 남북부를 연결하는 대운하와 회수(淮水)가 교차되던 곳으로, 당나라 최대의 수로 요충지였다.

# 장보고 대사와 한국의 경제교육



# 3



우리나라에서는 무한경쟁으로 상징되는 개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주체들이 제대로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교육(가치관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요즘처럼 경제 주체들의 이기주의적인 행위로 국민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선뜻 대답할 정도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경제교육이다. 왜냐하면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초·중·고·대학에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경제교육은 실생활에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금융(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의 비율도 28%(국민은행 조사 결과)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분히 관념적이고 실생활과 동떨어져 실시되고 있는 현행 경제교육은 실재는 무용론만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교육의 부재는 한국 경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용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는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다. 그 단적인 예는 사기(詐欺)에 의한 고발건수가 해마다 20만 건 이상 발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사기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997년의 경우 인구 10만 명 당 400건으로 절도범죄 건수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대출업체인 '굿머니' 경영진들이 500명의 주부 명의로 500억원을 대출받아 도주한 사건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 대표가 1조 원 규모의 사기분양을 하다 감옥에 갇히는 사건도 일어났다.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만 제대로 시행된다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건만 팔면 된다는 식의 사기(詐欺)판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 이같은 탈법 및 불법 판매가 난무하다 보니 소비자는 생산자를 믿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경제 주체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 주체들이 서로를 불신한 까닭은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제교육이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다보니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자기 몫을 챙기는 데' 더 열중이다. 또 소비자는 생산자들이 생산한 제품의 질을 믿지 못하며 생산자는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자와 기업가가 서로를 믿지 못하니 노사 갈등이 초래되고 결국 해마다 극한투쟁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 밖에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를 믿지 못하면 부정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으레 민원인들로부터 돈을 챙기며, 물지각한 기업가들은 정치권과 유착, ‘눈먼 돈’을 벌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도 우리 사회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처럼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남의 땀’만 하는 불신풍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다.

## 1. 경제교육의 개념

그러면 경제교육의 개념은 무엇일까. 경제교육은 경제생활에 있어 인간의 욕구와 재화 및 용역 또는 정보들 사이의 합리적 선택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교육은 경제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 및 그 적응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교육연합회(The Joint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에서는 경제교육이란 ‘경제정보, 경제체제를 움직이는 제도, 주요 경제 개념 및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지식과 경제가치의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지성적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학문적 개념이 아닌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교육 개념을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경제교육은 돈을 쓰고 돈을 버는 각 경제 주체들

이 경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제교육은 경제 주체에 대한 ‘가치관 교육’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경제교육은 일종의 경제윤리교육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직업교육’과는 확연히 다르다. 직업교육은 직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기능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교육은 경제 주체인 기업가와 근로자, 소비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와 경제이론 등은 물론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생활경제와 경제 주체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체득시킴으로써 올바른 소비 및 생산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소비자 교육과 노동자들이 주어진 근로시간에 충실하게 일을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향상에 앞장서도록 유도하는 근로자 교육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윤리경영도 포함하는 등 광범위하다. 경제교육에서 가치관 교육이 빠지면 인격이 없는 ‘속물 인간(俗物人間)’을 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경제교육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왜냐하면 경제교육은 경제행위를 하는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기 때문이다. 경제교육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직업이나 노동을 통해서 의식주를 얻는 데 필수적인 교육이 되었다. 선진국일수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체험적인 경제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민주시민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재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장사에 대한 세



가지 보배 중에서 사람이 으뜸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인재 양성 다음으로 중요한 보배는 상점의 외관(위치), 신용이라는 것이다.

셋째, 경제교육은 경제 주체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신교육이다. 한마디로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는 경제교육을 통해서 끊임없는 경영혁신 또는 자기혁신을 꾀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업의 전폭적 지원 아래 다양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특히 오늘날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유대인과 화교(華僑), 일본인 등은 고유의 전통사상과 상업정신, 상인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경제교육'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려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상인정신과 상업문화, 경제윤리를 가져야 한다. 우리도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서 세계 제일의 우량기업으로 키워나가려는 기업가 정신과 합리적인 소비자 정신, 노동력 향상을 기하는 근로자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교육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복잡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며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깨달아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교육은 실생활 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체험 중

심의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경제교육이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경제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은 한국 고유의 상도의와 상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경제 주체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신용질서를 확립하며 시장경제체제의 토대가 되는 경제원리와 이론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교과목과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데 있다. 즉 경제 주체들이 상도의로 무장한다면 한국 경제도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소위 '한국을 대표하는 무역상'을 양성해야 한다. 바로 그 지름길은 '한국식 경제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2. 외국의 경제교육

선진국에서는 가정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릴 적부터 체계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지식을 주입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경제원리를 스스로 터득하는 데 경제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용돈을 그냥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돈과 노동의 관계와 가치를 알도록 해 자립심을 키운다. 선진국 일수록 젊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경제 주체'로 길러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 (1) 미국의 경제교육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평소 경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은 청소년을 소비자만이 아닌 미래의 생산자로 키우는 일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합심해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교육 덕분에 기업가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역대정권은 재임기간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는 바로 신용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시장경제 발전이 공짜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이들 국가는 책과 이론 중심의 ‘죽은 경제교육’이 아닌 생활 중심의 ‘살아 있는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다.

미국경제교육협의회(NCEE)는 경제교육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예컨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플레이 도(play dough: 인조찰흙)’ 게임을 통해 산업의 중요성과 기회비용 개념을 가르치고, 역할극 놀이를 통하여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이해시킨다. 또 ‘무역전쟁 놀이’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원리와 환율변동을 배운다. 어릴 때부터 가게 운영 및 주식게임을 통해 시장원리를 절로 깨우치는 등 실용적인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8세 이하 미성년이나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도 부모

가 동의하면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미국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전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동의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식을 사주는데, 이는 주가의 오르내림을 통해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와 기업의 전폭적 지원 아래 다양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에선 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경제교육에 앞장선다. 신용질서를 세우려면 미래의 고객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1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 JA([www.ja.org](http://www.ja.org))는 '청소년의 경제적 성취(Junior Achievement)'를 슬로건으로 400만 명의 학생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 경제교육 실습안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를 피부에 와 닿도록 교육시킬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유치원 : 플레이 도(인조찰흙)로 여러 직업인의 모습 만들기

몸짓으로 직업 표현하고 알아맞히기

1학년 : 여러 직업인을 인터뷰해 학급신문 만들기

은행직원 초청해 저축방법 토론하기

2학년 : 학교-동네사람 중 우수 서비스 제공자 골라 상 주기

각종 재화 서비스의 원료 알아맞히기

3학년 : 제한된 돈으로 학급 비품을 필요한 순서대로 구입하기

우리 지방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 만들기

4학년 : 우리 지방과 다른 지방 생산품을 비교하는 그림 그리기

주요 기업가의 일과 일생을 조사해 발표하기

5학년 : 하루 동안 먹는 음식물의 원산지를 지도에 표시하기

음료수 과자공장 견학 후 생산성 높일 방법 논의하기

6학년 : 국내총생산(GDP) 조사 후 지도에 비슷한 나라끼리 같은 색 칠해 보기

대사관에 편지 보내 각국 생활수준 알아보기

7학년 : 외국으로 휴가를 간다고 가정하고 환전 계획 짜보기  
종교 · 정치 · 교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하기

8학년 : '학생가계' 운영, 주식투자 게임해 보기  
국가에 큰 영향을 준 발명에 대해 조사하기

이처럼 미국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난해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 역점을 둔다. 중·고교에서 배우는 소비자학은 앞으로 선택할 직업이 무엇이며 몇살 때까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 지 등 평생 계획을 세우도록 가르친다. 선진국에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자원의 희소성이나 기회비용, 분업과 비교우위, 국제무역과 기업이 정신 등 시장경제 기본원리를 재미있게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백만장자들의 자녀양육법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 경제지인 포브스는 '백만장자는 이렇게 자녀를 키운다'는 부자들의 양육 원칙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만족감을 가르쳐라. 둘째, 어려서부터 죄의식을 갖게 하지 마라. 셋째, 성취감을 불어 넣어라. 넷째, 일을 하도록 요구하라. 다섯째, 지나치게 통제하지 말라. 여섯째, 자기 꿈을 이루도록 놔둬라. 일곱째, 실험적 시도를 하도록 북돋워라. 여덟째, 버릇없이 기르지 말라. 아홉째, 유용한 선물을 주라. 열번째,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자극하라.

열한 번째, 돈에 관해 가르쳐라. 열두 번째, 주저앉아 남이 주는 것을 받도록 놔두지 말라.

박명희 동국대(가정교육과) 교수는 “외국에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가없이 돈을 주지 않으며 심부름이나 집안의 일을 도와주면 값을 매겨 용돈을 준다. 그러나 한국식 경제교육은 달라는 대로 돈을 주는 바람에 자녀에게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만 높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일본의 경제교육

‘경제동물’이라고 일컫는 일본의 경우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교육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다. 이같은 경제교육이 일본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경제교육의 역사는 16세기인 도쿠가와(德川) 바쿠후(幕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교육을 정립했던 인물은 스즈키 쇼산(鈴木正三)과 이시다 바이간(石田梅岩)이다. 이들은 불교의 참선(參禪)을 경제윤리에 적용하였다. 이들의 경제윤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독특한 직업윤리와 결합, 오늘의 일본 경제교육의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의 경제관은 오늘날 일본 자본윤리의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일본의 칼뱅으로 일컬어지는 스즈키 쇼산은 “세법(世法)으로써 성불하는 것이 도리이다”, “세법으로써 성불하는 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일체 불의(佛意)를 모르는 사람이니 바라건대 세법이 불법으로 될 수 있도록 늘 염원하라”고 설교했다.

쇼산은 사농공상(士農工商)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일깨우는 데 주력했다. 그는 “농민으로 태어난 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계를 양육하는 관리인이다. 절대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명에 올바르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 오곡을 생산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만민의 생명을 도와야 한다. 하찮은 벌레 등에 이르기까지 베풀 것을 발원하고 꿩이질 하나 하나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가래질 하나 하나에 주력하여 다른 생각 없이 농사에 힘을 쏟게 되면 밭도 깨끗한 땅이 될 뿐더러 오곡도 깨끗한 곡식으로 되어 먹는 사람마다 번뇌를 소멸시키는 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념으로 농사를 지으면 해탈(解脫)을 이룰 것이고 스스로 부처가 되어 성불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sup>55)</sup>

그는 상인도 농민과 마찬가지로 수행하면 된다고 한다. 쇼산의 상인관은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그는 상인이야말로 국내의 자유를 수호하는 중요한 직업이라고 이해했다. 특히 자유의 기초로 매매 또는 통상정책을 두둔했다. 유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매매’이다. 이것을 담당하는 자는 분명히 ‘국내의 자유를 이룩하도록 천명을 받은 관리인’이라는 것이다.

쇼산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염불을 외우면서, 일생은 오직 하나의 속세 여행인 것을 깨달아 일체의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떠나 장사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설교했다. 즉 “신명(神命)에 의해 이익을 얻

55) 졸저, 《장보고를 알면 세계가 열린다》,〈한눈〉

어 베풀게 되면 이(利)를 취하는 것도 뛰어나고 복과 덕이 충분하여 큰 복을 받는 큰 사람이 된다. 결국은 용맹하고도 견실한 큰 믿음이 생겨 걸거나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눕더라도 언제나 선정(禪定)에 드는 것과 같이 자연스럽게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다. 쇼산은 “세속의 업무는 곧 종교적 수업이고 이것을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주된 사상으로 제시했다. 그의 성불론은 ‘검선일여(劍禪一如)’라고 하는 당시 무사의 사고방식과 비슷하다.

쇼산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던 이시다 바이간은 당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세키몬심학(石門心學)의 창시자이다. 그는 45세 때 교토에 구루야마사숙(車屋私塾: 사립 공부방)을 열고 매일 아침과 하루 걸러 야간에 강의를 했다. 그의 사상 핵심은 쇼산 사상과 일치한다. 그는 이윤이 정당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쇼산의 상인 개념은 행상(行商)과 같은 것으로, 말하자면 상인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순례자’였다.

바이간은 ‘검약제가론(儉約齊家論)’에서 검약은 자제(自制)윤리에서 비롯된다고 뜻을 밝혔다. 자제윤리는 모든 상가, 즉 기업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윤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검약에 위배되는 행위로 명문(名聞), 이욕(利慾), 색욕(色慾) 등을 꼽았다. 모든 계층이 경제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면 바로 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간은 “소비 또한 불도(佛道)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하늘이 생민(生民)을 내려 보냈으므로 만민은 모두가 하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의 소유주인 것이다. 이처럼 소유주인 까닭에 사람에게에는 본래 사심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



것은 내 것, 타인 것은 타인 것, 빌려준 것은 받고, 빌린 것은 돌려주며 털끝만큼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정직이다. 이러한 정직을 행하게 되면 모든 세상을 화합하고 천하는 형제와 같게 될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이러한 경제교육을 발전, 계승한 일본의 최고 상인집단이 오사카 상인이다. 오사카 상인들은 일본 바쿠후의 정책 실패로 고물가, 고실업, 불경기를 겪던 당시에 상인으로 기개를 갖되 윤리의식으로 무장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영철학을 갖고 있었다. 오사카 상인의 경영철학은 ‘신념과 지혜를 지닌 성숙한 인간’이야말로 어려울수록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원가계산,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정신, 인색함과 알뜰함, 절약, 빠른 눈치 등의 덕목을 갖췄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 주체(기업가, 근로자, 소비자)에 대한 경제교육의 핵심은 불교의 경제관이 반영되어 있다.

이 밖에 최근 일본학교의 경제교육도 자국의 경제구조와 현실 경제를 이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 전국 1백여 개 초·중·고교에서 ‘모의회사 경영프로그램’을 교과목에 넣어 가르치고 있다.

### (3) 네덜란드의 경제교육

‘온 몸으로 경제를 실천하는 민족’인 네덜란드에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사회적인 저축장려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부

모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장사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네덜란드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상품을 잘 팔기 위해 길 거리에서 노점상을 체험하며 1길더(네덜란드의 화폐단위)의 이익을 보려고 최선을 다해 흥정을 벌이며 돈의 소중함을 일깨운다고 한다. 중학생이 되면 신문배달을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동네 슈퍼체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이들은 장사하는 현장에서 치밀한 계산법과 창고의 재고관리, 매장의 상품관리 등 실물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배운다. 또 상당수 대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어학 연수를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이웃 나라로 떠나 호텔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들은 현지에서 그 나라의 생활방식과 예절을 배운다. 네덜란드가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세계 제일의 산업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상업 진흥을 위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는 물론 개인의 대부분이 국제무역에 역점을 두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정이 하나의 무역회사이다. 남편은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며 세계 공용어인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독일어 등을 구사하는 아내는 가사를 책임지며 훌륭한 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주부는 물론 정치인, 노동자, 기업인 등 모든 국민은 돈을 벌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더치(네덜란드) 상인들은 계산이 정확하고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온 몸으로 장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이 16세기부터 수백

년 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훈련과 실습을 통해 자질을 키우는 상인 양성에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경제 교육은 체험을 통해 경제 마인드를 기르는 것이 특징이다.

#### (4) 이스라엘의 경제교육<sup>56)</sup>

유대인의 속담에는 공부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그 다음 사람은 장사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은 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스라엘이 2천 년 동안이나 온갖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도 경제교육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노벨상 수상자 300명 가운데 유대인이 93명이나 올라 있다. 세계 인구의 0.2~0.3%에 불과하지만 노벨상의 31%, 세계 지도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경제활동은 세계에서 독보적일 만큼 출중하다. 초국적 또는 세계적인 대기업만도 록펠러, 모건, 로열더치, GE, GM, AT&T, IBM, 보잉, US 스틸, 제록스 등이 있으며, 체이스 맨해튼 은행 등 세계적인 은행도 셀 수 없이 많다. 이들은 이민 초기에 3D 직종인 봉제업에 종사했으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해 약삭같이 돈을 벌었고 지금은 언론과 금융, 영화 산업 등 손을 안 대는 산업이 없을 정도다.

이스라엘의 경제교육은 구구단을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리가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의 개성을 존

---

56) 류태영(1995), 《천재는 없다》, 성현출판사

중한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아이에게 고기 한 상자를 주면 며칠을 먹고 살게 할 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용돈에도 제약을 둔다. 집안일을 돕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다. 어려서부터 돈의 소중함을 배운 그들이기에 사치와 낭비를 모른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지출계획서와 사용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금전관리를 생활화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넘어져도 잡아 일으켜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모두가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 아이들은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정신적·물리적으로 완전한 독립생활을 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용감성, 봉사정신, 인간성 등이다.

이스라엘 교육관은 인성을 바탕으로 한 복합교육이다. 초등교육까지 모든 과정은 아이들의 인성, 창의력과 지혜를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신화적 상상력과 사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훈련을 함으로써 창의력을 길러준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분담하여 집안일을 돌본다. 이웃을 방문할 때 반드시 온 가족이 동반하는 것도 작은 가족과 가족이 자주 접촉함으로써 또 하나의 작은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믿고 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은 물론 서로 돕는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한다.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던 비결은 근면성과 절약이며, 선민의식을 고양하는 교육과 서로 돕는 커뮤니티 활동이다. 히브리어 교육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 살든 유대인은 하나'라는 역사의식을 심어준다. 이스라엘이 민족의 전통을 보존하는 일을 맡고 있다면 전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은 본국의 재외교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대인 단체들은 고유문화와 언어교육을 전담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 유대인들은 고유의 생활을 유지하고 언어와 역사, 문화를 전수하는 데에 필요한 신문 발행과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전액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조직적인 연대와 이를 매개로 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모금된다.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대인들은 본국인 이스라엘과 미국 등 현재 살고 있는 나라 경제를 모두 살린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유달리 교육열이 높다. 유대인들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지식을 훌륭하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식 농사가 최대의 사업이란 게 유대인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같은 교육의 영향으로 유대인은 본국과 전통을 절대 잇는 법이 없다.

다음으로 유대인들은 평균 4~5개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 2천년간 조국 없이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독특한 생존방식으로 많은 나라의 언어와 재테크 방법을 익혔다. 여러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다 보니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는 물론 중개무역을 장악하게 됐다.

유대인들은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돈을 도구 이상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특히 치부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문과 사회 환원,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 (5) 중국의 경제교육

예전부터 중국인은 전부 상인이고 중국 땅은 온통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중국이 기원전 1천 년경에 주판을 발명해 상용해 왔고, 서양보다 몇백 년에 앞서 지폐·수표·어음을 사용했던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인은 치열한 상인정신과 상술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장삿속이 밝아 상인종(商人種)이라고 부를 정도다.

이들의 상술은 정직과 신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상인 기질은 지혜롭고 바윗돌 같은 저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인들의 뛰어난 상인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경제서인 《주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농민이 생산하지 않으면 양식이 적어지고 공장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도구가 적어지며 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양식, 도구, 재화 등 세 가지 보물이 단절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 속에는 장사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 거부가 된 사례가 흔히 있다. 중국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시장경제에 대한 매력과 사업을 통한 이익에 눈을 뜬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들 상인(화상-華商)들은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거상으로 성장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은 동남아는 물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대재벌로 성장했다. 인구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계 싱가포르와 홍콩, 대만 등 3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은 상장기업의 6할을 지배하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계가 6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 안팎에 불과하지만 경제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남북미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진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도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상과 연대하는 '중화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세계 중화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결합해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성공 비결은 독특한 상인 조직에 있다. 중국에는 역사적으로 방(幫)이란 게 있다. 이 방은 주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를 뜻하거나 향우회, 비밀조직을 총칭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조상이 살았던 본토의 출신지에 따라 자치조직인 방을 운영하고 있다. 즉 지구촌을 망라하는 거대한 '중화 네트워크'도 화교사회의 기본조직인 방과 방의 인적 자원과 자본의 교류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상의 특징은 철저한 가족중심체제의 기업경영에 있다. 즉 실력 있는 이웃보다는 차라리 모자란 가족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이 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혈연과 지연을 중심으로 한 관계(關係)이다. 중국에서의 경제교육은 '관시(關係)'를 통해서 전수된다. 이처럼 중국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즉 관계를 어떻게 만 들어가고 또한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함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소위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에 이상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 사이가 된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돈을 투자해서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심화시키고 확장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 (6) 기타 경제교육

독일 가정에선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일깨워준다. 부자 나라지만 아이에게 용돈을 빠듯하게 주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광장 앞에서 좌판을 깔고 자신이 쓰지 않는 레고 장난감이나 곰인형 등을 팔아 용돈을 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용돈 교육을 통해 부모가 확실히 심어주어야 할 메시지는 돈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버는 것이라는 점이다.

## 3. 한국 경제교육의 실태

언뜻 보기에는 한국 상인을 대표하는 정신과 문화 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수천 년 동안 상인을 천시했던 상인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인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조선왕조는 경제기반의 원동력을 농업생산에 두었기 때문에 농업은 '본업(本業)' 이고 상업을 '말업(末業)' 으로 치부했던 것이다. 이처럼 상업을 천시했던 것은 백성들이 상업을 통해 이익을



탐하다 보면 농사철이 되어도 농사일을 하지 않고 전업(轉業)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경제 우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유독 '상업' 또는 '상인' '돈' 등을 백안시하고 있다. 또한 '부유층' 등에도 맹목적으로 불신하는 사회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상인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상인정신은 '장보고 청해진 대사' 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에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일치하는 개방화와 자유무역을 추진하였는데, 그 근처에는 한국 고유의 상인정신(행상문화)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장보고 대사가 당나라와 신라, 일본(오늘날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신)을 잇는 해상중개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던 성공 비결과 상인정신이 개방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경제교육의 모델임을 제시했다. 즉 경제 주체들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장보고 대사가 당시 신라의 경제 주체들을 하나로 묶어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을 꾀했던 전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교육은 '돈' 을 올바르게 버는 방법과 어떻게 '돈' 을 증식하며 '돈' 을 아끼고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생활경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경제교육은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돈을 어떻게 벌고 저축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것이 경제교육의 기본이다.

돈을 버는 법의 핵심은 직업교육과 창업교육이다. 직업교육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을 선택하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돈을 버는 정당한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교육도 어려서부터 '끼'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아끼고 저축하며 돈을 불리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돈을 잘 써야 부자가 된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검소함이 없다면 자식에게도 그 재산이 그대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와 직결되는 돈을 빌리려면 신중해야 한다. 즉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또 다른 부를 만들 수 있지만 소비만을 위해 빚을 지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훈(원광대) 교수는 투자가 돈 모으기의 기본 목적이려면 돈을 잘 쓰게 하는 소비교육은 금융교육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고 절제된 소비가 제2의 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교육이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부자를 만드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돈을 버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가치관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경제교육의 부재로 한때 마술사로 통했던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2003년 10월 말 현재 350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어디서든 굶기만 하면 물건을 살 수 있었고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던 신용카드가 '빚'과 똑같은 애물단지로 변했다. 한마디로 경제교육의 부재는 '소비 습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민은행이 20대의 소비형태를 조사한 결과, 20대는 월 평균 121만 원을 소득으로 얻는 반면 이중 4분의 3에 가까운 89만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10중 2명은 소비수준이 소득을 넘어 연체 경험을 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전문가들은 소득의 50%는 무조건 저축에 투자하고 나머지 범위에서 소비하라고 권한다. 아이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의 용돈을 준다면 1만 5천 원의 범위에서 절제된 소비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쉽게 광고에 유혹되기 쉬운 점을 감안해 광고의 실상에 대해서도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알찬 소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돈은 사회에서 벌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은 어쩌면 '정스런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9년 우리나라의 1인당 기부액은 5800원 선이다. 미국의 70만 원과 영국의 24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어릴 때부터 용돈의 1%는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경제교육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다. 베품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종환 삼영화학 그룹의 회장이 지난해 평생을 모아 온 개인 자산 3,000억 원을 아낌없이 내놨던 것은 한국 상인정신의 표상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경제윤리나 가치관의 측면에서 중요한 행동 양식이며 경제시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눔에 대한 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1) 가정-학교 경제교육의 실태

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교육의 내용은 서구의 경제교육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경제이론 또는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제교육의 내용과 사례는 서양적인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고유의 상인정신과 상인문화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주체들이 경제행위를 하는 데 있어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제교육은 투명성과 합리적인 개방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는 데 반해 한국인의 의식은 폐쇄 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주체의 의식과 경제 환경이 180도 달라져 있는 상황에서 생산 및 소비 등 경제행위를 하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교육은 '외제품 구입=사치'라며 국산품 애용을 권장하거나 근검절약을 부르짖는 식의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학교 경제교육도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먼 이론 중심의 외우기에 치중했던 것이다. 특히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제교육(사회과목의 하위 분야)의 기본개념을 살펴보면 얼마나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교육의 기본개념은 ① 희소성 ② 시장 ③ 생산 ④ 소비 ⑤ 화폐와 금융 ⑥ 재정 ⑦ 국민소득 ⑧ 경제변동 ⑨ 국제경제 ⑩ 경제체제 등이다. 이들 기본개념은 대학교재용 경제학원론을 축소해 놓았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다. 즉 시장경제체제에 필요한 기초적인 경제이론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물론 청소년들이 배우기에는 버거운 내용들이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이 어려운 경제용어와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은 국·영·수 과목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밑줄을 그으며 달달 외우는 식으로 경제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를 나와도 세금과 부동산 등 기본적인 생활경제의 상식도 모르고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교과서가 어려운 경제 논리와 용어를 나열하는 식으로 돼 있고, 이런 경제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학생들이 흥미를 잃기 십상이다. 고등학교 2학년부턴 경제교육은 사회·가정 과목에서 별도 교과목으로 독립하지만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어서 학생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입시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학교에서 선택과목인 경제과목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는가.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재미없고 골치 아픈 경제교육 과목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경제교육은 어떻게 실시되는가. 한마디로 가정에서 경제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벌고 쓰는 일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습관을 심어주기보다는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하나를 더 가르치는데에 치중하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는 학교성적이 최우선이다.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을 앞당겨 배우는 선행학습에는 비싼 과외비용의 지출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좌우할 소비 습관과 경제 마인드 교육에는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의 핵심인 용돈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한국 경제의 주역인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흥청망청 낭비하거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요즘 ‘고급 브랜드 병(病)’을 앓고 있다. 친구들이 비싼 브랜드의 제품을 살 경우 너도나도 부모들을 졸라

서라도 유명 브랜드 제품을 경쟁적으로 사게 된다. 즉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때를 쓰면 운동화에 이어 옷, 가방, 학용품, 구두 등 최고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최고품을 경쟁적으로 사주는 것은 '내 아이만은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경쟁의식이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용돈으로 보상하려 든다.

경제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는 자녀들이 대학생(청년)이 되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 때 해외로 연수를 가면서 거의 모든 비용을 부모에게서 타낸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돈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외국 대학생들과는 너무 다르다. 게다가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신용카드를 발급, 흥청망청 쓰다가 구멍이 나면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은행연합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 현재 10대 신용 불량자가 10,266명. 특히 이 중 신용카드 빚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우가 6,656명이 된다는 것이다. 형편이 이런데도 가정이나 학교의 경제교육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경제교육은 무엇일까. 그것은 '용돈' 교육이다. 자녀가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할 무렵부터 일주일 또는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씹씹이를 용돈 기입장에 적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돈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근검절약 정신을 길러주는 최상의 '경제교육'은 용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용돈'에 대한 교육이다.

예를 들면 용돈 지도는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르는 훈련인 동시에 주어진 용돈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 하면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용돈 지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돈 기입장을 작성하게 한다. 둘째, 정기적으로 준다. 셋째, 부모가 건전한 소비생활을 숭선수범한다. 넷째, 자녀와 의논한 후 액수를 결정한다. 다섯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여섯째, 보상으로 돈을 주지 않는다. 일곱째, 벌로 용돈을 깎지 않는다. 여덟째, 자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다. 아홉째, 학기 초나 생일 때 용돈을 올려주는 것이 좋다. 열번째, 가게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열한번째, 지갑과 저금통을 같이 선물한다.

한마디로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제 주체에 대한 개방 마인드를 고양시키려면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가게 운영 및 주식게임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를 절로 깨우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경제 주체들의 윤리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폐쇄지향적 사고에 더 익숙한 한국의 경제 주체들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시장경제체제를 개방 시스템으로 바꾸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교육을 통해 지연(地緣)-혈연(血緣)-학연(學緣) 등 연고주의에 따른 ‘밀실정치’와 ‘족벌경영’의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 특히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연고(緣故)를 기반으로 먹이사슬이 구축되어 있는 폐쇄지향적 네트워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2) 정부의 경제정책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소위 '냉탕-온탕' 식으로 변질될 경우 경제교육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역대 정부는 앵무새 처럼 '시장경제체제'를 보호하겠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일쑤였다.

정부가 직접 시장 개입을 할 경우 가격결정에서의 왜곡 현상이 빚어지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정경유착의 폐해가 발생하고 결국 경제는 '정치' 또는 '법'에 예속되고 만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경제 주체들 간의 서로 '자기 몫 찾기 경쟁'을 부채질하는데다 경제 주체들이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확산시킨다.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생산자는 생산자로서, 소비자는 소비자로서, 유통업자는 유통업자로서, 서로 자신의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힘이 스스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장의 힘이 작동되려면 정도 경영과 건전한 소비자 의식, 확고한 기업의 경영철학이 뿌리내려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체제를 방임할 것인가? 이 경우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유혹해 제품만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상혼(商魂)이 판을 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조정자로서, 시장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제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과 의식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 호화 사치품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 추징금을 물렸다.



이 경우 정부가 외국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림으로써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노사정책이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 노사분규를 좌우한다. 또 정부의 정책이 중복투자에 따른 국가자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개인 및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비정부기구(NGO)를 내세워 경제교육을 실시하면 기업가는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문화'가 형성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즉, 소비자들은 건전한 소비의식을 갖추도록 행동양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힘이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술이나 상행위는 근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 경제구조를 개방경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제는 '우물 안 개구리'의 안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즘을 고양시키는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교육은 각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생산 및 소비 활동 등에 참여, 서로를 믿고 협력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3) 소비자의 경제교육

21세기는 소비자 주권 시대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현실과 너무나 먼 주장일 뿐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기업이나 판매상들이 겉으로만 '소비자는 왕' 이라고 외칠 뿐, 속으로는 여전히 소비자는 그들의 이익 실현을 위한 '뿔' 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 또는 판매업자의 상당수들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정당하게 판매하는 마케팅의 정도를 외면한다. 어떻게 하든지 뛰어난 화술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물건만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다. 온갖 편법·탈법 등의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여 판매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봉쇄하거나 외면해 버리기 일쑤다. 이같은 판매행위는 상거래에 가장 기본인 신용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부여하고 감동을 주는 세일즈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장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번 속아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은 다른 생산자나 판매업자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은 열악한 판매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더 과장해서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국산품을 외면하고 외제라면 맹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에 외제 명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소비자 교육 실시도 중요하지만 충동구매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소비풍토이다. 게다가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국적 불명의 상업문화를 보면 매월 14일마다 기념하는 날을 정해놓고 특정상품의 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예를 들면 1월 14일은 수첩을 선물하는 다이어리 데이이며, 2월 14일은 발렌타인 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 데이 등이다. 이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이며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신세대의 소비 성향이다. 소비자 교육을 통해 이같은 무분별한 상업 지향적인 소비 풍토도 개선해야 한다.

이 밖에 독버섯처럼 확산되어 가는 다단계 판매도 합리적인 소비자 교육의 대상이다. 즉, 다단계 마케팅은 근본적으로 하위 회원들의 노력으로 상위 회원들이 돈을 버는 비도덕적 상술이며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건전한 상거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건전한 상거래를 타파하는 많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동구매도 훌륭한 소비교육의 방안이다.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부모와 자녀가 '공동 부담' 하는 방안도 좋은 소비자 교육의 방안이다. 왜냐하면 아이와 함께 물건을 사면서 기회비용(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가치)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

---

57) [www.practicalmoneyskills.com](http://www.practicalmoneyskills.com)(비자가드)에서 자녀 경제교육은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다.

1. 각각의 동전과 지폐의 가치를 가르친 뒤 물건을 살 때 자녀가 직접 돈을 내도록 한다.
2. 돈은 은행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번 돈을 맡긴 뒤 찾아 쓴다는 점을 알려준다.
3. 자녀가 돈의 가치와 간단한 셈을 할 줄 알게 되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기 시작한다.
4. 자녀가 원하는 물건이 생기면 그 사진을 저금통에 붙인 뒤 용돈을 모아 사도록 이끌어라
5. 자녀가 돈을 모으면 은행에 함께 가 첫 통장을 만든 뒤 이자가 붙는 원리를 알려준다.
6. 현란한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실례를 통해 설명한다.
7. 물건을 살 때는 경품이 아니라 가격과 품질이 자기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다.
8. 가게마다 값이 다른데다 세일 등 같은 물건도 싸게 사는 여러 방법이 있음을 보여 주라.
9. 자녀가 뭔가 사달라고 조르면 꼭 필요한지, 그냥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해라.
10. 휴가를 떠나기 전 자녀에게 하루 얼마씩 '휴가예산' 을 주고 알아서 쓰게 한다.

이다. 또한 집안 형편을 자녀에게 알려줘 한 구성원으로서 재정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처럼 부모, 특히 엄마가 스스로 합리적·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자녀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게 가정교육의 기본이다.<sup>57)</sup>

소비자는 안전의 권리와 알아야 할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선택의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하지 않고 근검절약하려면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 (4) 노사(勞使)의 경제교육

경제 주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영주와 근로자에 대한 경제교육의 부재는 노사관계 악화와 부의 편중으로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일구는 경영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여길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의 경영철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같은 경영철학은 어렸을 때부터 실시되는 경제교육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훌륭한 기업가 정신은 평화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부의 사회 환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직무능력도 중요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직업윤리를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자와 선진국 근로자의 근무 강도를 비

교하면 직원들에 대한 경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또 기업주는 '고객은 왕'이라는 개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제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와 근로자, 기업주에 대한 경제교육은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 신뢰를 조성해야 한다.

#### 4. 최근 경제교육의 동향

최근 신용카드의 남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즉, 소비자 금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언론기관을 비롯, 금융관련 유관단체들이 경제교육에 적극적인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경제금융교육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왜냐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간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은 "금융지식은 학생들에게 수학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통해 경제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제교육 비정부기구로는 1919년에 설립된 주니어 어치브먼트(Junior Achievement)와 1949년에 세워진 미국 경제교육협회(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등이며, 이들 단체는 경제교육의 표준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저축교육협의회, 퇴직자협회, 여성을 위한 금융교육연구소 등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이들 단체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투자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교재를 개발, 보급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교사들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1973년 설립된 NICE(National Institute for Consumer Education)는 초·중·고 교사들에게 금융소비자 교육용 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을 제공했다. 이들 비정부기구와 더불어 뉴욕증권거래소, 전미 증권업협회, 나스닥 주식시장 등의 관련 단체들도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등과 제휴를 통해 교사들을 위한 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은 지난해 재무부 내에 경제교육실을 따로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경제교육'에 역점을 두는 것은 모든 국민이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는 데 필수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은 미국과 달리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서 교육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6월 제정된 '금융서비스 시장법'에 의해 법적 권한이 부여된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 금융서비스기구)의 활동이 그 단적인 예다.

FSA의 설립 목적은 첫째, 영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유지, 둘째 금융시스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증진, 셋째 소비자 보호, 넷째 금융범죄 억제 등이다. 특히 FSA에는 소비자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소비자교육 서비스국이 있는데, 이곳은 금융에 대한 무지를 퇴치하기 위한 교육과 금융소비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돈의 성질과 이용 방법, 위험과 보상의 상호관계, 그리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도 최근 3~4년 전부터 투자교육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상했다. 일본 정부나 금융기관은 그동안 투자교육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국민들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등에 가서 저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금융 빅뱅'이 시작되자 인식이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빚은 개인의 부채로 인식,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자나 자산관리분야의 교육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한국도 최근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CF를 방영했던 적도 있다. 또 경북 도교육청은 2003년 3월 23일 금요일, 경산지동차고, 구미전자공고, 안동공고, 동산여전산고 등 5개 학교를 '비즈쿨(BizCool)'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비즈쿨'은 청소년들에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키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비즈니스 분야를 포함시킨 것을 말한다. 시범학교들은 1년 동안 초·중·고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학생들이 관심분야 직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자질 계발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전문 교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비즈쿨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를 활용, 실제 경험과 성공 사례, 전문 지식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계획이다.

## 5. 바람직한 경제교육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하며 일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동이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경제를 벗어나 생존할 수 없다. 즉 사람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경제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물론 국가도 한순간 경제행위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도 대외 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개방경제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1세기에는 어떤 국가도 자의든 타의든 개방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준비하지 않고 개방화를 추진할 경우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이는 한국 경제가 1997년 IMF 사태를 겪었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문민의 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외환자유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 외환부족 사태에 따른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따라서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하려면 문민정부가 역동적으로 추진했던 세계화가 왜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경제교육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첫째, 한국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마디로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



으려면 한국 경제는 개방시스템(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의 힘이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시장의 힘이 작동하면 경쟁력 있는 곳은 더 강해질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곳은 시장의 힘에 의해 도태될 것이다.

개인과 기업, 국가의 국제 경쟁력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가져오지만 한편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경우 정부는 '가진 자'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은 겉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시장경제를 철저히 통제하는 등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줬다. 예를 들면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뒷돈'을 챙겨주는 업체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정권의 눈밖에 난 업체는 강제로 해체해 버리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소위 시장을 통제, '검은 돈'을 조달하는 '정경유착'의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도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잘 보인 기업주'에게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가는 매정하게 매장해 버리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던 것이다. 국민의 정부도 한때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개혁했다고 선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경유착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통령의 두 아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비극을 초래했다. 이는 권력이 시장경제를 통제하는 '초법적 존재'로 행세했기 때문에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가 만연될 수밖에 없고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경제 주체들이 경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가치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주체에 대한 가치교육 또는 경제교육이 꼭 필요하다. 만약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이 없다면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시장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가와 근로자들이 자기 맘대로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질주하면 좌충우돌하면서 난장판(교통사고)으로 변할 것이며, 결국 도로(사회 질서)는 마비될 것이다. 이같은 무법천지를 막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단속을 벌여도 한계는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통질서를 지키려는 운전사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백화점에서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상도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며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팔고 사는 데도 '물'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경제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물'이 시장의 질서이다. 이러한 시장질서에는 행동규칙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유재산권 존중 모럴'과 약속과 계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원칙' 등이다. 한마디로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재산을 함부로 이전할 수 없다는 원칙, 거짓과 사기행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이 경제 주체들이 행동하는 규칙에 해당된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일을 통하여 관계를 맺으며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시장 모럴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제

정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과정 속에서 시행과 착오를 거쳐 형성된 것이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돈을 절제하는 경제교육을 받았더라면 장성하여서도 돈을 아끼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기업가에 대한 청교도적인 윤리교육을 했다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른바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경영인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경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많은 청백리(淸白吏)를 배출했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그릇된 소비의식을 바로잡는 방법도 오로지 경제교육이다. 최근 들어 카드 빚을 갚기 위한 살인사건 등이 잇따른 것도 소비자들이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한 탓이다. 또 일부 몰지각한 소비자들이 외제라면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그릇된 소비의식이 IMF를 초래한 원인이다. 국산은 무조건 형편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특히 '외제=명품'으로 인식, 외국 제품으로 몸을 감싸고 다니는 족속들을 '상류층'으로 대접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했던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떤 돈'에 상관없이 많이 벌어서 자기 맘대로(주로 비생산적인 향락-오락분야) '마음껏' 쓰는 소비풍토가 만연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돈이 되는 것이라면 고가의 외제라도 맹목적으로 수입, 판매하려는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외제로 치장하고 다니면 괜히 우쭐하게 되는 소비자의 그릇된 의식도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는 품질 면에서는 국산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데도 외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리는 아주 잘못된 풍토가 조성되어 있다. 이처럼 잘못된 소비문화 등을 교정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

#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 4



한국 경제가 ‘글로벌’과 ‘디지털’로 상징되는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도 독창적인 생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에 맞는 ‘경제발전 모형’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경제발전 모형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개방화 시대에 맞는 ‘상인정신(商道)’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교육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다. 즉, 경제 주체들이 서로를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상인문화가 형성되어야만 개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가 발전하려면 경제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정신과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문화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한국 고유의 상인정신과 문화를 철저히 외면하고 선진 외국에서 유행하는 경제이론 또는 비즈니스 모형 등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외국에서 유행하는 경제이론과 경제연구방법론 등을 도입, 한국 기업 현장에 적용해 보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이는 한국 경제를 책임

지고 있는 경제 주체의 정신과 문화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 과 '인프라 구축' 등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도 한민족의 의식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상인문화' 와 '상인정신' 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해외 진출(무역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인의 정서와 의식에 맞는 경제교육의 모형으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을 제안했다. 이 아카데미는 무역진흥을 통한 국가발전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개방화 시대에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경제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장보고 대사가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 중개무역을 독점했던 비결을 오늘에 재연하는 측면에서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지렛대로 삼자는 것이다.

## 1. 한국 경제교육의 원형과 사이버 교육현황

### (1) 한국 경제교육의 원형

한국인의 의식에 맞는 경제교육의 원형은 무엇일까? 이 점은 한민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한민족이 삼국시대(서기 53년) 이후부터 단일민족으로 형성하면서 간직해 온 '가족주의적인 신념구조'<sup>58)</sup>에 주목했다. 이 신념구조는 조상숭배사상에 기초를 하



고 있다. 조상숭배사상은 무속신앙에서 기인한다. 무속신앙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관혼상제의 절차를 축소해 놓은 것으로 이해된다. 즉,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악귀(惡鬼)가 되며 결혼을 하여서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무자귀신(無子鬼神)이라는 불쌍한 귀신이 된다. 죽은 사람은 자식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식구조이다. 굿은 경제적인 투자인 동시에, 죽은 사람의 행복에 대한 수단이 된다.<sup>59)</sup>

이처럼 조상숭배사상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손들에게 계승되고 있다. 가정은 인간의 집단으로서 가장 결합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가족 구성원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의지하는 등 똘똘 뭉치는 괴력을 발휘했다. 한국이 수많은 외침의 시련과 국내의 정변 속에도 굴하지 않았던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미덕의 원천이라고 했다. 효(孝)는 가족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윤리체계이다. 부자와 부부, 형제애를 기반으로 하는 예(禮)는 가정 예절의 핵심이다. 가정이라는 것은 경제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 부자와 그들을 둘러싼 가까운 혈연을 중심으로 한 혈연집단을 말한다.<sup>60)</sup>

한마디로 한국의 경제관은 효를 기반으로 하는 ‘혈연중심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혈연에 의한 가정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 경제교육의 원형이다. 가족주의적인 경제공동체

58) 尹泰林(1984),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현암사〉, p.27.

59) 李氣乙(1988), 《민족문화와 한국적 경영학》, 〈법문사〉, p.68.

60) 한우근(1996),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p.275.

문화가 가장 잘 반영된 상인문화가 바로 장보고 청해진 대사의 대외 지향적인 개방정신과 보부상의 행상(行商)문화라는 것이다. 보부상단은 가족처럼 상부상조하며 협동심이 유달리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동료 중에 병자나 사망자가 생기면 가족처럼 돌보아 주고 사망자는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다. 또한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여 도산의 위기에 놓이면 자본을 빌려줘 재기의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보부상은 상하 서열을 엄격히 지켰으며 웃어른을 자신의 부모와 같이 생각하였던 것이다. 또 동료 사이의 신의(信義) 역시 돈독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보고 상인정신과 보부상이라는 행상문화에는 21세기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성공 비결이 있음을 앞서 밝혔다. 즉 장보고 대사의 개방화정신과 행상문화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서는 한국의 고유 상인(기업가)정신과 상업문화, 경제윤리 등을 갖고 있어야만 21세기의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교육의 원형도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정립된 한국 고유의 상인문화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고유의 상인정신과 경제교육의 원형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제기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보고 사이버 국제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사이버 교육을 활용하자는 측면이다. 흔히 오늘날을 '온라인 시대' 또는 '사이버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interactive communication)이 가능한 교육시스템이다. 또한 사이버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와 다양한 학습 방법 개발로 사이버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도 사이버무역 분야를 개척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e러닝(Learning) 등 사이버 교육 방법을 활용,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을 시키자는 것이다.

둘째,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교육 내용은 사이버무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무역실무능력 제고는 물론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장보고 대사의 상인 정신과 디지털 경제특성을 갖고 있는 행상의 상인문화를 계승하는 측면에서 커리큘럼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보고 대사의 '무역을 통한 국부 창출 정신' 과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상(보부상) 문화' 를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장보고의 상인정신과 행상문화를 전국민에게 온라인으로 학습시키는 등 '한국 경제교육의 원형' 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원형은 자손들에게 대(代)가 계승되면서도 변질 되지 않는 불멸의 신념구조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경제교육의 원형은 효(孝)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공동체' 를 추구하는 상인정신과 상인문화를 정립시키자는 것이다.

셋째, 경제교육도 개방화, 국제화, 자유화를 추구하는 오늘날 시

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폐쇄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개인과 가정은 물론 정부 또한 대외 지향적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어차피 이 시대의 조류가 개방화·세계화 추세라면 마지못해 개방할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단계별(준비된) 개방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도 국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인가. 지하 자원이 없으며 자본력도 빈약하고 기술과 정보력도 형편이 없는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제무역 분야이다. 특히 사이버무역 분야가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는 '성장엔진'에 해당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해상왕 장보고의 후예를 많이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냐하면 사이버무역에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역 분야만큼 인터넷 또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드물기 때문이다.

## (2) 사이버교육 현황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의 보급 확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으로 최근 각광받고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나이와 직업,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데다 첨단 멀티미디어 등의 교육 방법이 제시되면서 사이버교육은 오늘날 한국 경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사이버교육<sup>61)</sup>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 사이버대학과 사이버학원, 사이버교원연수원, 인터넷통신훈련기관, 정부부처의 공무원 훈련 및 기업 연수원의 직원 연수 등에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은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동서사이버대학교, 사이버게임대학교, 새길디지털대학교, 아시아디지털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세민디지털대학, 영진사이버대학 등 15개교이다.

이처럼 사이버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교육은 단시간 내에 급성장한 분야이다. 즉 인터넷 강의로 학사학위는 물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의 신입생 모집 규모는 2003년의 경우 23,850명으로 조사됐다. 이화여대 임병로 교수 등은 '2001년 전국대학의 사이버교육 현황분석'에서 376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중 151곳(40.2%)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4년제 대학은 191곳 중 111곳(58.1%)이, 전문대는 160개 대학 중 33곳(20.6%)이 사이버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1) 통상 사이버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가 1999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원격대학을 시범 및 실험 운영하였고, 2000년 3월 13일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과 더불어 원격대학의 다른 명칭으로 불렸다.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지만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과 동등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는 초고속통신망 구축 후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사이버교육을 e-Learning 산업차원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이버대학, 사이버학원, 사이버교원연수원 등을 통해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고, 노동부는 기업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인터넷통신훈련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사이버교육의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교수들이 강의 내용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74.3%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전국 대학의 40%가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하는 등 '사이버교육'이 일반적인 강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도 활기를 띠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공무원 사이버교육 원년인 2000년에 9개 과정 2,337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나 2003년에는 37개 과정 30,46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사이버교육의 장점은 채팅과 토론이나 퀴즈 평가가 많고 과제물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게다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각 교육훈련기관들은 강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등록금도 사립대학교의 30% 수준이다. 이런 이점 때문에 사이버교육의 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교육의 시장규모는 2002년 1조 7천억 원, 2003년에는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게임산업(2000년, 8,300억 원), 영화산업(2000년, 3,300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향후 32.5%의 고도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62)</sup>

이처럼 한국에서 사이버 교육이 활기를 띠는 것은 사이버교육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정보통신기술의 인프라 구축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교육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새로운 학습을 필요로 하

---

62) 산업자원부, <e-Learning 산업 활성화 방안>, 인적자원개발실무조정회의 자료, 2002년 5월 24일

거나, 재학습 기회를 원하는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독특한 온라인 학습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격대학을 위한 정부 육성-지원 모델은 세계적으로 홍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sup>63)</sup>

## 2. 글로벌 시대의 도래와 사이버무역

한국 경제는 그동안 경공업(60년대)과 중공업(70~80년대), 정보통신산업(90년대) 등을 근간으로 하여 연평균 7.4%의 고도 압축성장을 이룩했다.<sup>64)</sup> 그러나 지난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달성한 이후 8년 동안 1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경제가 수출 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과 중국의 급부상이다. 따라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이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5~10년간 우리 경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이버교육(온라인 경제교육)을 활용한 사이버무역상을 양성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즉,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 전국민이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63) 《사이버대학 모니터링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2), p.199.

64) 《IT신성장동력 발전전략 보고서》, 정보통신부(2003), p.2.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먹거리' 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 주체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떤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는 생산-소비 시스템' 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글로벌 시대 도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자유무역 원칙을 내건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명제와 결부되어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sup>65)</sup> 한마디로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상거래도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무역체제의 기반이 되는 자유무역과 전자상거래는 개방화·자유화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안고 있다.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자유화·개방화를 모토로 한 범세계주의를 형성시켰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체제도 미국의 입김에 따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우루과이라운드(UR)를 거치면서 WTO체제를 태동시켰다. 이처럼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자유세계 경제운용의 지도이념으로 글로벌리즘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에 맞서 유럽은 '유럽은 하나' 라는 지역주의를 내세워 지역경제 통합체를 구축했다. 지역경제통합체의 구성은 1960년대 중반 이후

---

65) 이범걸(2001), <사이버무역의 현황과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 8권》, p 45.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하고 유럽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가 다극화체제로 재편되는 틈바구니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호무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다만 지역경제통합체는 지역경제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경제통합<sup>66)</sup>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대등한 지위에 경제적 이익을 공동 축으로 결성하여 회원국이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않는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자는 것이다.

얀 틴베르헨(J.Tinbergen)에 따르면 “경제통합이란 경제의 최적 활동을 저해하는 인위적 장애를 제거하여 조정(coordination)과 통일(unification)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의식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국제 경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경제통합은 역내 가맹국간에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에서 자유무역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간 시장 확대 조치이다. 또 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규모의 경제)과 자유무역의 이익(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이상주의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sup>67)</sup>

이런 와중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모든 관세를 없애자는 ‘인터넷 자유무역론’이 미국의 주도로 급진전되면서 ‘신 무역라운드’가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이에 동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유럽 각국도 국경 없는 인터넷 상거래 시장을 선점

---

66) 폴 호프만은 1949년 10월 31일 OEEC의 연설에서 경제통합(economic intergration)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67) 출처, 《장보고를 알면 세계가 열린다》, <도서출판 한눈>, p291.

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무관세·전자지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는 것이다.

신무역라운드는 우선 인터넷으로 거래가 완결되는 소프트웨어(게임물, 영상물 포함)에 대한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실물이 오가는 모든 인터넷 거래에 이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인터넷 상거래를 시작했으며 현재 수십만 개의 쇼핑물을 개설하는 등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세계경제체제가 자유화, 국제화, 개방화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리즘과 역내(域內)국가끼리 자본과 기술, 자원, 노동력, 제품 등 경제요소를 나누가지며 상호 협력하는 지역경제통합체로 대립되면서 오히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간 연결이라는 인터넷의 개방성 때문에 전자상거래(사이버무역)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기업, 학계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WTO, OECD 등의 국제기구들도 전자상거래의 국제 규범화와 관련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무역센터협회(WTCA: World Trade Centers Association)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인포메이션 서비스(GELS)의 전자사서함을 이용하여 세계무역센터협회 네트워크 인터넷 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sup>68)</sup>

세계무역의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정보의 지배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인터넷에 홈페이지와 가상 상점(Virtual Shopping Mall)을 개설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협의의 전자상거래<sup>69)</sup> 또는 인터넷 상거래라고 한다. 이처럼 전자상거래(EC : Electronic Commerce)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기업과 같은 독립된 조직 사이에, 또는 조직과 개인간에 EDI, CALS(Commerce At Light Speed), 인터넷 등 다양한 전자 매체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인터넷 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68) 사이버무역은 인터넷무역 또는 전자무역으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무역 업무에 인터넷과 무역 자동화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도입하는 것을 사이버무역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요즘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자 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는 단순히 EDI가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의 추진 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디지털 통신망으로 자동처리하게 하는 것이며, 소위 말하는 칼스(CALS)의 개념이 포함된 총체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전자무역', '사이버무역' 그리고 인터넷무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69)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라고 정의하였고 2000년 1월 고시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서도 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나 정부의 정책에서도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도 '전자상거래'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전통적인 상거래는 국가 간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지리적인 제약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인터넷을 이용하면 24시간 내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상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상거래의 대상에는 유형의 재화(physical goods or tangible goods)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쇄물, 음악, 영상오락물, 정보서비스, 전문 컨설팅, 금융서비스, 교육, 광고 등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가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산업이나 무역뿐만 아니라 기업 및 소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인터넷 사용자 수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 상거래의 시장규모는 1996년 약 5억 달러에서 1997년에는 약 12억 달러로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에는 약 66억 달러에 달했다.

자료원 : 한국경제신문 1997. 8. 12.

| 구분       | 인터넷 상거래                                   | 전통적인 상거래                  |
|----------|---|---------------------------|
| 유통 채널    | 기업 ↔ 소비자                                  | 기업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 거래 대상 지역 | 전세계 Global Marketing                      | 일부 지역 Closed "club"       |
| 거래 시간    | 24시간                                      | 제약된 영업시간                  |
| 고객 수요 파악 |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br>재입력이 필요없는 Digital Data     | 영업사원이 획득<br>정보 재입력 필요     |
| 마케팅활동    | 쌍방향 통신을 통한 1 대 1<br>Interactive Marketing |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이<br>일반적인 마케팅 |
| 고객 대응    | Needs를 신속히 포착, 즉시 대응<br>고객만족              | Needs 포착이 어렵고<br>대응 지연    |
| 판매 거점    | Cyberspace                                | 판매 공간 필요                  |

〈표 4-1〉 인터넷 상거래와 전통적인 상거래 비교

자료원 : Killen & associates / 단위 : 백만 달러

| 거래 방식     | 1994년     | 2000년     | 2005년      |
|-----------|-----------|-----------|------------|
| 전통적 방식    | 5,150,000 | 8,500,000 | 12,000,000 |
| 인터넷       | —         | 600,000   | 1,200,000  |
| 전자상거래 총규모 | 245       | 1,650,000 | 2,950,000  |

〈표 4-2〉 전세계의 거래 방식에 따른 거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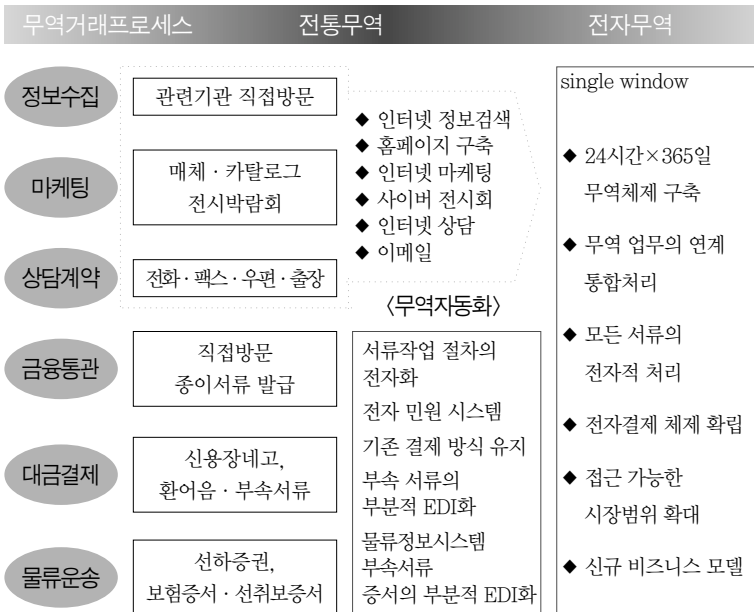
〈표 4-2〉는 전세계의 거래방식에 따른 거래 규모를 나타내 주고 있다. 전체 상품의 거래 규모에서 인터넷 상거래를 통한 거래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4년에는 0.005%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0년에는 19.7%로 증가됐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잠재성 가능성을 주목한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98년 4월 발표된 미 상무성 보고서인 ‘떠오르는 디지털경제 (Emerging digital economy)’에서 다시 한 번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 사이버무역의 개념은 무엇인가?

사이버무역이란 “시장조사, 마케팅, 통관, 결제 등 무역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역의 흐름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무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이버무역은 국가간 B2B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인터넷(사이버무역) 무역은 먼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알선 관계를 성립시키고, 그 후에 발생하는 대금 결제와 선적, 보험 그리고 통관에 관한 절차는 EDI가 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총괄적 의미로

사용된다.<sup>70)</sup> 따라서 무역 업무에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액 거래에 한해서는 신용장 발행, 수출입 신청과 승인, 보험증권 발행 등 복잡한 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림 4-3>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이버무역(internet Trade)과 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의 관계이다. 사이버무역은 “인터넷을 이용한 재화와 용역의 국제간 거래”라고 한다면 전자무역은 인터넷무역의 확장된 개념이다. 즉 “인터넷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른 전자문서) 등 컴퓨터와 모든 통신망을 통한 국제간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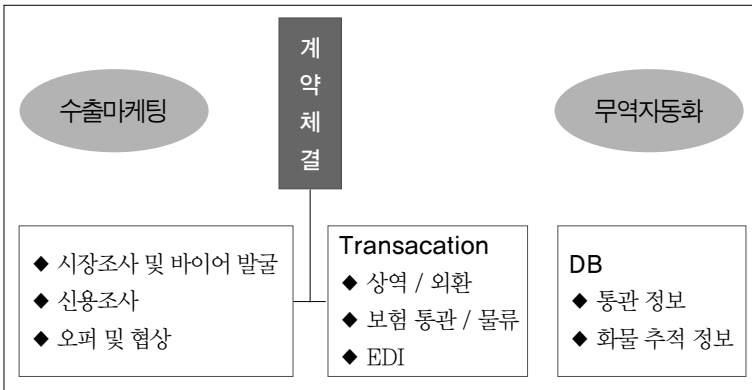


〈그림 4-3〉 전통무역과 전자무역의 차이점

70) 김영락 · 김대중 공저(2000), 《인터넷무역 실무》, 21세기북스, p. 21.

서는 인터넷무역과 전자무역을 포괄하는 개념에 대해 ‘사이버무역’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사이버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크게 서비스이동, 서류이동, 물류이동 등 3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림 4-4>, 즉 서비스이동이란 무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의 도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서류의 이동이란, 계약과 동시에 계약서의 이동과 관련 서류의 주고받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물류이동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 스케줄링, B/L 등을 처리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세 가지 서비스의 흐름이 사이버무역의 프레임이다. 따라서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는 소호(SOHO)창업이자 소자본 창업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즉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도 인터넷 전용선을 사용하여 신속한 서류이동,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4> 사이버무역의 구성도<sup>71)</sup>

71) 한학회, <사이버무역의 현황과 전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제23회 학술회의 세미나, 2000, 12, 18.

그러면 사이버무역의 특징과 장점은<sup>72)</sup>은 무엇인가.

첫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가만히 집에 앉아서 세계 곳곳에 있는 바이어와 상담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는 전문 정보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특정상품을 어떤 나라의 어떤 기업이 공급하고 있는지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제품을 소개하는 문서는 물론 그림 및 음성, 동화상 등으로 제작된 홍보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모든 바이어에게 보낼 수 있다.

그동안 거래처를 발굴하려면 기존에는 다른 나라의 거래알선 기관에 직접 찾아가 정보를 얻거나 각국에서 발행되는 무역업체 총람 또는 제조업체 총람, 그리고 기업 연감 등 인쇄물을 구입하거나 무역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또는 국제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참가해야만 했다. 그러나 사이버무역에서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 거래처의 발굴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무역의 특징은 인터넷을 이용해 거래 상대방과 접촉함으로써 상대방이 있는 국가는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공간적인 제약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 획득과 신규 거래처의 발굴이 용이하다. 인터넷에서는 각국 정부와 무역 유관기관 그리고 개별기업들이 올려놓은 무역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시장과 지역에 관한 정보는 세계은행([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세계무역기구([www.wto.org](http://www.wto.org)), 경제협력개발기구([www.oecd.org](http://www.oecd.org))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웹사이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정

---

72) *ibid.*, 〈사이버무역의 현황과 전망〉, p.48.



보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인 미국 통계청의 NTDB([www.stat-usa.gov](http://www.stat-usa.gov))는 105개 분야에 대한 무역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정보는 대표적 기업정보인 트레이드 컴패스(Trade compass)를 비롯하여 유럽 25개 국가 약 15만 개의 기업정보를 업체명, 서비스 또는 상품별로 검색하는 유로페이지([www.europages.com](http://www.europages.com))와 사이버코엑스([www.cybercoex.com](http://www.cybercoex.com)) 등이 있다. 거래알선 정보를 수집하려면 실크로드21(산업자원부 통합망, 수출입거래알선 종합사이트),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거래알선 사이트([www.kotis.net](http://www.kotis.net)) 등을 활용하면 신규 거래처를 쉽게 발굴할 수 있다.

셋째,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신-무역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절감된다. 사이버무역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할 수 있다. 또 수출입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전자문서교환(EDI)에 의해서 통합·유통되어 가고 있다. 이 밖에 해외 바이어와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보내려면 통신료가 거의 들지 않는 인터넷 폰이나 인터넷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제통신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넷째, 전자 화폐에 의한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결제방식인 신용장은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그 존립기반이 점차 위축되어 갈 전망이다. 최근 들어 세계 유수의 신용카드회사들이 컴퓨터 통신업체들과 공동으로 인터넷 상거래 표준안인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를 개발, 상용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신용장은 유명 무실해졌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고객의 전용 소프트웨어로 암호화하고 고객이 이 정보를 입력하면 판매자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카드 발행회사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범위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도 확실한 대금결제가 보장됨으로써 소액거래를 중심으로 국경 없는 인터넷 상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섯째, 인터넷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국제운송물류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이다. 즉 주문과 동시에 상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현지 생산, 현지 보관, 현지 배달이라는 상품배송 시스템과 함께 수송 시스템이 구축될 수밖에 없다. 당초 국제간 서류배송물량이 팩스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소액물품 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상품배송이 확대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섯째, 중소기업에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에 마련된 사이버 시장에서 누구든지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강한 개인이나 중소기업도 초국가적·다국적 기업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즉 기업의 규모나 인지도보다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일곱째, 기업 활동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인하된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의 홍보책자나 전단을 만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무역은 매장이 필요 없으며, 물류·홍보·판매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무역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소기업들이 취약한 홍보와 마케팅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제거래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제간 거래에서도 전통적인 무역 거래 방식에서 국제전자무역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가 설립된다면 사이버교육을 활용해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사이버무역상을 양성할 수 있다.

### (3) 사이버무역의 실태

사이버무역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기본요건<sup>73)</sup>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기본요건으로는 첫째, 경영전략 차원에서 인터넷 활용전략 및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망을 확보하고 홈페이지를 개발하며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사이버무역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과 효과적인 주문처리, 고객관리 및 대금결제 등 내부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사내에 사이버무역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거래선 발굴과 각종 무역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와 검색엔진, 유즈넷 등에 등록하거나 명암, 서류, 홍보물 등에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기재하는

---

73)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 참조

등 적극적인 인터넷마케팅과 웹 프로모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무역을 이용하는 업체는 얼마나 될까? 조사 대상 업체<sup>74)</sup> 중 인터넷(EDI)을 자사제품 홍보·거래선 발굴과 오피 및 거래협상 등 각종 무역업무에 이용하는 비율이 51.8%로 분석됐다. 중소기업(51.6%)도 사이버무역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대기업(53.3%)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사이버무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자사제품 홍보와 거래선 발굴, 오피 및 거래협상 등 각종 무역업무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무역업계의 사이버무역 도입 확대와 수출비중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조사보고서에는 무역업계가 사이버무역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해외시장 개척 효과'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출업무 신속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과 '광고비 절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버무역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출단계는 '해외거래선 발굴'과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자사제품의 해외홍보' 등 주로 시장개척과 마케팅 단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무역업체가 향후 10명의 무역인력을 채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4.5명을 사이버무역 전문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이었다. 반면 사이버무역의 애로점은 '대금결제'와 '물류·유통', '신용조회', '거래계약 체결'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인증제도의 미비와 신용조사에 대한 공신력 부족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

74)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33개 업종 8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사이버무역에 관한 무역업계 실태조사 참조.

사스(SAR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사이  
 버 수출이 올 들어 부쩍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sup>75)</sup>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인터넷 중소기  
 업관(www.koreasme.org)을 통해 사이버 수출에 성공한 업체는 총  
 194개사. 수출실적은 4,969만 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81%,  
 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사스 발생  
 지역이었던 중국과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  
 1~5월 동남아시아 온라인 수출은 1,1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에 비해 174%나 증가했으며, 중국 수출도 485만 달러로 22% 늘었  
 다. 이처럼 사스 영향으로 사이버무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  
 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자무역의 활용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다.<sup>76)</sup>

그러나 사스가 장기화되면서 해외 전시회 참가 20회와 시장개척단  
 파견 19회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수출 마케팅에 심각한 지장을 주  
 고 있다. KOTRA의 집계에 따르면 사스로 인한 수출마케팅 차질은  
 대략 23억 3천 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대면적 수출 마케팅  
 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마케팅이 활발해  
 지면서 사이버무역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75) 세계일보, 2003년 6월 25일 32면 참조

76) 한국무역협회가 2,0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무역업계의 전자무역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역 단계별 8개 업무(해외시장정보 수집, 해외홍보·마케팅, 거래선 발굴, 신  
 용조회, 오피 및 거래협상, 계약체결, 대금결제, 통관 및 운송)분야에서 전자무역을 활용한다  
 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평균 23.0%에 그쳐 전자무역 활용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무역업체들이 여전히 웹사이트 등 온라인 접촉보다는 동종업계 및 기존 바이어  
 와의 오프라인 접촉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무역관련 사이트가 세부적인 시장 및 품목정보를 제  
 대로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래알선 사이트의 신뢰성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사이버무역의 성장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이버무역의 성장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생산요소와 소비수요의 글로벌화가 확산되면서 경영환경, 기업시스템, 거래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sup>77)</sup>

즉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가 촉진되면서 B2B, B2C, B2G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사이버무역의 미래도 밝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제무역의 거래결제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카드결제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돼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무역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완성이 뛰어난 전자화폐 개발과 세계적인 상거래 통일 규범화,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 (4) 사이버무역 상인 양성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부존자원이 빈약한 관계로 외국의 자원을 수입,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물품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국부를 축적하는 국가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즉,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다. 이는 세계화-개방화로 표상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다국적 글로벌 인재양성에 사활을 걸고

---

77) 월간 전경련 2003년 5월호에 김영수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기고문 참조.

있다. 즉 국내외 주요 대기업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채용과 양성에 비상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0대 그룹들이 2003년 들어오면서 찾고 있는 글로벌 인재는 명문 MBA 출신에다 다국적기업 경력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연봉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다.

삼성그룹은 현재 3,500명인 국외 석·박사 인력을 올해 말까지 4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 MBA 출신도 지난해 160명에서 올해는 250명으로 늘려 채용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S급' 핵심인력만 400여 명에 달한다. 삼성은 또 외국지역 전문가와 외국 MBA, 각종 직능 연수 등 매년 350여 명을 선발해 실시 중인 국외연수 인력 규모도 1,000명 수준으로 2~3배 늘리기로 했다.

LG그룹도 2003년 상반기 100여 명의 외국 MBA 취득자와 R&D 부문 석·박사를 채용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모두 300여 명을 외국에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2년 9,10월에도 미주지역을 돌며 '핵심인재' 유치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LG전자도 '디지털 리더 캠프'란 명칭으로 지난 5월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인턴사원 채용도 국외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SK그룹은 아예 '현지채용인'이나 파견근로자 등 지역색을 나타내는 용어를 없앴다. 국내외 모든 직원들에 대해 '글로벌 스텝'이란 말을 사용한다. SK는 올해 40여 명의 MBA 출신을 비롯, 모두 200여 명의 고급인력을 외국에서 채용기로 했다.

이 밖에 현대차 그룹도 최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 인사팀 합동으로 미국 20여 개 대학을 순회하며 석·박사급 교포 유학생과 면접을 실시했다. 매년 100명 내외를 뽑는 이같은

해외 인력채용설명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도 국내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채용키로 하고 7월 초 영어 능력 우수자, 중국지역 전문가, MBA 취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를 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는 대기업의 총수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다. 그는 1990년부터 지역전문가제도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2,500명을 양성했다.<sup>78)</sup>

이 회장은 “글로벌 인력은 최고경영층이 직접 관리해서 우수인력이 강제로라도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래의 핵심인력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영은 국내에서도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국내 삼성 사업장에는 외국인 우수인력이 500명 가량 있는데 이들 중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나올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은 또 21세기 경영자의 모습으로 글로벌 마인드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변화에 대한 통찰력과 직관으로 기회를 선점하는 전략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변화추구형이어야 해요. 또 경영자 스스로가 고부가가치 정보의 수신자 발신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국제적 감각은 필수요건이지요.”

글로벌 인재육성에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사이버무역을 양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무역은 급신장을 보이고

---

78) 동아일보, 2003년 6월 30일, '인간포석 인사의 세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참조.



있으나 인력양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실사결과, 사이버무역 인력은 2002년 3만 명, 2003년 4만 5천 명, 2004년 6만 7천 명 등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자원부는 2004년까지 총 7만여 명의 사이버무역 인력이 필요하지만 낙후된 교육방식 때문에 4만 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사이버무역 인력의 부족은 수출경쟁력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대학과 전문대학에 사이버무역학부나 학과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경희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배화여자대학, 천안외국어대학교 등은 기존 무역학과를 사이버무역학과로 변경하였다. 즉 전문대학에는 '사이버무역 실무 전공과정'을, 대학에는 '사이버무역(상학)과' 또는 '사이버 경영학과'를, 기존 국제대학원에는 직장인 대상 '사이버 MBA 과정'이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대학인 서울디지털대학교 등에 사이버무역학과가 신설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밖에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이버무역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도 무역업과 금융업, 운송, 보험, 물류 등 다양하다

그러면 사이버무역 상인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사이버무역상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무역실무 및 어학능력이 요구된다. 즉, 사이버스페이스(가상세계)를 넘나들며 외국 바이어들과 만나려면 관련 쇼핑물을 뒤져 바이어들과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요령은 필수조건이다. 또한 무역거래에 대한 기초지식과 물건을 고르는 안목, 바이어에 대해 친절해야 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통할 정도로 신용과 인내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와 자유자재로 의사소통할 정도로 해당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이버무역 상인은 대학에서 영문학과 등 외국어 문학과 또는 영어학과 등 어학과나 무역학과, 인터넷 관련학과 내지는 컴퓨터학과 등을 재학 또는 졸업한 학생들이 적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이버무역 상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상은 재외동포들이다. 왜냐하면 재외동포는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관행은 물론 그 나라의 국민적인 특성을 몸소 체휟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재외동포에게 정보기술(IT) 및 한국 고유의 상인정신과 상인문화를 심어주면 이들이 훌륭한 사이버무역 상인으로 양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를 사이버무역 상인으로 양성해 국가발전의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화시대의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역 분야에서 본국과 재외동포가 온라인상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화의 침병인 재외동포가 전 세계 142개국 등에 600만 명 이상이 정착하고 있는 등 해외에 훌륭한 인적 자산을 갖고 있다. 이들이 20세기 초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조국을 등지고 피나리붓짐을 진 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지 1백 년이 흐르고 있다. 이들은 정부 또는 기업의 지원도 없이 온갖 설움과 외로움을 맨몸으로 견디며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맨 땅을 일궈내는 등 억척스럽게 살았다. 이들 대부분은 이민족의 텃세와 배척, 참기 힘든 질시를 받아가면서 뿌리를 내렸다. 이민국의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근면과 성실로 생업의 터전을 마련했다. 특히 해외 한인들은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면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간승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인적 자산이 해외 도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재외동포를 네트워크만 하면 훌륭한 사이버무역상을 일거에 확보한 셈이 된다.

최근에 이들 해외동포를 하나의 끈으로 묶는 '한민족경제권'을 구축하자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 즉 국내 기업과 해외동포들을 묶어 상품과 무역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범세계 한인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게 한민족경제권의 취지이다. 따라서 이들 재외동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국내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의 경제효과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수지만을 따지면 해외 동포들은 모국 상품을 사가는 중요한 바이어이다. 또 모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소중한 지원자 노릇을 해내고 있다. 특히 현지의 최신 소비경향이나 유통체계에 대한 생생하고 밀착된 각종 정보를 모국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무역외수지나 이전수지에도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대외거래 활동에 수반되는 운수나 보험 등 대외 서비스에서도 모국 기업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서 습득한 기술을 모국에 이전하는 효과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수지에서 이전수지에 해당하는 개인 송금액은 1982년 3억4천만 달러였으나 1995년에는 22억 1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게다가 빈번한 모국 방문은 여행수지 개선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해외동포의 모국 방문자는 올림픽 이후인 1989년부터 급증해 연간 3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이들이 지출하는 여행경비만 해도 연간 1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밖에 재미동포와 재일동포의 모국 투자건수는 각각 177건, 176건 등 총 380건에 이르고 있다(1996년 5월 말 현재). 또한 해외 한인은 우리나라의 생활문화와 전통문화를 주재국에 소개하는 문정관(文政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한인은 모국에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없는데다 대외 의존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무역을 통해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재외동포를 사이버무역상으로 양성할 경우 사이버무역의 시장 잠재력은 크다.

### 3.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

21세기는 교역과 무역의 시대이다. 국경(border)·경계(boundary)·장벽(barrier) 등 3Bs를 초월하는 시대이다. 왜냐하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그야말로 좁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쇼핑을 즐기는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장도 필요 없고 물류비도 기존 무역보다 80% 절감되는 이점이 있다. 반면 소비자는 디지털의 기술 발달에 따라 유통단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을 대상으

로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메리트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규모는 2005년에 2조 9천억 달러로 총 세계 교역량의 20%까지 확대될 것이다.<sup>79)</sup> 이같은 전통적 거래방식인 국제무역 규모는 2005년의 경우 12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으로 21세기 '시장(무역)의 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은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 영화 등 무형재산은 물론 전 세계 물품을 관세 없이 자유롭게 교역하는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주창하고 있다. 즉 국경은 물론 세관도 없는 가상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무관세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간에 이동하는 상품과 자본 등 인적·물적 교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국제무역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교역(전자상거래) 또는 사이버무역은 21세기에서 가장 성장력이 높은 분야로 분류되고 있다.

사이버 국제무역이 각광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세계인구의 증가이다. 세계인구는 1999년 10월에 60억 명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80억 명, 2070년에는 1백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국제연합인구기금(UNPFA)은 예측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하지만 경제활동을 구매력으로 평가할 경우 세계경제의 45%에 해당되는 제 3세계 인구가 절대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부상할 경우 자연스럽게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는 결국 '사이버 국제무역'이 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사이버무역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점 때문이다.

---

79) 일본무역진흥회가 밝힌 세계무역은 1995년 기준 약 5조 달러에 달했다.

이 밖에 사이버무역이 발전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을 전담하는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회가 1989년에 펴낸 <무역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따르면 1963년에 수출 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무역학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현재 국내 개설학과수로는 무역학과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처럼 무역학과가 짧은 시간에 모집정원이 많은 학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의 무역진흥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무역회사나 무역 유관기관에 많은 무역실무 전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역학과는 엄밀히 따지면 국제무역 실무 전문가나 국제통상전문가 양성이 주목적이다.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분야는 무역업체(종합상사)를 비롯해 금융·해운업·유통업계 등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영문학과, 일문학과, 중문학과, 불문학과, 독문학과는 물론 영어 및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등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과를 졸업하는 인력도 잠재적으로 사이버무역의 교육자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외국어 전공자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전공한 나라에 진출, 정착하려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들 젊은이들이 해외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얼마든지 글로벌 지역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무역을 또는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 (1)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건학이념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건학이념은 한국의 상인정신과 상인문화의 원형인 장보고 대사의 개방정신과 보부상(行商)의 상인정신을 계승 발전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아카데미의 건학이념을 장보고의 상인정신과 해상 문화에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밝혔지만 장보고 대사는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에 이미 당나라와 일본, 신라를 잇는 해상무역을 장악, 고대 동북아 경제권을 구축했던 선각자였다. 따라서 개방화 측면에서 장보고 대사를 한민족의 사표(師表)로 삼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경제·국제적 상황이 '장보고 시대(828~841년)'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즉 장보고 대사가 성공했던 비결을 오늘날에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 대사의 성공비결은 무엇인가?

장보고 대사의 대외 지향적인 개방정신은 오늘날의 자유무역 또는 세계화의 정신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당과 일본을 연계하는 중개무역을 독점했을 뿐 아니라 동남아는 물론 인도와 중동지역 이슬람 상인과 간접적인 교역을 활발히 전개했다.

그는 정부간 공무역이 독점적으로 이뤄졌던 당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대당매물사'의 이름으로 무역선단인 '교관선'을 당에 파견했으며, 일본에는 회역사를 보내는 등 독자적인 민간 교역망을 구축했던 것이다. 또한 장보고 대사는 당과 일본, 신라를 잇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 해상 질서를 장악했던 것이다. 이 밖에 장보고 대사는 주변

국에 흩어져 있던 재당 신라인과 재일 신라인 등 재외동포를 하나의 끈으로 묶는 '신라인 경제공동체' 를 추진했다.

그의 위대한 점은 이처럼 해외동포를 국가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들을 본국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다. 장보고 대사가 재외동포와 연대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질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국가까지도 경제협력을 모색하려면 최소한 한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개방화(세계화) 마인드의 경제교육을 함양하는데 있기 때문에 건학이념을 무엇으로 정립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아카데미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고려, 평생교육의 요람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국제무역을 하려는 해당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시장을 꿰뚫고 있는 베테랑급 국제무역 실무자를 교수로 초빙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사이버무역 상인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추후 이들 사이버무역상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연결, '한민족 사이버무역 네트워크' 를 구축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사이버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건학이념으로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한반도 중심전략' 을 연구, 모색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사이버무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온라인화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경에 맞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2)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 형태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공신력이 있는 사이버무역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면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아니면 특정 법령에 근거한 특수법인이나 정부가 출연금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방안도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 민법 제 72조 항에 따라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 설립할 수 있다. 이때 어느 부처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향후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역'을 전담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에 사단법인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무역을 지원하는 산업자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부처가 사이버무역 상인을 육성하고 경제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단법인은 행정 주무부처로부터 행정지도와 감독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5천만 원의 설립기금이 필요하다. 이 밖에 사이버 대학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할 수 있다.

### ① 사이버(원격)대학으로 설립하는 방안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이버대학 설립과 관련된 평생교육법을 운영

하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개념은 정보통신 기술과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이용하여 형성된 상호참여공간(Cyber-Space)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주로 비(非) 면대면 교육을 통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여 학위를 주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대학의 범주에는 방송이나 인쇄매체를 활용하는 기존 원격교육기관도 포함되지만, 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 및 컴퓨터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을 주 학습 방법으로 하는 교육체제라는 것이다. 다만 평생교육시설법 제22조 2항과 3항의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거나 미인정을 받는 것으로 구분된다.<sup>80)</sup>

사이버대학의 설립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대학 설립에 대해 상법상 법인을 불허한 것은 사이버대학 운영의 안정성·계속성 및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사이버대학 설치를 위한 법인 설립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설치 주체 중 지방자치단체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컨소시엄에 의한 설립이 불가능한 법인 형태로 볼 수 있으며,

80) 학력 미인정 관련 시설은 신고대상과 비신고 대상으로 나뉘지며 학습비를 받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학력 미인정 관련 시설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10인 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학습비를 받지 않고 사용자,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학력인정은 인가를 받은 시설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원격교육으로 전문대와 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 학위 인정과 일정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전문학사 학위와 학사학위 과정만 가능하며 대학원 과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이버대학 설치만을 위한 학교법인을 컨소시엄에 의하여 설립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단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단독 또는 공동출연을 통해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단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은 출연을 한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또는 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게 된다.<sup>81)</sup>

이 밖에 외국인 또는 외국대학이 직접 또는 외국법인 자격으로 사이버대학을 설치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으나 국내의 학교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재산출연 및 이사로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는 데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학에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 학위 수여는 가능할 것이나, 외국 학위 수여는 가능하지 않다. 이와 함께 외국자본 도입도 결국 국내 학교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이며, 외국자본이 직접 사이버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은 평생교육법령에 의하면 네 가지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은 총면적이 660㎡ 이상 교사(校舍)를 확보해야 한다. 단 이 교사는 설치자의 소유여야 한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주관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이버대학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교사로

---

81) 서명범, <사이버대학 설치 절차>, 교육마당21(2001년 7월호).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둘째, 원격교육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실험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실습실과 실습기자재를 구입, 비치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학생 정원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학생 정원에 맞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사이버대학은 전임교원 및 조교를 학과당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수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사이버대학의 교원도 일반대학의 교원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사이버대학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 오프라인 대학 설립 때와 마찬가지로 연간 학교회계운영 수익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그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3억 원이다. 하지만 평생교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각종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한 20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원격교육의 시설로는 기본시설과 지원시설로 나눌 수 있다. 기본시설은 강의 서버, 학사행정 서버, 백업용 데이터베이스 서버, 방화벽 서버 등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지원시설로는 영상 및 음향제작 장비와 보조기억장치, 동영상 서버, 음향편집 소프트웨어 등이며 동영상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매체제작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필요하다.

## ② 재단(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

재단법인을 설립,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만들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게다가 학생들이 졸업(수료)한 뒤 취업하는데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면 더 나올 수 있다.

이 밖에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무역진흥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있듯이 온라인무역진흥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을 세운다면 정부의 행·재정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포단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카데미 설립기금의 일부를 정부가 출연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우면 얼마든지 임의단체로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학들과 연합하여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 학원 또는 무역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안학교도 세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의단체가 운영하는 사이버교육기관은 성장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특수법인이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3)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여러 형태의 사이버무역 상인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국제무역에 관심을 가진 대학졸업생 또는 무역 초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무역상 양성 프로그램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는 온라인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동포 자녀 초청 디지털기술전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이버무역 상인 양성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의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해당 지역 언어와 사이버실무무역과 IT교육 등 세 가지 영역을 습득하는 코스로 운영하면 된다. 특히 국내에서 3~6개월간 교육과 6~9개월 정도의 해외연수로 나뉘어 운영할 수 있다. 해외연수는 교육생이 해외에 진출, 정착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한 재외교포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일정 기간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 방안은 무역으로 성공한 재외동포의 글로벌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언어를 터득하며 현지에 IT기술을 접목하는 국제무역 또는 중개무역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화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교육과정은 외국어 교육 및 실무무역, IT기술의 현지 응용 능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생의 입장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외국에 진출, 현지에서 성공한 60세 이상의 재외동포 무역상을 젊은층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외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 무역상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한국과 현지 국가를 연결하는 수출입 무역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데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후손들은 현지 국가에서 성장하여 변호사 등 주류사회에 신분 편입이 이루어지다 보니 부모가 운영하는 가업(家業 : 무역업체)을 떠맡아 경영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지의 기업가들은 재외 한인들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선풍  
인수하려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상품을 수입, 팔았던 해외동  
포들이 운영하는 무역업체에 대해 현지의 기업가들이 관심(자신들  
의 입장에서 보면 연고가 없는 업체)을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재외동포의 무역업체를 인수할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는 고령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를 이  
끌어갈 만한 여력이 없다. 만약 이들 무역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해  
외에 진출, 정착에 성공했던 재외동포들의 실적(성공비결)이 고스란  
히 없어지게 된다.

이들 무역 관련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재외동포 출신의 무역업  
자가 도태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그동안 모진 고생을 한 뒤 터득한 국제무역 관련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어도 인수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은 개인의 불행이요, 우리나라의 비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에 해외현지 연수과정을 포함시킨  
다면 교육생이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현지 교포 무역상인들도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생은 현지 언어를 습득하면서 외국인의 구매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돈을 들이지 않고 숙식이 해결될 수 있다. 이와 함  
께 이들 교육생들이 현지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고 정착한다면  
자연스럽게 재외동포들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인수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현지 무역상인은 디지털 기술로 무장된 교육생으로부터 다  
양한 정보와 업무능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제품을 현지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육과정이 제대로 정착만 되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해외동포의 자녀를 초청하여 디지털 기술훈련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브라질 일본이민 2, 3세들을 본국으로 초청, 기술을 가르쳐주는 소위 '데카제키(生稼)'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수십만 명의 일본 이민 2, 3세들을 본국으로 데려와 산업 근로자로 일하도록 하고 있다.

데카제키 제도는 처음에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뤄지다가 지금은 특별법 형태로 일본 정부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1996년의 경우 대략 비교적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민 가정의 자녀 20만 명이 모국에 체류하면서 기술을 연마하였다. 브라질 일본 이민자들은 모국에서 2~3년간 체류하면서 배운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 브라질로 건너가 소규모 기업을 창업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들이 매년 20억~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일본에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일본 등은 세계 곳곳에 널려 있는 해외 이민자들과 연계해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재외동포 자녀들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민 자녀를 초청, 디지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모국 디지털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체의 후원을 얻어 진행할 경우 연수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첨단기술을 연마하여 현지 국가에서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전파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온라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일반 과정과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사설학원과 각종 연수 및 훈련기관 등을 운영하는 기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 (4)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 목표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교육 목표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신용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인재양성에 있다. 이를 위해 특정분야(사이버무역)의 인재양성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차원에서 평생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무장한 젊은이를 해외 진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세 가지 성격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즉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은 물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상인정신과 상인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것은 물론 생활경제와 관련된 금융, 부동산 등 재테크와 경제 주체에 대한 직업윤리 및 윤리경영 등을 사이버(온라인)를 통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즉 디지털 환경에 맞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수출입무역을 대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오프라인 성격의 교육기관으로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에 대한 온라인 경제교육과 사이버무역 상인을 양성하는 오프라인의 사이버무역 교


육을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정착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지화에 성공한 재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할 경우 추후 거대한 사이버무역망을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 목표는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후예를 양성하는 데 있다. 즉 장보고 대사의 후예를 양성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이버무역 상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습득하고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 국제무역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부를 창출하는 사이버무역상 양성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업이다.

이 밖에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여 '세계화의 침병'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타의든 자발적이든 전 세계 142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600여만 명의 재외동포를 갖고 있다. 이는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를 '사이버무역'이라는 공통분모를 내세워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외동포는 세계화의 침병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해외 영토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한국 상품의 전광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재외동포는 '무한하고 창조적인 인적자원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에 이들 재외동포를 무역전진기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설립 목표를 두자는 것이다.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커리큘럼과 활용 방안**



5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 기관을 세우자는 것이다. 사이버교육의 방법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교육과 위성교육, PC통신망기반 재택수업, 인트라넷기반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하다.<sup>82)</sup>

이외에 디지털 기술에 의해 다양한 사이버 교육 방안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다.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커리큘럼 연구이다. 커리큘럼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운영 방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대학에서 개설된 사이버무역학과의 커리큘럼과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자 한다.

---

82) 이인숙(2000), <사이버교육의 국내의 현황과 전망>, 《인간·사회@인터넷 학술대회 자료집》(ppt)

## 1.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커리큘럼 모색

### (1) 기존 사이버무역학과의 커리큘럼

기존 대학에 개설된 사이버무역학과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1974년 무역학과가 설치되어 20년간 운영되어 온 계명대학교에서 2001년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사이버무역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2003년 3월부터 사이버무역학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 대학은 무역 거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전자서류교환, 무역기반 정보기술(IT), 외국어 등에 관한 이해와 실습(e-trade simulation)을 통하여 외국무역에 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비즈니스 맨'을 양성할 목적으로 신설했다.

사이버무역학과의 교과목은 크게 무역영어와 국제간 상거래, e비즈니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Spoken English (1)(2)(3)(4)(5)와 internet 무역영어, 무역영어 등 무역하는 과정에서 외국 바이어와 대화할 수 있는 어학관련 커리큘럼이 있다. 또 무역정보입문, 무역정보(1)(2)(3)(4) 등 무역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을 다루는 커리큘럼도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무역의 기초적인 이론을 제공하는 사이버무역론, 디지털경제,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인터넷마케팅 등의 교과목도 있다. 이 밖에 국제상거래 관련 교과목으로는 국제상거래론, 영미상거래법개론, 국제상거래계약, 무역관련 국내법규, 국제상거래이행, 사이버무역법, 국제상거래사후관리, 국제통일상관습, 국제상거래분쟁론, 국제상관습사례, 국제상거래세미나 등이 있다. 또 사이버무역과 연관되는 교과목으로는 국제운송법, 사이버무역결제,

사이버무역보험, 무역 EDI 등이 있으며 IT기술관련 커리큘럼으로는 웹프로그래밍(1)(2) 등이다. 또 이 대학은 사이버무역을 실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이버무역 시뮬레이션, 사이버무역 창업, 사이버무역 연습(1)(2), 사이버무역 사례, 글로벌 e마켓 플레이스 프로젝트 등의 교과목을 두고 있다.

배화여자대학은 2년 과정의 사이버무역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과는 무역업무의 최첨단 기법을 연구·교육하는 학과로서 2년간 수학 후 무역업체 및 유관업체에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전공 과목으로는 무역영어 I·II, 무역영어회화 1·2·3, 무역영어연습 등 어학 커리큘럼이 있다.

또 사이버무역의 기초과목으로는 무역학개론, 경제학원론, 대외 무역법, 전자상거래론, 한국무역론, 상품학, 경영학원론, 사이버마케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무역 관련 실무커리큘럼으로는 무역실무와 국제무역규칙, 사이버무역계약, 통관실무, 무역보험실무, 국제운송실무, 외환금융실무, 무역회계, 무역클레임 등이 있다. 이 밖에 실습관련 전공과목으로는 O/A실습, 인터넷활용실습, 인터넷무역실습 I·II, 무역실무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천안대학교도 사이버무역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과의 교과목은 무역영어회화 I·II·III·IV와 무역영어 등 어학관련 커리큘럼이 있다. 사이버무역학과의 기본 교과목으로는 국제무역학개론, 국제통상관계, 국제통상협상론, 국제정치경제론, 한국경제론, 국제운송물류론, 국제상무론 I·II, 신용장론, 무역관계법, 기업법, 국제무역계약론, 경영학원론, 국제경영론, 국제외환금융론, 경제학원론, 무역보험론, 세계지역인구 등이 있다. 이 밖에 실습관련 교과목은 무

역자동화실습, 회계원리, 국제무역학연습 등이 있다.

이 밖에 한국무역협회 부설 무역아카데미는 신입사원 무역실무과정과 단기무역실무과정, 국제무역사 양성과정, 전자무역마스터과정, e-Trade 기초과정, IT마스터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단기무역실무과정은 무역실무 핵심사항 습득을 위한 단기연수과정으로 무역계약 및 대금결제, 수출입통관, 전자무역 등 무역실무전반에 대한 이해 등이다. 또 국제무역사 양성과정은 무역실무개요와 전자무역, 무역마케팅, 무역계약과 외환실무, 대금결제, 무역운송, 해상보험, 영문무역서식 작성, 수출입통관 및 관세 환급, 수출입절차 시뮬레이션 등이다. 전자무역마스터 과정은 디지털 시대 무역업계를 선도할 전자무역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전자무역과 컴퓨터 교육을 하는 전문 프로그램이다. 6개월 과정인 전자무역마스터 과정은 1,800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으로 무역실무와 실전외국어회화(영어 및 제2외국어), 전자무역을 갖춘 프로 비즈니스맨 양성 코스이다. 수강생들은 매월 수당을 받는다. 8년간 취업률이 98%를 자랑하고 있다. IT마스터과정은 SW공학론, Win 2000 서버&IIS TCP/IP를 이용한 네트워크 관리, SQL2000 Visual Basic NET ASP(Active Server Page), NET XML webservice &COM+ Mobile JAVA OOAD(Object Oriented Analysis &Design) 등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2)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커리큘럼 시안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본 연구의 방안이 성공할 수 있느냐를 가름할 수 있다. 이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은 이 과정을 수료(졸업) 후 어느 분야에 취업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목표는 장보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무역상을 양성하는 것이다. 즉 무역거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전자서류교환, 무역기반 정보기술(IT), 외국어 등에 관한 이해와 실습(e-trade simulation)을 통하여 외국무역에 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한 '비즈니스 맨'을 양성할 목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은 무역실무와 진출하려는 국가의 언어 습득 및 IT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사이버 실무무역에 대한 교육이다. 대학마다 개설된 무역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겸한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실재는 졸업 후 종합상사에 입사한 뒤 실무무역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중국은 수출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현재 주요 도시마다 국제무역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4년 교육과정 동안 무역실무와 영어, 일어, 한국어 등 무역을 하려는 해당국 언어를 습득하며 다른 나라 바이어들과 완벽하게 대화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공항에 나가 바이어를 맞이하는 예절에서부터 샘플 보내기, 텔렉스 보내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를 터득하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대한 실무적인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국무역아카데미([www.tradeacademy.co.kr](http://www.tradeacademy.co.kr))가 운영하고 있는 강좌 등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무역을 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교육은 어학 교육이다.

사이버무역에 가장 필요한 홈페이지와 3차원 전자카탈로그 및 온라인 상품 카탈로그 등은 필수적으로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일어 등 외국어로 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메일로 무역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커리큘럼도 상당부분은 어학 습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몇 년 정도 어학을 공부하는 방법보다는 해외에 직접 가서 무역실무도 배우면서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보기술을 습득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개발, 유통 등을 담당하는 e비즈니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T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개발과 콘텐츠 기획, 마케팅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한국 고유의 상인정신과 상인문화(신용, 친절) 등을 전수하고 장보고 대사의 무역정신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국 고유의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커리큘럼에 대해 무역은 물론 경제학, 유통학, 민속학 등 제반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교육생들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실무무역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세계적인 거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인으로서 자세와 정신을 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커리큘럼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자수성가한 교포 상공인과 결속시키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념에 따라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은 어학과 사이버 실무무역, 디지털기술(IT) 및 한국 상업정신과 상인문화 등 크게 4분야이다.

한국 상인문화의 커리큘럼은 한국상업(유통)사와 장보고론, 한민족 해외진출사, 한국상인정신론, 21세기와 한국 경제, 한국무역학 등을 들 수 있다. 이 커리큘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인정신을 함양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어학은 세계적인 언어인 영어와 해외에 진출하려는 국가의 언어(제 2외국어) 등을 마스터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수립해야 한다. 무역영어 I · II · III · IV와 Spoken English(1)(2)(3), 비즈니스 영어, 제2 외국어 등 어학관련 커리큘럼을 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졸업한 학생들은 바이어 등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실무무역과 관련된 커리큘럼은 기초적 이론인 사이버무역론과 디지털경제, e-비즈니스, 인터넷 마케팅과 국제상거래 관련 교과목으로는 국제상거래사후관리와 국제상거래분쟁론, 국제상관습사례, 국제상거래세미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무역 관련 실무 커리큘럼으로는 무역실무와 국제무역규칙, 사이버무역계약, 통관실무, 무역보험실무, 국제운송실무, 외환금융실무, 무역회계, 무역클레임, 사이버무역창업, 사이버무역사례, 글로벌e마켓플레이스프로젝트와 무역운송, 해상보험, 영문무역서식 작성,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디지털 시대의 무역업계를 선도할 전자무역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전자무역과 컴퓨터교육 관련 커리큘럼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SW공학론, Win 2000 서버&IIS, TCP/IP를 이용한 네트워크 관리, 홈페이지 관리론, 서버운영과 O/A실습, 인터넷활용실습, 인터넷무역실습 I · II, 무역실무 시뮬레이션 등의 전문적인 무역실

무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이같은 IT 관련 커리큘럼은 전 세계 주요 나라의 IT 분야별로 취업시 요구되는 수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www.eneckorea.com) 예를 들면 캐나다의 경우 OS 분야별 수요 현황에 따르면 유닉스(unix) 45%, 2000/NT 43%, 리눅스(linux) 12% 등이다. 또한 IT업계 취업시 요구되는 언어는 JAVA 29.8%, ASP & NET 19.0%, XML 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국에서 인턴십을 통하여 해외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의 활동무대 영역을 전세계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운영하는 무역 업체에 인턴으로 보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경제교육 과정과 재외동포 자녀 대상 디지털훈련 프로그램 등 부가적인 사이버교육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교육과정이 개설되면 이에 상응한 커리큘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이버무역 아카데미의 교육대상자 확보 방안**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장보고의 상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또는 사이버무역을 벌이는 무역상을 양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앞서 밝힌 커리큘럼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사이버무역 상인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자는 무역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실무무역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영문학과, 일문학과, 중문학과, 불문학과, 독문학과 등 외국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외국어 문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을 꾀하려는 청년 또는 보따리 무역상들도 교육생으로 특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되는 사이버무역상 양성 프로그램은 장보고 대사의 후예를 교육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철저하게 실무 중심과 무역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커리큘럼으로 편성해야 한다.

또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되는 온라인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장보고의 상인정신과 행상문화는 물론 재테크 등 생활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방향에서 개발되어야 하며, 교육생들은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생, 일반 성인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해외교포 자녀를 국내로 초청, 디지털 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들이 국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자신이 사는 국가로 돌아간 뒤 현지에서 각종 디지털 제품이나 게임 등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그 나라의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한국의 기술을 항구적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활용 방안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안은 사이버무역상을 양성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재외동포를 국내로 초청해 다양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이버무역상 양성 교육기관을 세우자는 것이다. 즉 무역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카데미와 유사한 사이버 연수원의 형태로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다만 교육의 내용에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사이버무역을 교육하는 곳이 라면 외국어 교육과 디지털 기술 및 마케팅, 사이버실무무역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장보고의 상인정신과 행상문화 등 한국 고유의 상인정신과 상인문화를 전수하는 특별 강좌 및 커리큘럼을 개설, 운영하자는 것이다. 소위 한국의 상인정신과 상인문화를 전수하는 사이버무역의 교육 전당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 아카데미를 사이버무역상을 양성, 전세계에 살고 있는 한인 기업인과 무역상을 연결(네트워크)하는 '한민족경제권'의 중추기관으로 활용하자는 데 있다. 왜냐하면 장보고 대사가 재당신라인과 재일신라인을 하나로 묶어 '신라인 경제공동체'를 추구했던 선례를 본받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카데미를 통하여 오늘날 전세계 142개국에 살고 있는 재외한인을 네트워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둘째, 장보고 대사가 법화원을 세워 재당 신라인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것처럼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오늘날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불량자가 35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보고 대사의 개방정신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해외 진출을 꾀하려는 청년들에게 해외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국제적인 비즈니스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과 중개무역상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로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프로젝트는 모국과 재외한인 무역상을 연결하는 '코리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소위 경영실무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비즈니스 스쿨(business school)'의 형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사이버무역 실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비즈니스 스쿨의 형태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비즈니스 스쿨은 대학 졸업 후 보통 3~4년의 직장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한다. 마찬가지로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는 일반 무역회사 등에서 실무 무역을 접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비즈니스 스쿨은 청년실업자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과는 별도로 들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대표적인 비즈니스 스쿨은 MBA(경영관리학 석사) 과정이다. 미국과 유럽의 비즈니스 스쿨을 비교한다면 미국의 MBA 과정은 2년 인 데 반해 유럽은 1년이다. 또 하나는 미국은 다국적 학생의 비중이 대부분 30% 내외인데 유럽은 자국민의 비중이 15%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 비즈니스 스쿨은 역사는 짧지만 미국에 비해 질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또 중국의 국제무역학교는 국제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즈니스 매너를 가르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인 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 스쿨 형태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 내용의 상당부분은 사이버교육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외국어 등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체득할 수 있다.

또한 세계 무역현장을 누볐던 베테랑급 무역상들을 교수로 초빙, 풍부한 무역 실무 경험을 전수하는 이른바 도제(徒弟)교육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젊은 인재들이 해외에 진출,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3. 본 연구의 한계와 의미

본 연구는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실현 가능성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의 설립 목적과 배경 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다면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제 주체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 경제교육의 핵심사상으로 장보고 대사의 상인정신(개방화)을 계승, 발전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교육의 모델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제시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상당부분을 한국 경제교육의 실태와 핵심사상을 분석하는 데 할애한 것은 그만큼 현실성이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카데미의 커리큘럼과 운영 방안이 미흡했다. 변명처럼 들릴는지 모르지만 커리큘럼 모색과 운영 방안은 먼저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는 정책 결정이 이뤄지고 난 뒤 차후 모색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가 정부와 기업, 소비자,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경제교육의 전당으로 장보고 사이버무역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1. 사서

- 《古事記》  
《舊唐書》  
《東史綱目》  
《唐律疏議》  
《범천문집》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魏志東夷傳》  
《續日本後紀》  
《新羅本紀》  
《安祥寺伽藍緣起資財帳》  
《類聚三代格》

## 2. 논문

- 권덕영, 〈신라시대 서·남해 海賊과 장보고의 해상활동-대외문물교류 연구〉,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1
- 권덕영, 〈장보고의 상업제국과 국제무역〉, 한국해양전략연구소, strategy21 vol 4-2(통권 8호), 2002
- 권덕영, 〈재당 신라인 사회와 적산 법회원〉,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 민성규·최재수, 〈해상왕 장보고의 해상활동과 무역의 의의〉,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학술총서, 2001
- 이범걸, 〈사이버무역의 현황과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8권, 2001
- 이인숙, 〈사이버교육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인간·사회@인터넷 학술대

- 회 자료집(ppt), 2000.
- 장두진·최근영, 〈장보고 관련 서술의 종합적 검토—국사교과서와 한국사 개설서를 중심으로〉,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
- 장용호, 〈인터넷신문공급체계〉, 한국언론학술논총, 2001
- 조범환, 〈장보고와 赤山 法花院〉, 해상왕장보고연구회 연구회지 창간호, 2002
- 최광식 외, 〈해상왕 장보고 그는 누구인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1

### 3. 단행본 및 보고서. 정기간행물

- 김남일·홍의, 《국제무역사》, 수서원, 2000
- 김문경, 《엔닌의 入唐求法巡禮行記》, 중심, 2001
- 김성훈, 《장보고 해양경영사연구》, 이진도서출판사, 1993
- 김영락·김대중, 《인터넷무역 실무》, 21세기북스, 2000
- 김용섭, 《한국근대농업사 연구Ⅲ—전환기의 농민운동》, 지식산업사, 2001
- 김형근, 《해상왕 장보고의 국제무역활동과 물류》,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학술총서, 2001
- 류태영, 《천재는 없다》, 성현출판사, 1995
- 백승철, 《조선후기상업사연구—상업론·상업정책》, 혜안, 2002
- 서기원, 《한국경제론》, 2001
- 윤명철,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세계절, 2001
- 이영화, 《조선시대 조선사람들—조선의 土農工商, 어떻게 살았을까?》, 가람기획, 1998
- 이을기, 《민족문화와 한국적 경영학》, 법문사, 1988
- 이성시,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1999
-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도서출판 밀알, 2001

- 최태호, 《근대한국경제사 연구서설-개항기의 한국관세제도와 민족경제》,  
 국민대학교 출판부, 1991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이버대학모니터링 연구〉, 2002
- 황명수 외, 《한국의 시장상업사 : 소매상업발달의 통사적연구》, 신세계백화  
 점 출판부, 1992
- 황상석, 《장보고를 알면 세계가 열린다》, 도서출판 한눈, 2000
- 해상왕장보고연구회, 〈7~10세기 한중일 교역연구문헌목록자료집〉, 서경  
 문화사, 2001

#### 4. 신문·잡지

- 동아일보, 2003년 6월 30일
- 세계일보, 2003년 6월 25일 / 2003년 9월 14일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
- 산업자원부, e-Learning산업활성화 방안, 2002
- 정보통신부, IT신성장동력발전보고서, 2003
- 월간 교육마당 21, 2001년 7월호
- 월간 전경련, 2003년 5월호

#### 5. 인터넷

- [www.practicalmoneyskills.com](http://www.practicalmoneyskills.com)
- [www.kita.net](http://www.kita.net)



## 장보고를 통해 상인정신의 원형을 배우다

이 책은 한국 경제에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조리 현상'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개방화시대의 한국 경제 과제가 무엇인가를 도출했으며 그 해결 방안으로서 무역을 통한 국부 창출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 무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상인정신의 원형으로 장보고 칭해진 대사의 개방화 정신과 개척정신, 무역진흥정신, 공동체정신 등을 다루었다. 이는 장보고 대사가 절대봉건 체제하에서 어떻게 민간무역을 수행했으며, 어떻게 당나라와 일본, 신라를 잇는 중개무역을 전개·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여준다.

